

정답 및 해설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100발100중

고등 기출
문제집

공통 | 1
국어

1학기·전과정

지학사
김철호

내신에 남기를 도와 주는 100발100중!



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

(1) 서정 갈래의 이해_배를 매어

기출 심전

문제

본문 012~015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② 05 ③ 06 ⑤ 07 ⑤ 08 ⑤
09 ④ 10 ② 11 ② 12 ⑤ 13 ④ 14 ⑤ 15 ⑤

- 01 이 글에서는 배와 그 배가 던지는 밧줄, 이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행위 등이,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 및 사랑의 속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배’, ‘밧줄’ 등의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화자는 사색적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③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색채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⑤ ‘달썩’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사랑이 갑자기 찾아온 상황을 드러낸 것일 뿐 화자의 태도를 구체화한 것은 아니다.

- 02 5연의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 온종일을 떠 있다’에는 배를 매듯 갑자기 찾아온 운명적인 사랑에 대한 화자의 설렘, 환희와 경이로움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화자는 운명적으로 다가온 사랑으로 인해 설렘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사랑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당황해하지는 않는다. ③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과의 이별을 예감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화자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지만,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이를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화자는 갑자기 다가온 사랑으로 인해 설레고 있을 뿐, 자신의 진심을 전하지 못해 안타까워하지는 않는다.

- 03 화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으로 다가온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올 것에 대한 아무런 마음 자세가 없음, 즉 예상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① 배를 매는 것은 사랑이 시작되는 것으로, ㉠은 화자가 사랑하게 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② ㉠은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공간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일게 되는 공간에 해당한다. ④ 밧줄을 맴으로써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의 곁에 머물게 되므로 ㉠은 대상과 우연히 맺게 된 인연을 상징한다. ⑤ ㉠은 배와 함께 매어지는 것이므로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싼 주변 세계나 환경을 의미한다.

- 04 1연의 ‘맨다, 닿는다’ 등에서 각운을 사용하고 있고(㉠), ‘사랑은 (이란) ~는 것’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⑥ 첫 연을 마지막 연에서 반복하여 제시하는 수미 상관의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③ 3음보, 4음보와 같이 규칙적인 음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 05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 온종일을 떠 있다’에서는 밧줄로 매어진 배가 ‘울렁이며’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는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기쁨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 4연에 사랑의 본질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지만, 이러한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 자유로운 연상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④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을 뿐,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⑤ 문장 내에서 모순이 되는 역설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 06 이 글은 5연에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온 상황에 대한 설렘과 기쁨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보기>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뿐, 사랑하는 임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달썩’, <보기>에서는 ‘서리서리, 굵이굵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를 매는 일로, <보기>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의 허리를 베어 낸다고 함으로써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이 글의 화자는 사랑하는 대상이 곁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기>의 화자는 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사랑하는 대상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이 글은 배를 매는 일을 사랑이 시작되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는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여 사랑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보기>는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여 사랑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Plus <보기> 동짓달 기나긴 밤을_황진이

갈래	평시조
성격	감상적, 낭만적
주제	임에 대한 기다림과 사랑
해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여 사랑을 전개하고 있으며,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형상화함.

- 07 ㉡ 앞에서 ‘구름과 빛과 시간’이 배와 함께 매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과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사랑은 상대를 둘러싼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사랑에 대해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글은 사랑이 우연하게 갑자기 찾아오고 있음을 그리고 있으므로, 화자가 사랑을 간절히 기다렸다고는 할 수 없다. ③ 화자는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의 주변 환경도 수용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상대의 주변 환경을 전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④ 화자는 사랑에 대해 상대를 둘러싼 주변 환경도 함께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랑이 상대방만 아니라 상대를 둘러싼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

- 08 이 글의 ‘부들’은 배가 들어오고 배에 밧줄이 매이는 곳으로, 이 과정을 통해 화자는 사랑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반면 <보기>의 ‘수막’은 적막하고 비어 있어, 임이 떠나고 난 뒤 임의 부재를 실감하게 되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① ‘부들’에서 반복되는 시련은 찾을 수 없으며, ‘수막’은 도피의 공간이 아니다. ② ‘부들’은 화자와 사랑하는 대상의 개인적 공간이지 공동체적 공간이 아니다. ‘수막’은 임이 더 이상 없는 곳으로 개인적 공간이다. ③ ‘수막’은 임이 없으므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현재적 공간이다. 반면 ‘부들’은 화자가 회귀하고 싶어 하는 과거의 공간이라 볼 수 없다. ④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반면 ‘부들’은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사랑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이다.

Plus <보기> 사미인곡_정철

갈래	가사
성격	서정적, 연모적, 의지적
주제	연군의 정
해제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을, 임을 생각하는 여인의 애절한 고백 형식으로 풀어 냄.

▶ (나) 나룻배와 행인_한용운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명상적, 상징적, 구도적
주제	임에 대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해제	은유와 상징을 통해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설정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 09 (가)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와 ‘당신’의 관계를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모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밧줄을 잡아 배를 맨 이후 매어진 배가 빛 가운데 온종일 떠 있는 것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 ② (나)는 1연을 5연에서 반복하는 수미 상관의 구성으로 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반면 (가)에는 수미 상관의 구성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의 2~4연에서는 명시로 사상을 종결하고 있지만, 마지막 연에서는 ‘떠 있다’로 종결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나)는 ‘행인’이라는 명시로 사상을 종결하고 있다. ⑤ (가), (나) 모두 시각적 이미지만 사용되고 있을 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10 (가)에서 ‘배’는 사랑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화자에게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다가와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배’가 사랑하는 대상 즉, 화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나)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를 통해, ‘나룻배’는 사랑하는 대상인 ‘행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배를 매는 일을 사랑이 시작되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나)에서는 ‘나’와 ‘당신’의 관계를 ‘나룻배’와 ‘행인’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나룻배, 즉 화자는 ‘당신’이 출발로 짓밟아도 ‘당신을 안고’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를 통해, 화자는 ‘당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배’가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다가와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고 있으므로, ‘배’는 화자에게 우연히 운명적으로 다가온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11 (가)의 1연에서 밧줄이 날아오는 상황에 ‘털썩’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현실감을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문장 내에서 모순이 되는 역설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③ 공간적 배경이 ‘부둣가’임을 알 수 있지만, 이를 다른 공간과 대비하지는 않고 있다. ④ (가)에서 영탄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우연히 다가온 상황과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담담한 어조로 제시하고 있을 뿐, 어조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 12 (가)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에 대해 노래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대상과의 이별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잔잔한 바닷물’을,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한 화자의 침잠된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밧줄이 날아왔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사랑의 대상이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② ‘배’는 사랑하는 대상을 뜻하므로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받아들여 사랑을 시작하게 됨을 의미한다. ③ ‘호젓한 부둣가’는 배가 들어오는 곳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던져지는 밧줄’을 받아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맨다는 수동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랑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 13 ‘우연히’는 배를 매게 되는 것, 즉 사랑이 뜻하지 않게 시작됨을 드러낸 것이다. 사랑의 대상이 무작위로 정해지는 상황을 부각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소리’나 ‘말’이 없이 배가 다가와 밧줄이 날아온 것은 화자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찾아왔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없이’를 통해 배가 예측할 수 없게 갑자기 다가온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털썩’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밧줄이 날아오는 것에 대한 사실감과 구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③ ‘천천히’와 ‘조용히’는 배가 멀리서부터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⑤ ‘구름과 빛과 시간’이 배와 같이 매어지게 된다는 것을 ‘함께’라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14 [A]에서는 ‘배를 매면’ 구름, 빛,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고백하고,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즉,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 주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사랑을 갈구하는 내용이나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은 [A]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연에 제시되어 있다.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 15 <보기>에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 다 흔들리면서 피었다’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였다. 즉 <보기>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 시련을 겪어야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사랑은(이란) ~는 것’이라는 통사 구조가, <보기>에서는 ‘~지 않고 ~이 어디 있으랴’라는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의 주변 환경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보기>의 화자는 시련을 겪어야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배를 매는 일’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일’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리고 <보기>는 ‘흔들리면서 꽃이 피는 과정’에서 ‘시련 속에서 사랑이 싹트는 과정’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보기> 모두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여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보기>는 ‘~ 어디 있으랴’를 통해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가)는 설의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 Plus <보기> 흔들리며 피는 꽃_도종환

갈래	서정시, 자유시
성격	사색적, 비유적
주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완성되는 사랑과 삶
해제	비바람에 흔들리고 젖으면서 꽃이 피듯이, 사랑과 삶도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완성을 드러냄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16-019쪽

- 01 ④ 02 ⑤ 03 ③ 04 ④ 05 ① 06 ③ 07 ⑤ 08 ①
09 ④ 10 ⑤

▶ (나) 서경별곡_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고려 가요
성격	서정적, 애상적, 적극적
주제	이별의 정한
해제	서민층에서 불리다가 궁중 음악으로 채택된 고려 가요로, 남녀의 이별과 그로 인한 슬픔의 정서를 형상화함.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의 모습이 드러남.

- 01 (나)는 3연에서 입을 강 건너로 실어 나르는 사공을 원망하고 있을 뿐, 자신을 떠나는 입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추상적 관념인 사랑이 시작되는 일을, 배를 매는 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다령'라는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구름과 빛과 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구를, (나)에서는 '서경이', '대동강' 등 동일한 시구를 두 번씩 반복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⑤ (가)는 4연에서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을 통해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달리 (나)는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드러나 있을 뿐,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 02 ㉓는 밧줄이 날아와 배를 매는, 즉 사랑하는 대상이 우연히 다가와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㉓는 사랑하는 대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랑하는 대상과의 인연이 시작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나)에서는 사공이 입을 배에 태워 ①를 건너게 하였으므로, ①는 화자와 입이 이별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㉓, ① 모두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은 아니다. ② ㉓, ① 모두 사랑하는 대상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공간은 아니다. ③ 사랑하는 대상과 화자의 인연이 시작되는 공간은 ⑥가 아니라 ㉓이다. ④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보내는 설움이 담긴 공간은 ㉓가 아니라 ①이다.

- 03 화자가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는 것은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에서 화자가 사랑의 대상이 다가온 것에 대해 고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인연에 대해 화자가 내적 고뇌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배를 매고 있는 밧줄은 사랑하는 대상과 맺어지게 된 인연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아무 소리나 말도 없이 던져진 것은 예기치 못한 일임을 의미한다. ② 사랑하는 대상인 배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닿는 모습은,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옴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화자는 배를 매게 되면 '구름과 빛과 시간'도 함께 매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이는 사랑의 대상을 둘러싼 주변 환경도 받아들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배가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는 모습을 통해 대상에 대한 떨림과 설렘을 느끼는 화자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다.

- 04 (나)에서 화자는 사랑하는 입이 대동강을 건너게 한 사공에 대해 원망을 표출하고 있지만, 사공이 입을 배로 건네 준 것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공이 화자로 하여금 내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화자는 예측할 수 없게 갑자기 등 뒤로 온 밧줄을 잡아 배를 매고 있는데, 이는 우연히 다가온 사랑하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밧줄'은 화자와 사랑하는 대상을 이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배'는 화자에게 우연히 다가온 사랑하는 대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③ '질삼빔'은 '길쌈하던 베'로, 길쌈을 하여 배를 찌는 것은 당시 여성의 고유한 노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질삼빔'은 이별한 주체인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하게 해 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⑤ '꽃'은 입이 대동강을 건너면 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으로, 화자를 떠난 입이 만나게 될 다른 여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나) 건우의 노래_서정주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낭만적, 의지적
주제	이별의 아픔과 고난 극복을 통한 진정한 사랑
해제	'건우와 직녀'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건우가 직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별과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냄.

- 05 (가)는 '사랑은(이란) ~는 것'이라는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있어야 하네'라는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의 1연에서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가)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③ (가)는 5연에서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설렘을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화자가 이별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나)는 화자가 이별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이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 본분에 충실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는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가)와 (나) 모두 시작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06 (가)에서 화자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대상의 주변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름과 빛과 시간'이 배와 함께 매어진다고 하였으므로, ㉓는 화자가 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 '그대' 즉 직녀는 이별의 상황에 처하여 '구름' 속에서 베를을 놀리고 있으므로 ㉓는 '그대'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07 ㉓은 배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화자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사랑하는 대상을 떠올릴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출렁거리는 배의 모습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㉓을 통해 화자는 사랑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② ㉓은 사랑이 다가오는 과정을 부뒀기에 천천히 다가오는 배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㉓은 화자가 현재 있는 곳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맞이하는 공간이므로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을 맺게 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④ ㉓을 통해 화자는, 사랑이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 (나) 낙화_이형기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유적, 관조적
주제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
해제	인간사의 이별을 꽃이 떨어지는 '낙화'로 형상화하고 '낙화' 이후에 맺히는 '열매'에 주목하여 이별에 영혼의 성숙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

- 08 (가)에서는 '배를 매는 일'을 '사랑이 시작되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나)에서는 꽃이 지는 자연 현상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여 사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와 (나)에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감각적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③ (가)와 (나) 모두 부정적 현실이 드러나 있지 않고, 반성과 성찰의 태도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의 1연에서 화자는 이별의 의미를 알고 제때 떨어지는 꽃잎을 두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며 그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영탄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영탄적 어조를 찾아볼 수 없다. ⑤ (나)에서 꽃을 의인화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와의 거리감을 부각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가)에는 대상을 의인화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 09 (가)에서 화자는 갑자기 날아온 밧줄을 잡고 배를 매고 있는데, 이는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어찌할 수 없이’는 다가오는 사랑을 어찌지 못하고 받아들이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사랑의 불가항력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갑자기 날아온 ‘밧줄’을 잡는 것은, 갑자기 다가온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이 시작됨을 드러낸 것이다. ② 화자는 자신에게 ‘던져지는’ 밧줄을 받고 배를 매고 있는데, 이는 다가오는 사랑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임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⑤ 화자는 배를 매게 되면 배뿐만 아니라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즉 화자는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환경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은 사랑의 본질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10 ㉠ 뒤의 ‘내 영혼의 슬픈 눈’은 슬프지만 이별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영혼을 의미하므로, ㉠은 이별로 인해 화자가 조금씩 성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이별로 인한 화자의 슬픔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뛰어가’ 밧줄을 잡아 배를 매는 것은, 사랑이 다가온 것에 대한 화자의 반가운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배가 울렁이며 떠 있는 것은 사랑으로 인해 설레는 화자의 마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③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이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꽃답게’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20-021쪽

01 배를 매는 것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02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지는 것처럼,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환경도 받아들이야 함을 깨닫고 있다. 03 사랑은 우연적이고 운명적이면서 불가항력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04 5연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설렘(떨림)과 사랑으로 인한 기쁨(환희)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5 사랑, 흥

- 01 <보기>에서는 이 글이 유추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배’는 사랑하는 대상을 의미하므로, ‘배’를 매는 것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02 이 글에서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난 연은 4연으로, 화자는 배를 매게 되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지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하면서, 사랑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환경을 의미하므로,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환경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03 2연 1~3행을 통해 사랑이 우연히 다가오는 우연적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고, 4~5행을 통해 사랑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7행을 통해 사랑은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04 4연에서는 부딪가에 매어진 배가 흔들리는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보여 줌으로써, 운명적으로 다가온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화자의 설렘과 떨림, 기쁨과 환희 등을 드러내고 있다.

- 05 이 글에서는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배’를 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보기>에서는 추상적 관념인 ‘흥’을, 전나귀에 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Plus <보기> 전원에 남은 흥을 김천택

갈래	평시조
성격	한정가, 풍류적
주제	전원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흥
해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가 자연을 즐기며 느끼는 흥취와 풍류를 노래함.

OX로 마무리

본문 022-02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4 1연에 ‘털썩’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밧줄이 갑자기 날아온 상황을 드러낸 것이지, 시적 대상인 ‘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다.
- 06 ‘배를 매는 일’을 ‘사랑이 시작되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여 시상을 전개하면서 사랑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반어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10 화자는 등 뒤로 날아온 밧줄을 ‘뛰어가’ 잡아서 배를 매고 있는데, 이는 다가온 사랑에 대한 화자의 반가운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 14 화자가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는 것은 사랑이 지닌 불가항력적인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 19 이 글은 ‘배’를 소재로 하여 ‘구름’, ‘빛’, ‘바닷물’ 등의 자연물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인간사와 대비하고 있지는 않으며 인간이 지닌 한계에 대한 인식 또한 찾아볼 수 없다.

(2) 서사 갈래의 이해 봄·봄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26~031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③ 05 ② 06 ① 07 ③ 08 ④
09 ⑤ 10 ⑤ 11 ④ 12 ④ 13 ③ 14 ⑤ 15 ⑤

- 01 '나'는 장인과의 계약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는 있지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고 있다. 단지 장인에게 피병을 부리며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성례를 치르기 위해 점순이의 키가 자라기를 바라고 있지만, "제-미, 키두!", "어떻게 돼먹은 키지 이래도 막무관해나……"에서 알 수 있듯이 자라지 않는 점순이의 키를 답답하게 여기고 있다. ② '나'는 점순이의 키가 자라면 성례를 시켜 주겠다는 조건으로 장인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음을 들어 '나'를 부려 먹고 있다. 따라서 장인은 점순이와의 성례를 핑계로 '나'에게 일을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성례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나'의 말에 장인은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쳐 자라아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인은 성례를 시켜 달라는 '나'의 말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장인의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이라는 말을 통해, 이전에도 '나'는 피병을 부리며 일을 하지 않으려 한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02 '나'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일부러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나'가 심고 있는 벼가 자라 장인의 배만 불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가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장인의 의도를 눈치챘기 때문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나'는 장인과의 계약이 잘못된 것은 알지만 장인이 자신을 머슴처럼 부려 먹기 위해 데릴사위로 데리고 있다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황 판단이 빠르다고도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장인에게 성례를 시켜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뒤통수를 굽으며 성례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소심한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④ '나'는 점순이의 키가 자라면 성례를 시켜 준다는 장인의 말만 믿고 돈 한 톨 받지 않으며 우직하게 일하는 어수룩한 인물이다. ⑤ 내외해야 한다는 장인의 말에, 점순이와 마주 서 이야기 한마디 하는 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나'는 순진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03 '뉘어놓고 말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마 했으니,'라는 부분을 통해 계약 성사의 조건은 점순이의 키가 어느 정도 자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계약을 맺은 사람은 '나'와 장인이다. ② '이태면 이태, 삼 년이면 삼 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 할 것이다.'를 통해 '나'와 장인 간의 계약 기간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점순이와 빨리 성례를 올리고 싶어 하므로 계약 성사를 늦출 것을 주장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래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를 통해, '나'는 장인에게 유리한 계약 상황임을 뒤늦게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 04 ㉠ 앞의 "제-미, 키두!"라는 '나'의 말로 보아, ㉡는 점순이의 키가 크지 않는 것에 '나'의 불만이 담긴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성례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나'의 말에 대한 장인의 대답이다. 따라서 ㉡에는 '나'와 점순이와의 성례를 미루고 싶어 하는 장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는 장인이 제안한 것으로,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를 통해 이것이 '나'에게 부담한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는 폭폭 크는 '개, 돼지'에 비해 점순이의 키가 크지 않음을 드러낸 내용으로, 점순이의 키가 크지 않는 사실을 동물과 비교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⑤ ㉤는 '나'가 점순이의 키가 크기를 서당당에서 비는 장면으로, 점순이가 자라야 성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순이와 빨리 성례를 올리고 싶어 하는 '나'의 간절

함이 드러난 말이라 할 수 있다.

- 05 '나'가 피병을 부리며 장인과 대립하고 있던 중에 장인이 '나'의 뺨을 때린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서술자인 '나'는 '작년 이맘때'의 사건, 즉 장인이 던진 돌맹이에 맞아 '나'가 발목을 빼었다가 장인의 회유에 넘어가 일을 해치웠던 사건을 회상한다. 이러한 회상을 통해 '나'가 점순이와 혼인하기로 하고 장인의 집에서 데릴사위로 일을 해 주고 있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현재 사건을 서술하다가 '작년 이맘때'의 사건, '그 전날'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의 병치로 볼 수 없다. ③ 일상적인 구어체로 서술하고 있으며, 현학적 표현은 찾기 어렵다. ④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전하고 있다. ⑤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 06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나'에게 점순이는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라고 종알거리고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쓰아불이기까지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점순이는 성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나'에 대해 불만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나'는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나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은 아니다. 이는 장인이 '나'에게 '콘소리할 계제'가 아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나'와 장인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일만 시키고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주지 않기 때문이다. ④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은 것은 마음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작인들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다. ⑤ '나'는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 07 마름인 장인이 횡포를 부려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당시 농촌의 현실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장인이 마름으로서의 못된 행동 때문에 인심을 잃는 상황이 해학성을 돋보이게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오답 해설 ① '나'가 '그 전날' 일어난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 글의 사건 전개가 역순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비속어의 사용이 웃음을 유발한다고 하였으므로, '돌아치든 놈, 이 자식, 망할 자식'이라는 비속어의 사용이 웃음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길에 버 잘되면 너 장가들지 않나?'는 거짓으로 '나'를 구슬려 일을 시키려는 장인의 의도가 담긴 말로, 이를 통해 교활한 장인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⑤ '나'는 올가을에 농사가 잘되면 장가를 수 있다는 장인의 거짓말에 속아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 어수룩하면서도 순박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 08 [A]는 작품 제목인 '봄·봄'과 관련된 계절인 봄을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 봄은 남녀의 연정을 불러일으키는 계절로 사건 전개의 계절적 배경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계절적 배경이 '나'와 장인의 갈등을 일으키는 직접적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09 이 글은 서술자인 '나'의 시각과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러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오답 해설 ① 구장님을 찾아간 시기는 과거이므로,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서술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주제를 암시하는 상징적 소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구장을 찾아간 사건이 제시되고 있을 뿐, '나'와 '장인'과 관련된 여러 개의 삽화를 나열하지는 않고 있다. ④ 과거에서 현재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지만, 이러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10 ㉔은 “빙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그림 어떻게 엘 낳지유?”에서 빙모님을 참새에 빗댄 과장적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㉔은 정상적인 사위와 장인의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서로를 치고 때리는 유치한 행동을 통해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1 ‘나’는 구장이 장인의 눈치를 보고 ‘나’의 무지를 이용해 협박하고 있다는 음모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해학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구장은 처음에 ‘나’의 주장에 동조하다가 장인의 꾀속말을 들은 후 태도를 바꾸어 ‘나’를 회유하고 있다. 따라서 장인과 구장은 ‘나’를 해학적 상황에 빠뜨리는 공모자라 할 수 있다. ②, ⑤ ‘나’는 구장이 ‘나’가 정역실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나’를 설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구장이 ‘나’를 편들어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처한 해학적 상황을 알지 못하고 사실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똥태는 구장이 장인에게 똥 두 마지기를 얻어 부치기 때문에 장인 편을 든 것이라고 옳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똥태는 우월한 정보를 가진 독자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2 구장은 소작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마름인 장인 편을 들어 ‘나’를 설득하고 있다. 즉, 구장은 ‘나’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나’를 달래고 있을 뿐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남의 농사를 버려 주면 손해죄로 징역을 간다거나 점순이 성년이 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다는 등 법을 근거로 하여 설득하고 있다. ②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돌아난다든가 ~ 남의 농사를 버려 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자네 말두 하기가 옳지. 암, 나이 찻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길에는 ~ 군소리 말구 어서 가…….”를 통해 알 수 있다.

13 장인은 성례를 명목으로 ‘나’를 머슴처럼 부려 먹는 교활한 인물이다. 결말 부분에서 ‘나’에게 약을 발라 준 것은 ‘나’를 계속 부려 먹기 위한 회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장인이 자상하고 인정이 많은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올가을에 성례를 시켜 준다는 장인의 말을 또 믿으면서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가고 있다. 이는 여전히 교활한 장인의 속셈을 모른다는 점에서 어수룩한 ‘나’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나’와 장인은 서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싸우고 있는데,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웃음을 유발한다. ④ 점순이는 구장님한테 갔다 아무 소득 없이 온 ‘나’를 질책하고, ‘나’가 “안 된다는 걸 그림 어떡건담!”이라 말하자 “섬을 잡아채지 그냥 뒤, 이 바보애!”라며 충동질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점순이는 소극적인 ‘나’와 달리 적극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⑤ 점순이는 ‘나’에게 “섬을 잡아채지 그냥 뒤, 이 바보애!”라고 장인과의 싸움을 부추기지만 막상 ‘나’와 장인의 싸움에서는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점순이는 장인과의 싸움을 부추겼지만 정작 싸움이 일어나자 장인의 편을 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4 ‘나’와 장인이 싸우던 중 장인이 점순이를 부르자 장모님과 점순이는 장인의 편에 서서 ‘나’를 혼내 주고, ‘나’는 이에 기운이 꺾이어 얼빠진 모습을 한다. 따라서 ⑤의 상황에서 장모님과 점순이는 장인 편을 들어 ‘나’를 혼내 줄 뿐 나중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성례에 소극적인 ‘나’의 태도를 점순이가 질책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나’가 장인에게 성례를 재촉함으로써 ‘나’와 장인의 갈등이 심화된다. ③ ⑥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인의 욕심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점순이의 충동질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④ ‘나’와 장인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또다시 반복될 것임을 알 수 있다.

15 ‘나’가 장인과 구장네 집에 갔지만 아무 결론 없이 돌아온 사건은 어제의 일이고, 장인이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며 올가을에는 성례를 시켜 주겠다고 달래는 사건은 ‘나’와 장인의 싸움이 끝난 뒤의 결말에 해당한다. 그리고 오늘 점순이가 ‘나’를 충동질하여 ‘나’와 장인이 싸우게 되고, 싸우는 와중에 점순이가 ‘나’의 귀를 잡아당기는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㉔ - ㉔ - ㉔ - ㉔ - ㉔이 된다.

심화 독해 문제		본문 032-037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⑤
05 ②	06 ⑤	07 ④	08 ⑤
09 ⑤	10 ①	11 ⑤	12 ①
13 ⑤	14 ⑤	15 ③	

01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판단력이 부족하고 어수룩한 사람으로, 객관적인 서술자라 보기 어렵다. 이 글은 신빙성 없는 서술자인 ‘나’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우직하고 순진한 ‘나’를 서술자로 내세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나’가 자신의 이야기나 생각을 직접 드러내는 만큼, 독자는 서술자인 ‘나’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②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자신이 겪은 사건의 전달과 함께 그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언젠가’, ‘어저께’를 통해 현재에서 과거로 사건이 전개됨을 알 수 있으므로, 역순행적인 구성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구어체를 사용하여 현재의 시점으로 ‘나’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

02 ‘뒤통고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마’가 계약 내용으로, 이에 대해 ‘나’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부당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② 마름인 장인이 마을에서 인심을 잃은 것은 마름으로서 횡포를 부렸기 때문이지 ‘나’와의 성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은 아니다. ③ ‘나’는 성례를 치르지 않고 일만 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점순이에게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지는 않고 있다. ④ ‘나’가 점순이와의 성례를 치르고 싶어 함을 알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점순이가 ‘나’와의 성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알 수 없다. ⑤ ‘나’는 점순이의 키가 크지 않아 성례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점순이의 키가 다 자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점순이와의 성례를 진행하려 마음먹었다고는 할 수 없다.

03 장인의 모습이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다고 표현한 것은 장인이 못된 마름의 전형적인 외양을 갖추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인의 모습이 산골 농민의 개성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성례를 치르기 위해 돈 한 톨 안 받고 삼 년 칠 개월을 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직하고 순박한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③ 장인은 작인이 닭을 보내지 않거나 품을 팔아 주지 않으면 작인의 땅을 빼앗는데, 이는 마름의 지위를 이용한 장인의 횡포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이놈의 장인님’은 ‘이놈’이라는 비속어와 ‘님’이라는 높임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⑤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자라면 성례를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나’를 머슴처럼 부려 먹고 점순이의 키가 다 자라지 못했다는 핑계로 성례를 올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나’는 성례를 빌미로 장인의 집에서 일을 하는 정략적 약혼의 희생물이라 할 수 있다.

04 장인이 ‘나’를 때린 뒤 겸연쩍어서 쓴침만 삼키고 있는 것은, ‘나’가 일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이다. 장인이 소심한 성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의 농사일을 위해 성례를 빌미로 ‘나’를 머슴처럼 부려 먹고 있으므로 장인은 교활하면서 욕심이 많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②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바릇이 아주 못됐다.’를 통해, 장인의 성질이 사납고 폭력적임을 알 수 있다. ③ 장인이 동리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욕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장인은 마음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작인의 땅을 빼앗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 05** 점순이는 ‘나’에게 “밤낮 일만 하다 말 탕가!”라며 쫓알거리고,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라고 하면서 성례를 채촉하라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점순이는 ‘나’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충돌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점순이가 ‘나’의 처지에 공감하거나 위로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장인의 진짜 속셈은 성례를 핑계로 ‘나’를 머슴처럼 부려 먹는 것인데, 점순이가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④ 장인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나’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는 않다. ⑤ 점순이의 말로 인해 ‘나’와 장인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 06** ㉔은 점순이가 겉으로 보이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제법 성숙해진 듯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나’가 장인의 속셈을 알아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㉔은 “올 길에 버 잘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라는 장인의 말에 대한 ‘나’의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가을에 성례를 올릴 수 있다는 ‘나’의 기쁜 마음이 담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② ‘나’는 몸이 되자 이유를 알 수 없이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의 몸의 변화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겨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나’는 “이 망할 자식의 소”라고 하면서 “대리를 꺾어 들라.”며 ‘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소’는 장인의 ‘소’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장인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이건 우아래가 몽푃한 것이 내 눈에는 험없이 감참외 같다.’에서 ‘나’는 점순이를 감참외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㉔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점순이에 대한 ‘나’의 애정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07** ‘말’에서 ‘나’는 점순이의 키를 보고 생긴 울화를 소에게 풀고 있다. 점순이는 ‘나’의 화물이 대상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작년 이맘때’는 장인으로 인해 ‘나’가 며칠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적이 있던 기간이다. 따라서 ‘작년 이맘때’는 장인이 현재 ‘나’를 때리고 ‘나’가 일을 안 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과 비슷한 경향이 할 수 있다. ② 장가를 들어 주겠다는 장인의 화유에 넘어간 ‘나’는 ‘논’에서 이틀 걸릴 일을 하루에 해치우는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③ ‘화전밭’에서 ‘나’는 생동하는 봄 풍경 때문에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울렁거려 노래를 하는 등 분위기에 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이날’은 ‘나’가 점순이도 자신과 성례를 빨리 올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다.

- 08**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묘사하고 분석,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태도, 내면세계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오답 해설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에 대해 분석,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서술자의 신뢰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보다 ‘나’의 상황을 주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중심인물의 내면세계를 더 잘 드러낸다고는 할 수 없다. ③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의 눈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므로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독자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중심인물의 내면 심리를 파악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09** ‘나는 건으로 ‘엥, 엥.’ 하며 콧등으로 들었다.’, ‘나는 몽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끝이듣지 않았다.’를 통해, ‘나’가 몽태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구 일상 말조짐을 받아 오면서 난 그것두 자꾸 잊는다.’를 통해, 장인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구장은 ‘나’의 말을 듣고 성례를 시켜 주라고 했다가 장인이 섣달날로 눈을 부라리며 말하자 장인의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구장은 장인의 눈치를 보며 입장을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서울엘 좀 갔다 오드니 사람은 점잔해야 한다구 ~ 그걸 애행하고 늘 쓰담는 손바릇이 있다.’와 ‘길게 길러 둔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는 구장의 행동을 통해, 구장은 점잔은 듯 행세하지만 품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임마, 봉필일 모판에다 거꾸루 박아 놓지 뭘 어떡해?’라는 몽태의 말을 통해, 몽태는 ‘나’에게 장인과 싸우라고 부추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이 글에서는 구장의 태도, ‘나’와 장인의 유치한 싸움, 장모님을 참새에 빗대는 표현, 비속어 등을 활용한 해학적 표현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암행어사 출두에 수령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 모두 해학적인 표현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계절감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는 구장의 화유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보기>에서는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 ‘나’의 불만은 개인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회 현실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노골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기>에서는 지배층인 수령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희화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지배층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노골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민중의 삶에 대한 사실적 묘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Plus <보기> 춘향전_작자 미상

갈래	판소리계 소설
성격	해학적, 풍자적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해제	조선 후기 신분 차이를 극복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인간 해방과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항거를 다룸.

- 11** 구장은 장인의 눈치를 보면서 장인 편을 들고 있고, ‘나’는 구장의 말을 듣고 다시 논으로 와서 논에 모를 붓고 있다. 이렇게 볼 때 ㉔에 장인에 대한 구장의 부정적인 시선이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몽태는 장인에 대해 반감을 지니고 있으므로, ㉔에는 장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담겨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가 구장의 말을 듣고 다시 논으로 와서 모를 붓고 있는 것을 볼 때, ㉔에는 ‘나’를 설득하는 구장의 말이 제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구장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장인의 눈치를 보고 장인 편을 든다는 점에서 ‘나’가 원하는 방향, 즉 성례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답을 주지는 않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③, ④ ‘그 즐거리는 이렇다…….’를 통해 ㉔에는 몽태가 한 말을 ‘나’가 요약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은 ‘나’의 주관적인 시선이 아닌 몽태의 시선에서 바라본, 보다 객관적인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볼 수 있다.

- 12** 이 글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공간적 배경을 의도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나’와 장인 간의 갈등을, 대화와 행동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③ ‘일터로 갔다.’라는 결말의 뒤에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라는 절정 부분의 사건이 연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사건의 순서를 바꾸어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 자식, 이놈’ 등의 비속어와, 사위인 ‘나’와 장인의 싸움이라는 인물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⑤ ‘안 하지유,’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유.’ 등의 사투리와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등을 두꺼덕 졸 사람이 누구냐.’ 등의 구어적 표현을 통해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13 ⑤는 겉으로는 위하여 주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해하고 헐뜯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의 속담이다. 그러나 점순이는 겉으로 위하여는 체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⑤는 '나'의 심정을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 주며 감싸주기 쉬움을 이르는 말이다. ② 자기 혹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더 쏠리거나 유리하게 일을 처리함은 인자상정이라는 말이다. ③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이르는 말이다. '나'가 장인과 싸운 이유는 점순이의 충동질 때문이다. 그런데 점순이가 '나'를 도와주려는 커녕 오히려 장인의 편을 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란 매우 힘들음을 이르는 말이다.

- 14 점순이가 장인을 혼내 주라고 한 것은 성례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당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점순이를 부정적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부려만 먹구 왜 성례 안 하지유!"라는 말에서 '나'가 장인에게 부당하게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번번이 장인의 말에 속아 순진하게 일만 하는 '나'는 독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인물이다. ② 사위가 될 '나'와 장인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싸우는 것은 희극적인 상황으로, 두 인물을 희화화한 것이다. ③ 장인이 '나'에게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성례를 미루는 것은 부정한 방식으로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장인에게 심하게 당하고도 한마디 말에 풀어드리는 '나'는 순박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15 이 글에서는 '나'의 기대를 벗어난 점순이의 행동으로 인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끝나고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점순이가 '나'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장인이 태도를 바꾸어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주요 인물의 태도가 바뀌어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인물의 말로 결말을 처리하고 있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공간적 배경은 점순네 마당이다. ④ <보기>에 주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소재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⑤ <보기>에 등장인물이 추가되어 있지는 않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38~039쪽

- 01 신빙성 없는 서술자인 '나'의 어수룩한 모습으로 인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독자들이 '나'에게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 02 '나'의 마음에 사람이 썩고 있음을 드러낸다. 03 점순이와 몽태는 '나'를 충동질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점순이는 '나'에게 혼례를 충동질한다는 점에서, 몽태는 '나'에게 장인과 싸울 것을 충동질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04 (마)는 결말을 절정 부분에 삽입한 역순행적 구성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성상 특징은 '나'와 장인의 대결이 강조되어 긴장감과 해학성을 높이고 여운을 남기는 효과가 있다.
- 01 <보기>에서는 서술자인 '나'가 어리숙하고 무지하여 신빙성 없는 서술자임을 밝히고 있다. '나'는 사건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독자와 달리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또한 한편으로 독자들은 어리숙하여 장인에게 당하기만 하는 '나'에게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 02 (나)에서 '나'는 봄날에 화전에서 발을 갈다가 몸이 나른하고 가

슴이 울렁울렁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봄'이라는 배경이 '나'로 하여금 사람의 감정을 불려일으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03 (다)에서 점순이는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라고 하는데, 이는 '나'에게 혼례를 시켜 달라고 장인을 재촉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라)에서 몽태는 '나'에게 맞고도 가만히 있냐고 하면서 장인을 모퉁에 거꾸로 박아 놓으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몽태는 '나'로 하여금 장인과 싸울 것을 충동질한다고 볼 수 있다.

- 04 (마)의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때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 이렇게 땀을 하며 불라살아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는 결말 부분으로, 장인이 '나'를 계속 부려 먹기 위해 회유하자 '나'가 장인을 믿고 다시 농사일을 나가는 어수룩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결말을 절정 부분에 삽입함으로써 인물 간의 갈등 해소 과정보다는 '나'와 장인의 우스꽝스러운 싸움을 극대화시켜 해학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절정 부분이 작품의 끝에 제시되어 마무리됨으로써 '나'와 장인의 대결을 강조하면서 긴장감과 해학성을 높이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40~04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3 서술자인 '나'의 과거 회상에 의해 현재에서 과거로 사건이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 07 점순이는 당돌하고 적극적인 인물로, 삼 년 넘게 일만 하면서 성례 문제에 소극적인 '나'를 답답해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점순이가 갈등하게 되는 것은 성례에 대한 '나'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10 장인은 손버릇이 아주 못되고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잘하며, 마름으로서 소작인에게 횡포를 부려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었다. 하지만 '나'를 점순이와 성례를 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은 것은 아니다.
- 13 '나'가 장인을 이끌고 구장에게로 간 것은 성례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서이다. 구장이 '나'와 장인의 싸움을 중재해 준다고 한 것은 아니다.
- 15 몽태는 땅을 얻어 부치다가 땅이 떨어진 뒤로 장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몽태 자신이 데릴사위로 들어가지 못해 장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0 점순이는 '나'와 장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장모와 함께 장인 편에 서서 '나'의 귀를 잡아당긴다.

(3) 극 갈래의 이해_기적

기술 실전 문제

본문 044~049쪽

- 01 ④ 02 ⑤ 03 ③ 04 ② 05 ② 06 ① 07 ④ 08 ②
09 ③ 10 ③ 11 ⑤ 12 ① 13 ② 14 ③ 15 ⑤ 16 ⑤
17 ⑤ 18 ②

- 01 '저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 살고 있는 정준경이라고 하니더.'를 통해 배경이 되는 실제 지명이 드러난다. 또한 '하니더', '안 입었게', '얼어 죽는대이' 등을 통해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지명을 제시하고 토속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사실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S# 13에서 열차를 보는 태운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지는 않는다. ② '새벽'에서부터 '낮'까지의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는 드러나지 않다. ③ 인물이 혼잣말을 하는 독백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⑤ '집, 철길, 역 대합실' 등 다양한 일상적 공간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준경이 집에서 학교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을 뿐, 사건이 발생한 사회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02 태운이 준경과 달리 보경에게 무뎠던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준경의 편지 내용인 '우리 마을에는 길이 없네 ~ 분천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네.'나, 준경이 학교에 가기 위해 철길을 걷고 열차를 타고, 다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을 볼 때, 준경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잠시 후, 큰 소리를 내며 ~ 손을 꼭 틀어쥐고 철교를 건너는 준경'을 통해, 준경이 철교를 건널 때 무척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준경은 새벽에 집을 나와 낮에 학교에 도착하고 있으며, 학교에 다니는데 두 시간 넘게 걸린다고 하였으므로 준경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림을 알 수 있다. ④ 보경은 준경이 학교에 가려 하자 내복을 들고 나와 준경에게 주지만, 준경은 이를 입지 않고 그냥 집을 나서고 있다. 그러자 보경은 "니 그까다 얼어 죽는대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내복을 입지 않은 준경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03 S# 5를 통해 주인공인 준경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가족과 관련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대통령님 보시소. 저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 살고 있는 정준경이라고 하니더.'를 통해, 편지를 쓴 주체인 준경이 살고 있는 곳과 이름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드러내고 있다. ② '별자리 지도를 아이 솜씨로 뽀뽀뽀 하지만 정확하게 그려 놓은 것'을 통해 '별자리 지도'가 준경이 어렸을 때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별자리 지도'에 '엄마 별'이라 쓰인 제일 큰 별이 있는 것을 통해 준경이 어릴 때부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④ '준경(V.O.)의 V.O.'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의 목소리나 소리를 나타내는 시나리오 용어이므로, 이를 통해 주인공의 목소리가 화면 안이 아닌 화면 밖에서 들리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책상에서 글씨 쓰는 소리를 따라가 보던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 큰 손이 편지를 쓰고 있다.'를 통해, 편지를 쓰는 일이 주인공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 04 ⑤은 준경이 쓴 것으로, 편지 내용인 '우리 마을에도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 주시이소.'를 통해 준경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이 편지는 대통령님한테 보내는 오십네 번째 편지니더.'를 통해 준경이 마을에 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오래 전부터 써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반드시 역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⑤은 준경의 간절한 마음과 의지적 태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⑤을 통해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을 알 수 있을 뿐, ⑥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역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위험하게 다

나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이라 할 수 있으나, 준경이 ⑤을 통해 이를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편지는 대통령님한테 보내는 오십네 번째 편지니더.'를 통해 준경이 어릴 때부터 꾸준히 ⑤을 써 왔음을 알 수 있으나, ⑤에 준경의 과거 내력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준경이 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 05 <보기>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화생이 이어짐에도 기차역이 없는 현실과, 이러한 현실에 맞서 기차역을 세우려는 준경과 사회와의 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준경은 마을에 역을 세우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준경과 사회와의 갈등을 통해 작가는 역을 세우기 위한 준경의 노력을 드러내려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6 ③는 준경이 살고 있는 집을 묘사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준경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② ⑥는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시간 씩 산길을 건너나 기차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⑥는 마을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힘들음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준경은 열차가 지나가자 긴장한 표정으로 보경의 손을 꼭 틀어쥐고 있으므로 열차에 대해 두려움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⑥는 철길을 건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죽었음을 드러낸 말이다. 이를 통해 준경은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철길에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차역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⑥를 통해 준경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간이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07 박 기사는 태운이 양원역에 기차를 세우지 않은 것에 사람들이 전화해서 난리 쳤음을 알려 주고 있지만 태운을 나무라지는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태운은 열차를 세우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전화해서 난리 쳤다는 박 기사의 말에 "규정대로 하는 거지."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태운이 열차를 세우지 않은 것은 규정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S# 89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기차가 양원역에 서기를 기대하면서 들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박 기사의 "사람들 전화해서 난리 치드라. 니 안 세웠다고."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태운이 기차를 세우지 않자 전화로 항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준경은 양원역에 기차가 서지 않은 뒤 '결심한 듯 들고 있던 수첩표를 바람에 날리려고 하면서, 보경에게 "인자 그마할란다."라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준경이 양원역에 기차가 서지 않자 의욕을 잃어버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8 ⑥는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중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⑥에서는 양원역을 지나쳐 가는 태운의 모습과 이러한 태운을 지켜 보는 준경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⑥ 뒤의 '화가 난 듯한'이라는 부분을 통해 준경이 태운에게 화가 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준경의 감정이 ⑥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⑥에서는 공간적 배경인 양원역의 모습과 기차가 양원역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드러내 주고 있다. ③ ⑥는 양원역에 기차를 세우지 못한 것은 자신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박 기사로 대사로, 이에 태운이 양원역에 기차를 세우지 않은 것에 동의한다는 박 기사의 생각이 담겨 있다. ④ ⑥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준경의 체념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⑤ ⑥는 준경의 모습을 드러낸 지시문으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통해 준경의 감정이 격해졌음을 보여 준다.

- 09 양원역은 준경과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역으로, '문도 없이 벽으로 입구가 가려진 화장실'이 있는 허름한 곳이다. 따라서 설치 담당자에게 최신식 시설을 갖춘 양원 역사를 철길 옆에 설치해 달라는 연출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양원역에는 '축 개통'이라고 손으로 쓴 플래카드', '철구 삼촌은 카

메라를 들고 있다.’ ‘그늘에 앉아 잡지책을 뒤적이던 박 기사’를 통해, 소품 담당자에게 ‘플래카드’, ‘카메라’, ‘잡지’를 준비해 달라는 주문 사항은 적절하다. ② 이 글을 영화로 연출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에 쓰여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하므로, 의상 담당자에게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잘 드러나도록 의상을 구입해 달라는 주문 사항은 적절하다. 이 글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당시의 분위기가 드러나는 의상을 준비해야 현실감을 줄 수 있다. ④ 태운은 양원역을 통과하면서도 자신의 아들인 준경을 쳐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있으므로, 태운 역을 담당하는 연기자에게 무뚝뚝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달라는 주문 사항은 적절하다. ⑤ 양원역으로 들어오는 기차가 ‘뿌우’ 하며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으므로, 음향 담당자에게 기차가 역에 들어올 때 열차 기적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해 달라는 주문 사항은 적절하다.

- 10 ㉠: 준경의 ‘내 농다가 엄마가 죽고 누나도 내 땀에 그래 댔어도’라는 말을 통해, 준경은 엄마와 누나가 죽은 것이 자기 탓이라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경은 “엄마랑 내가 잘못된 건데 왜 자꾸 니 잘못이라 하는데?”라고 하면서 준경의 잘못 때문에 엄마와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보경은 자책하는 준경에 대해 위로의 말을 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준경이 양원역에 기차가 서지 않은 후에 상실감으로 “인자 그마할란다.”라고 말하자, 보경은 “도망치는 거라?”, “바보가? 역도 다 맨들고 기차만 서면 되는데, 그만두겠다고?”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준경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단호하게 꾸짖는 보경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준경도 보경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 손을 잡고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본다.’를 통해, 보경도 준경과 마찬가지로 기차가 역에 들어올 때 설레는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 11 준경의 말을 통해 준경은 보경이 죽은 뒤 양원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마침내 양원역을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경의 죽음을 막기 위한 준경의 절박한 심정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 양원역은 준경과 마을 사람들이 노력하여 만든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② 준경의 말을 통해, 준경은 양원역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용서도 받으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원역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준경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③ [중략 부분 줄거리]의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역이지만’을 통해 양원역은 공식적으로는 기차가 설 수 없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④ 마을 사람들은 양원역 앞에서 열을 맞춰 기차를 바라보고 있고, 철구 심춘은 기차가 멈추면 사진을 찍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양원역은 기차가 서기를 바라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12 [A]에서 준경은 양원역을 만든 이유가 아버지한테 칭찬도 받고 용서도 받고 싶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A]에서 준경은 자신이 한 행위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A]에서 준경은 자신을 한 번도 봐 주지 않는 태운의 행동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태운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지는 않고 있다. ③ 준경은 자신이 양원역을 만든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는 있지만, 자신이 한 행위가 타당함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④, ⑤ [A]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거나 타인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13 현재에서 과거(회상)로 사건을 전개하여 보경이 태운이 몬 기차를 피하려다 사고로 죽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따라서 역순행적 방식을 사용하여 과거 사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실감과 현장감을 주고 있지만, 비속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③ 이 글 전체에서 준경이 죽은 보경과 대화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어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보경이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제시된 부분에서는 죽은 보경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비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준경과 태운이 갈등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이 둘 사이를 대립적인 관계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마을에 기차역이 없는 부정적 현실이 나타나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인물의 요약적 전술을 통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14 준경은 그동안 숨겨 왔던 태운의 말을 듣고 “차라리 빨리 말해서 내가 아버지라도 원망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 아이라!”라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준경이 태운을 원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태운은 보경이 죽은 뒤 준경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준경은 보경이 죽은 것이 자신의 탓이라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보경이 죽게 됨으로써 준경과 태운의 갈등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준경과 태운이 보경의 죽음에 대해 서로 오해함으로써 그동안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태운은 준경에게 보경의 죽음과 자신이 관련 있음을 말하면서, 그동안 준경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준경은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앞으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태운을 미워할 마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태운이 그동안 숨겨 왔던 사실을 말하게 되면서 준경과 태운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들은 준경이 자신과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 둘 사이의 갈등이 온전히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5 박 기사는 태운에게 화물 열차 운행을 자신이 한 것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준경이 받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보경을 죽게 한 열차가 태운이 운행한 것임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박 기사는 보경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준경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화물 열차를 운행한 것이 태운임을 준경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태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운행은 내가 한 거다.”라는 박 기사의 말을 통해, 태운이 온전한 사실을 감추려 함을 알 수 있다. ② 박 기사는 태운에게 보경이 사고가 난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박 기사가 정면 밖에서 일어난 보경의 사건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박 기사는 보경의 사고로 제정신이 아닌 태운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다. ④ “열차 피하다 그랬단다. 37호 화물!”과 이 말을 들은 태운이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을 통해, 박 기사는 태운이 몰던 화물 열차가 보경의 사고와 관련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6 태운은 준경이 당연히 자신을 원망할 거라 생각했음을 밝히면서, 준경이 스스로를 탓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태운이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은 준경이 자신을 원망했기 때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는 준경,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나니 그렇게 앉아만 있는 준경’을 통해, 준경이 그동안 숨겨 온 태운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② 태운은 과거에 자신이 준경을 멀리한 이유가 준경을 너무나 사랑하여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태운이 과거 자신이 보인 행동의 이유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준경은 태운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준경이 태운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먹먹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태운의 “니 집을 덜어 주고 싶었다.” “니를 더 이상 미워하지 말란 말을 꼭 해 주고 싶었다.”를 통해, 태운이 숨겨 온 사실을 말한 것은 준경의 집을 덜어 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 17 태운이 철교 위의 대피 장소로 피한 사람들 옆을 지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으므로, 태운이 대피 장소를 지날 때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A]는 태운과 박 기사의 대화 사

이에 삽입되어 보경의 사고를 드러내기 위해 제시된 것이므로, 태운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음을 부각하기 위해서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A]는 보경이 기차를 피하려다 다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장면을 삽입한 것으로, 관객은 이를 통해 보경이 죽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② [A]에서는 보경이 들고 있는 트로피를 강조해서 보여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경의 사고가 준경의 트로피를 떨어트리지 않으려다 발생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S# 116을 통해 [A]에서 보경이 들고 있는 트로피는 준경이 1등을 해서 상으로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에서는 이러한 트로피를 강조해서 보여 주고 있으므로, 보경이 죽은 사건이 준경이 상을 탄 날 발생하였음을 강조해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A]는 보경의 사고에 대한 태운과 박 기사의 대화 사이에 삽입된 것이므로, 인물의 대화 사이에 삽입하여 사건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18**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이 부신 태운이 눈을 감았다가 뜨는 행동은 열차와 관련된 사고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태운은 철교 위의 사람들을 보고 최대한 속도를 낮춰 운전하고 있으므로, ⑤가 태운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암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③에서 ‘평생의 한은 준경이 상 받은 날 자신이 가지 못하여 결국 보경이 죽게 된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③은 보경의 사고에 대한 태운의 자책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태운이 집으로 가기 위해 서두르면서 ‘통닭 봉투’를 챙기고 있는데, ‘통닭’이 보경과 준경에게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③을 통해 보경과 준경에 대한 태운의 애정을 엿볼 수 있다. ④ ‘안색이 좋지 않’은 박 기사의 모습을 통해, 표정으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⑥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던 준경이 한 말이므로, ⑥에는 태운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준경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심화 복습 문제		본문 050~055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⑤	05 ②	06 ⑤	07 ③	08 ①	09 ①	10 ⑤	11 ④	12 ②	13 ④	14 ①	15 ③	16 ⑤	17 ②	

- 01** ③: S# 12에서 준경은 열차가 지나가자 긴장한 표정으로 보경의 손을 꼭 잡고 있으므로, 준경은 열차에 대해 공포심과 두려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준경은 마을에 간이역을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에게 ‘오십네 번’이나 편지를 쓰고 있으므로, 준경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⑤: S# 13에서 준경은 ‘말은 계속 통명스럽게 툭툭거리면서 보경을 무척 챙기고’ 있으므로, 준경은 걸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누나인 보경을 챙겨 주는 따뜻한 속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⑥: 준경은 기관사인 아버지 태운을 보지도 않고 객차에 오르고 있으므로 태운과 갈등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이러한 태운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준경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 02** ‘기차역이 읍으이 마을에서 나갈라그면 몇 시간씩 산길을 걷든가, 아니든 기차길을 걸어서 승부역이나 분천역으로 가는 수밖 에 읍니다.’를 통해, 마을에서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산길을 걷든가 기차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경이 아버지인 태운에게 인사하는 것과 달리, 준경은 태운을 모른 채하며 객차로 향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준경과 태운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제가 학교 댕기는 데 이래 두 시간 넘게 걸린다고 이러는

거 아이시다.’를 통해, 준경이 두 시간이 넘게 걸려 학교에 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준경이 사는 마을은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고등학생이 된 준경이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로 가는 과정을 ‘준경의 집 - 철길 - 철교 - 승부역 - 도로 - 교문’의 순서로 여러 장면에 걸쳐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이동과 함께 준경의 편지 내용을 들려 주고 있으므로, 마을에 기차역이 필요하다는 준경의 편지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마을 사람들의 희생이 이어지는데도 마을에 기차역 하나 없는 현실과, 그러한 현실에 맞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준경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준경과 사회와의 갈등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 03** S# 13에서 준경이 걸으로는 무뚝뚝해도 보경을 위해 따뜻한 물을 주고 있으므로 보경을 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 16에서 준경은 보경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도로 위를 힘차게 달리고 있다. 이를 볼 때 S# 13에서 S# 16으로 전개됨에 따라 준경과 보경의 관계가 변화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S# 5의 해설의 ‘책상에서 글씨 쓰는 소리를 따라가 보면 더 이상 어린애기가 아닌 큰 손이 편지를 쓰고 있다.’를 통해 준경이 편지를 쓰는 행위가 어릴 때부터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② S# 10에서 기차역이 없어 기차길을 걸어야 한다는 준경의 대사는 S# 12에서 준경이 철길을 걸어가는 행동이 나타난 이유라 할 수 있다. ④ S# 6~S# 17에서는 ‘집 - 철길 - 철교 - 승부역 - 도로 - 고등학교’ 순으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으므로, S# 6~S# 17에서는 준경이 집에서 학교에 가기까지의 공간적인 이동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S# 5에서 음악과 메인 크레디트가 시작되고 S# 17에서 음악과 메인 크레디트가 끝나고 있으므로, S# 17에서 음악과 메인 크레디트가 끝나는 것은 본격적으로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04** 준경과 보경은 열차를 기다리다 비둘기호 열차가 들어오자 서둘러 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열차가 늦게 도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보경이 열차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별자리 지도를 아이 솜씨로 뽀뽀뽀하지만 정확하게 그려 놓은 것’을 통해 ①이 준경이 어렸을 때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①에 ‘엄마 별’이라 쓰인 제일 큰 별이 있는 것을 통해 준경이 어릴 때부터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아왔음을 보여 준다. ② 보경은 새벽에 집을 나서서 준경을 위해 주물까 바 ④을 들고 나와 입으라 하고 있으므로, ④은 준경에 대한 보경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소재라 할 수 있다. ③ 준경은 자신이 쓴 편지가 오십네 번째 편지임을 밝히고 있는데, 편지의 주된 내용이 마을에 간이역을 세워 달라 요구하는 것이므로 ③은 준경이 마을에 간이역을 세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준경은 ⑥이 지나가자 긴장한 표정으로 보경의 손을 꼭 틀어쥐고 있고, 이런 준경에 대해 보경은 “아직도 무섭나?”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준경의 목소리를 통해 화를 열차가 시도 때도 없이 다녀 터널이랑 다리에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⑥은 준경이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05** ‘오십네 번째 편지니더.’는 준경이 마을에 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대통령에게 꾸준히 편지를 써 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준경의 의지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지만, 인물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S# 5~S# 12에서는 준경이 화면에 직접 드러나 있고, ‘V.O.’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③ <보기>를 통해 ‘V.O.’는 주로 내용 전개 과정에서 관객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전달하여 이해를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준경의 목소리인 ‘V.O.’는 준경이 쓴 편지 내용을 관객에게 들려주어 관객이 준경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④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는 준경이 사는 마을의 위치를, 그리고 ‘정준경’은 편지를 쓰는 인물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관객에게 준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준경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은 간이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므로, ‘우리 마을에도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 주이소.’는 준경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의도를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 06** 기차역이 없어 다른 마을로 가려면 위험한 기차길을 걸어 나가

야만 하는 산골 마을이라는 공간적 배경으로 인해, 준경이 마을에 기차역을 만들고자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적 배경은 준경이 마을에 기차역을 만들고자 하는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경과 준경이 갈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② 태운이 열차를 보는 기편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준경이 마을을 떠나고자 하는지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없다. ④ 기차역이 없어 위험한 기차길을 걸어 다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공간적 배경이 그러한 마을 사람들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 07** 태운은 “열차가 없어서 제때 ~ 왜 준경이 탭인니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보경이 죽은 것은 열차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태운이 자기 때문에 아내와 보경이 죽었다고 밝히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마을 사람들은 열차가 속도를 늦추며 승강장으로 접근하자 더욱더 흥분하고 있으므로, 양원역에 열차가 설치 모른다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감이 열차가 속도를 늦추자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② 태운은 잡지를 보고 홍보과장에게 화를 내면서, “지 땀에 얼마랑 누나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지 당신들은 관심이나 있니까?”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태운이 잡지를 보고 홍보과장에게 화를 낸 것은 준경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④ 준경은 열차가 양원역에 서지 않은 뒤 “인자 그마할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열차가 서지 않은 것에 대한 준경의 상실감이 매우 컸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준경은 엄마와 보경이 죽은 것이 자기 때문이라 자책하고 있다. 이런 준경에 대해 보경은 “엄마랑 내가 잘못된 건데 왜 자꾸 니 잘못이라 하는데?”라고 하면서 준경의 잘못 때문에 엄마와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며 준경을 위로해 주고 있다.

- 08** 태운은 기차를 세우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난리 쳤다는 박 기사의 말을 듣고 “규정대로 하는 거지.”라 말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태운은 규정에 따라 자신의 할 일을 하는 원칙주의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태운이 양원역을 지나칠 때 준경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통해 태운이 준경을 외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만으로 태운이 부정이 없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태운의 모습은 그의 무뚝뚝한 면모를 짐작하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태운은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양원역에 기차를 세우지 않고 있으므로 마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한다고 할 수 없다. ④ 태운은 잡지에 실린 준경의 글을 보고 홍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고 있으나 잡지의 내용 때문에 화를 낸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준경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잡지에 실린 내용을 말했다는 홍보과장의 말을 듣고 태운은 당황하여 말문이 막히고 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드러내지 못해 말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홍보과장의 말을 듣고 당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09** 태운은 ㉠을 보고 난 뒤 화가 나서 홍보과장에게 전화를 건다. 이에 홍보과장은 태운에게 ‘준경 학생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가 죽었다는 내용은 저희가 만들어 낸 얘기’가 아니라 ‘준경 학생이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들은 태운은 당황하여 말문이 막히고 있다. 따라서 ㉠은 태운이 이전에 몰랐던 사실, 즉 준경의 속마음을 알게 해 주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을 통해 태운이 준경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으로 인해 태운이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어떤 인물에게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⑤ ㉠으로 인해 홍보과장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태운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 10** 엄마와 보경의 죽음이 준경 때문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준경이

잡지사에 직접 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태운은, 기사 내용을 잡지사에서 만들어 낸 이야기라고 오해하고 있다. 따라서 ㉠의 내용은 엄마와 보경의 죽음이 준경 때문이라는 기사를 잡지사에서 만들어 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태운이 준경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기사를 냈다고 오해한 것은 아니다. ② 준경이 직접 말한 내용으로 준경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실은 것은 아니다. ③ 태운이 준경의 상처가 자신 때문이라고 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④ 태운과 준경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다고 태운이 오해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1** [A]의 내용을 볼 때 준경은 자신 때문에 엄마와 누나가 죽어서 아버지가 자신을 한 번도 봐 주지 않았을 거라 말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봐 주지 않는 것이 무서워 피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준경이 태운을 미워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준경이 아버지를 단 한 순간도 미워한 적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태운에 대한 준경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목소리가 떨린다.’는 지시문과 말줄임표를 통해 준경이 감정에 북받쳐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었다. ~ 내 혼자 그래 생각했다.”를 통해, 준경이 양원역을 만들려 했던 이유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준경은 양원역을 만들면 아버지가 자신을 칭찬해 줄 것이라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준경이 아버지인 태운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 12** <보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 준경이 양원역을 만든 것은 위험천만한 기차길을 건지 않고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준경의 말을 통해 준경이 양원역을 만든 것은 아버지인 태운에게 칭찬을 받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준경이 양원역을 만든 본질적인 의도는, 위험천만한 기차길을 건지 않으려는 마을 사람들과 달리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 양원역은 준경과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곳임을 알 수 있다. ③ 태운의 말을 통해 보경은 이미 죽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죽은 보경이 준경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 글이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태운은 기차역에서 준경을 외면하고 있고, 준경의 말을 통해 준경의 얼굴을 한 번도 봐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준경은 태운이 양원역에 기차를 세우지 않자 이에 실망하여 이제 그만할 것임을 밝히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태운과 준경은 이전에 갈등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이 태운이 양원역에 기차를 세우지 않음으로써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들인 준경과 아버지인 태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갈등 양상을 고려할 때 이 글은 가족 간의 화해라는 주제 의식을 형성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3** 태운은 준경에게 그동안 자신이 숨겨 온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자신이 준경을 똑바로 보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준경은 현재 태운의 말을 통해 처음 그 이유를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태운의 “니 상 받는 데 같이 안 간 거…… 그게 내 평생의 한이다.”를 통해, 준경이 상 받은 날 가지 않은 것을 태운이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경은 철도에서 화물 열차를 피하려다 교각 아래로 추락하였는데, 박 기사의 말을 통해 이 화물 열차는 태운이 운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태운의 “그리고 나는…… 내가 젤 사랑하는 ~ 니만큼은 어예 댔든 지키고 싶었다.”를 통해, 태운은 보경이 죽은 후 준경도 잃을 바 일부러 준경을 멀리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박 기사는 태운에게 화물 열차를 자신이 운행한 것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태운이 온 화물 열차에 보경이 죽었다는 사실을 준경이 알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매우 클 것이라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 14 ㉠은 준경이 1등을 하여 받은 것이다. 그리고 <보기>를 통해 준경이 상으로 받은 트로피를 보경이 지켜 주려다 철교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동생인 준경에 대한 보경의 애정을 담고 있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보경이 트로피를 붙잡으려다 추락하였으나 이를 의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보경이 준경과 대립하고 있지는 않다. ㉣ 보경은 현재 죽은 인물로, ㉠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보경이 ㉠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있지는 않다.

- 15 준경은 태윤이 그동안 숨겨 온 사실을 말하자 믿을 수 없어 하면서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멍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뒤 준경은 ㉢의 “왜 이 얘기를 하는 건데?”라는 말을 ㉠과 ㉡에서 변형하여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는 태윤이 말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준경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준경은 태윤의 말을 듣고 당혹스러워하면서 화를 억누르고 있으므로, 준경이 태윤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 준경은 태윤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 여기고 있으므로, 준경이 태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부정적 의식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 ㉣ “차라리 빨리 말해서 내가 아버지라도 원망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냐?”를 통해 준경이 태윤을 원망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태윤에 대한 그동안의 원망이 잘못되었다는 준경의 심리가 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준경은 태윤이 말한 사실을 진실이라 여기고 있으므로, 태윤이 말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는 할 수 없다.

- 16 [A]의 “사고 당했단다. 철교서 떨어졌단다.”, “강에 빠졌는데…… 없단다.”, “원곡 진입 제3터널 앞 교각 아래로 추락했다.”를 통해, 장면 밖에서 일어난 보경의 사고를 박 기사의 대사를 통해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보경의 사고로 인해 박 기사와 태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 보경의 사고에 대해 박 기사와 태윤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는 않다. ㉢ 보경의 사고에 대한 원인이 [A]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 보경의 사고가 미칠 영향이 [A]에 드러나 있지는 않다.

- 17 <보기>는 [B]를 소설로 바꾸어 쓴 것이다. <보기>의 ‘속이 시원해졌다.’, ‘먹먹해진 마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을 통해, <보기>는 [B]와 달리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보기>는 [B]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을 뿐, 특정 장면을 추가하지는 않고 있다. ㉢ [B]에 제시된 인물의 대사가 <보기>에서는 대화 내용으로 그대로 제시되고 있다. ㉣ <보기>에서 [B]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다. ㉤ <보기>에서 태윤이나 준경의 표정을 상세히 묘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56~057쪽

- 01 준경은 열차에 대해 무서움(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누나인 보경에게 심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02 ㉠은 장면 밖에서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으로, 준경은 마을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간이역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의도로 ㉠을 쓴 것이다. 03 ㉡은 인물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며, 관객이 과거 사건에 대해 알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04 [A]에는 준경과 태윤의 갈등이 드러나 있고, <보기>에는 준경과 태윤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으므로 주제는 ‘인물(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라 할 수 있다.

- 01 S# 12에서 준경은 열차가 지나가자 긴장한 표정을 보이면서 보경의 손을 꼭 틀어쥐고 철교를 건너고 있다.

- 02 ㉠은 준경이 대통령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준경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것으로, 영화로 형상화할 때는 장면 밖에서 준경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해 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우리 마을에도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 주시이소.”를 통해, 준경이 편지를 쓴 의도가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간이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03 ㉠은 두 인물의 대화 가운데 삽입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과거에 보경이 죽은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은 과거 사건을 생생히 보여 줌으로써 태윤이 과거 철교를 지날 때를 회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관객이 보경이 죽은 사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효과를 준다.

- 04 [A]에서 준경은 아버지인 태윤을 외면한 채 객차로 향하고 있고, 태윤 역시 무뎠던 얼굴로 앞만 보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준경과 태윤이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보기>에서는 태윤이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준경은 태윤을 미워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준경과 태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준경과 태윤의 갈등과 해소를 바탕으로 할 때, 이 글의 주제는 ‘인물(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라고 할 수 있다.

OX로 마무리

본문 058~05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4 ‘V.O.’는 장면 밖에서 들리는 준경의 목소리에 해당한다. 즉, 준경이 쓴 편지 내용을 준경의 목소리로 읽어 주는 것으로, 준경에 대한 정보와 준경이 간이역을 세우려는 이유를 담고 있다.

- 08 태윤에게 인사를 한 것은 준경이 아니라 보경이다. 준경은 태윤을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며 객차로 가고 있으며, 태윤도 무뎠던 얼굴로 앞만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 태윤과 준경이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잡지책 홍보과장의 말을 통해 엄마와 보경의 죽음이 준경 때문이라는 잡지사의 기사에 대해, 태윤이 이를 잡지사에서 만들어 낸 이야기라고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태윤이 준경을 오해하게 되지는 않는다. 한편 잡지책을 통해 태윤은 준경이 엄마와 누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자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잡지책은 태윤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13 S# 116과 S# 120은 현재의 사건에 해당하고, S# 117~S# 119는 인물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장면에 해당한다. 즉 현재에서 과거, 그리고 다시 현재로 사건이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이 사용되고 있다.

16 박 기사는 보경이 죽은 장면 밖의 사건을 태윤과 관객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태윤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태윤은 박 기사로부터 보경의 사고를 듣고 충격에 빠져 있지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 준경은 태윤의 말을 듣고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지 멍하니 있다가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있다. 그 후 준경은 태윤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태윤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태윤을 위로해 주는 준경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4) 교술 갈래의 이해_풀 비린내에 대하여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62~065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② 05 ⑤ 06 ① 07 ② 08 ⑤
09 ③ 10 ④

01 이 글은 교술 갈래에 속하는 수필로,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감동,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오답 해설 ① 극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② 서정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④ 설명문에 대한 설명이다. ⑤ 서사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02 글쓴이는 자동차의 안락함에 길들여져 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고 있다. 즉, 자신의 생태적 무관심과 이기심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의 태도를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옛날 티베트 승려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현대인의 태도와 대조하면서 자동차를 모는 것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③ 스웨덴의 생태주의자 에민 땡스름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생태적 성찰이라는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차가 '감성적 기계'라는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④ 일화를 활용하여 성찰의 계기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여러 일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특정 대상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자연물인 풀벌레는 인간에 의해 희생되며 죄의식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인간의 유한성과 대비되는 무한성을 지녀 인생무상의 정서를 유발하는 대상이 아니다.

03 ㉠은 자동차를 그네 침대로 표현한 것으로, '달리는 무기'라는 인식을 전복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자동차의 용도를 '달리는 무기'라는 통념과 다르게 제시하여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 준 것이다.

04 글쓴이는 '차는 살생의 도구이므로 이를 소유하는 것은 살생을 용인하는, 전혀 생태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따라서 차를 소유한 자신은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행동이나 처지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일 뿐 실제로 자동차와 관련된 생태적 발언을 삼가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므로 ㉠의 내용으로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⑤ ㉠과 관련하여 글쓴이는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 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지지 않고(①), 그것이 생명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려는(⑤) 태도로 볼 수 있다. ③, ④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은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것(④)인데, 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 것(③)으로 다시 표현되고 있다.

05 '풀 비린내'는 ㉠로 인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 '이전'의 글쓴이는 풀 비린내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답 해설 ①~③ ㉠은 글쓴이가 몰던 자동차에 풀벌레들이 부딪혀 죽은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글쓴이는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생태적 자각을 하게 된다. ④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이전) →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 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이후)

06 [A]에는 '자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인해 생물이 고통 받는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들어가야 한다. ㉠은 인간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한 비닐이 바다표범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A]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 ③~⑤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07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풀벌레를 죽게 한 일상의 경험을 계기로 생태적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냉소적 어투로는 볼 수 없다. ③ 옛날 티베트 승려들의 사례와 대비하여 자동차를 모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④ 스웨덴의 생태주의자 에민 텡스웬의 말을 인용하여 자동차가 감성적 기계라는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생태적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으나 자연에 귀의하려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08 글쓴이는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즉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살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면허를 따 놓고도 오 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 하였다. ② 글쓴이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은 객지로 이사하면서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와 같은 실제적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③ 글쓴이는 마음이 답답할 때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등 차를 모는 일이 찾아지면서 자동차에 길들여져 갔다. ④ 글쓴이는 풀벌레가 차체에 부딪혀 죽는 경험을 통해 자동차를 모는 것이 살생 행위라는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

09 자동차를 모는 행위에는 풀벌레의 죽음과 같은 살생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살생 행위’라고 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자책감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책감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② 자동차로 인한 살상이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일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④ 자동차를 모는 행위가 동물이나 인간의 죽음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지 이것이 인간들 간의 싸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 것이 아니다. ⑤ ‘원죄 의식’이라는 표현은 죄의식을 강조한 표현일 뿐,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10 〈보기〉의 글쓴이는 사냥을 일삼는 ‘인간들한테 분노하고 치를 떨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라고 반문하는 자신에 대해 ‘이런 자괴심조차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생태적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는 자괴심조차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풀벌레가 차에 부딪혀 죽고, 새가 통유리창에 부딪혀 죽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경험은 비슷하다. 하지만 〈보기〉의 글쓴이는 ‘나는 새를 속여 먹은 것이다.’, ‘자연 친화적 좋아하네.’ 등에서 보듯이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내 잘못이 아니었듯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의 글쓴이는 ‘인간 우월주의’, 곧 인간 중심적 시각에 대해 비판적이다. 따라서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의 글쓴이는 ‘자연과 문명은 어차피 적대적’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의 관계가 분명 개선될’ 것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의 글쓴이는 ‘자연과 문명은 어차피 적대적’이라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Plus 〈보기〉 죽은 새를 위하여 박현서

갈래	현대 수필
성격	경험적, 성찰적, 비판적
주제	자연과 괴리된 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성찰과 비판
해제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사건을 계기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인간, 그리고 그들의 문명이 지닌 자기중심성과 폭력성을 비판함.

심화 독해 문제

본문 066~069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③ 05 ① 06 ④ 07 ⑤ 08 ③
09 ⑤ 10 ③ 11 ③

▶ (나)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_김광규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풍자시
성격	비판적
주제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
해제	현대 물질문명을 대표하는 자동차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움.

01 (가)는 교술 갈래에 속하는 수필, (나)는 서정 갈래에 속하는 시이다. 서정 갈래는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운율이 있는 압축된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답 해설 ① 객관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설명문이다. ②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형상화하는 것은 서사 갈래이다. ③ 특정 주제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논설문이다. ⑤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사건과 갈등을 직접 보여 주는 것은 극 갈래이다.

02 자동차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은 ㉠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자동차를 소재로 자신이 깨달은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는 자동차를 소재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② ㉠은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는 자연이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모두 더불어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은 풀벌레를 죽게 한 상황에 대해 자책감을, ㉡는 젊은 손수 운전자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상황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 ⑤ ㉠은 자신을 성찰하면서, ㉡는 ‘젊은 손수 운전자’인 청자를 비판하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03 ㉠은 운전이라는 행위에 잠재된 폭력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운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③ ㉠은 자동차에 풀벌레들이 부딪혀 죽는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한다. 글쓴이는 이를 ‘살상의 경험’으로 인식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④, ⑤ 글쓴이는 자동차가 풀벌레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그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였다.

04 글쓴이가 풀벌레 등의 자연을 ‘완벽했던’ 것으로 인식했는지는 불분명하고, ‘향수’라는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④ ㉠은 죽은 풀벌레의 냄새를 표현한 것으로, 글쓴이에게 생명을 죽게 했다는 죄의식과 자책감을 불러일으킨다. ② 살생의 기억과 충격이 ‘냄새’라는 감각을 통해 환기되고 있는 것이다.

05 [A]에서는 ‘가로수, 과일 장수, 생선 장수, 애기를 업은 여인’과 같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대상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면서, ‘교통 순경과 신호등’의 눈치만 살피며 달려간다고 하였다. 그런데 (㉠)에서는 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기억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표현했으므로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③ ‘가족들의 소중한 사랑’, ‘이웃의 걱정과 안타까움’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것들을 ‘뒤로 하고’ ‘외면’한다고 하였으므로 [A]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④ ‘과속 감시 카메라’를 피하는 것은 ‘교통 순경과 신호등’을 살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⑤ ‘뒤로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06 ㉔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㉔은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부정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 주는 것에 길들여진 태도로 볼 수 있다. ②, ③ '살상의 경험'이나 그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없다 ⑤ 차를 소유하고 그에 종속된 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김기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판적, 성찰적
주제	문명적 삶에 대한 반성과 자연과의 교감 추구
해제	문명을 대표하는 텔레비전을 끄는 행위로 인해 자연의 소리를 발견하고 교감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현대인의 삶을 성찰함.

핵심 정리

- 07 (가)에서 '풀벌레'는 존중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타협'은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정리를 평가한 말이고, '의존'은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진 모습을 표현한 말일 뿐, '풀벌레'에 대한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풀벌레'로 대표되는 자연 또는 생명의 존재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 ②, ③ (가)는 자동차로 인한 풀벌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의 소리를 듣게 되는 상황을 계기로 '풀벌레'의 존재가 인지되고 이를 통해 반성과 성찰에 이르게 된다. ④ (가)는 '풀 비린내'를 통해 후각적으로, (나)는 '풀벌레 소리'를 통해 청각적으로 '풀벌레'의 존재가 환기되고 있다.

- 08 ㉔에서는 풀벌레가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사건을 계기로 생태적 성찰에 이르게 되고 자동차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감성적 기계」라는 예술 작품에 통념이 구현된 것도, 이를 비판한 것도 아니다. 글쓴이는 통념을 전복시킨 예술 작품을 언급하면서 화제를 도입하고 있다. ② 자동차를 '감성적 기계'로 평가하고 있다. ④ 안락한 공간인 자동차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음을 자각하며 비판하고 있다. ⑤ 자동차라는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 09 ㉔은 풀벌레를 죽게 한 자신의 행위가 죄임을 잊지 않고 성찰적 자세를 유지하려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다'고 합리화하거나, 스스로를 '다독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손을 씻고 또 씻는 행위는 자책감과 죄의식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생각하는 인간의 무심함과 이기적 태도를 자각하게 된 모습이다. ③ 자동차가 생명을 파괴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을 잊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생명을 파괴하는 위험성을 지닌 차를 소유하는 것은 살생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생태적 관점에서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 10 글쓴이는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임을 고려하여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기로 한다. 자동차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에 부딪히는 소리를 모래 알갱이가 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② 풀벌레들이 짓이겨져 나는 냄새인 풀 비린내를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여긴 것은, 글쓴이가 자동차로 풀벌레를 죽인 것에 대해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④ 글쓴이는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풀 비린내'를 죄라고 여기는 것은,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 11 '벌레 소리들 환하다'에서 청각인 '소리'를 '환한 것'으로 시각화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풀벌레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풀벌레를 '마음'을 가진 대상으로 의인화하고 있지만,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다. ② '생각한다', '~다가', '~을 것이다' 등의 표현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동일한 문장의 반복은 보이지 않는다.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것이다')을 통해 화자의 성찰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소망의 강조와는 거리가 멀다. ⑤ '들어온다, 환하다' 등 모든 종결 어미를 현재 시제로 제시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대상의 의지 부각과는 거리가 멀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70~071쪽

- 01 두려움, 죄의식, 자책감 02 인간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도구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 03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춘다. 04 풀 비린내는 죽은 풀벌레의 냄새를 의미하고, 자동차가 살상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실감하게 하여 글쓴이의 생태적 성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05 자동차를 '감성적 기계'로 여겼다가 자동차로 인한 살생의 경험을 계기로 자동차라는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 01 글쓴이는 풀벌레들이 차체에 부딪혀 죽은 것에 죄의식을 느꼈다.

- 02, 03 글쓴이는 풀 비린내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가 살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여 자동차의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한다.

- 04 글쓴이는 '풀 비린내'를 통해 생태적 성찰을 하게 된다.

- 05 글쓴이는 풀 비린내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라는 '감성적 기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72~073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05 글쓴이는 자동차를 인생의 반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폭력성을 인식하면서 소유하되 의존하지 않으려 한다.

- 09 글쓴이는 풀벌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풀벌레가 죽고 난 후에 풀벌레의 존재를 인지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 11 글쓴이는 모든 운전자가 자신과 비슷한 살상의 경험을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 18 '풀 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생명에 대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 20 글쓴이는 차를 소유한 자신은 생태적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변화 시대, '나'의 길 찾기

(2) 다양한 색깔을 존중하는 사회

기출 심전

문제

본문 078~083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④ 05 ⑤ 06 ⑤ 07 ④ 08 ①
09 ① 10 ⑤ 11 ⑤ 12 ⑤ 13 ⑤ 14 ② 15 ⑤ 16 ④
17 ②

- 01 글쓴이는 할러데이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고정 관념과, 이로 인한 관광 안내소의 안내 책자 분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다.

오답 해설 ① 관광 안내소의 안내 책자 분류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② 할러데이 교수의 경험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며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국인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할러데이 교수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다양한 문제 상황이 나타나 있지는 않으며 사회적 감성을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 02 글쓴이는 할러데이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면 익숙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고 여기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할러데이 교수는 글쓴이와 국적이 다른 인물로, 이러한 차이가 관점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 국적의 차이만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③, ⑤ 유사한 영역을 연구하고 지도 학생이 겹치는 것은 자주 대화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해당한다. ④ 글쓴이는 외국인에 대한 고정 관념에 대해 성찰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 03 ③은 글쓴이가 할러데이 교수의 경험을 듣고 한국인의 고정 관념에 대해 생각해 본 날이다. 고정 관념을 가지고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날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할러데이 교수와 헤어지고 곧바로 평소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관광 안내소의 안내 책자에 대해 찾아보았다. ② 글쓴이는 할러데이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하였다. ③, ⑤ 글쓴이는 할러데이 교수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가진 외국인에 대한 고정 관념과 유명 관광지 관광 안내소에서 겪은 일을 들었다.

- 04 관광 안내소에 구비된 안내 책자의 구분에서 사용자에게 대한 고려가 부족한 면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 사용자보다 공급자의 편의를 중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⑥의 특성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⑤ 한국인은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한민족이 아닌 사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② 할러데이 교수가 한국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민족적 정체성인 외모를 기준으로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며 외모가 일반적인 한국 사람과 다르면 쉽게 외국인이라고 판단해 버린다고 하였다. ③ 할러데이 교수가 언급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고정 관념에 해당한다.

- 05 영어가 외국인이 능숙하게 사용하는 언어일 것이라는 전제로 관광 안내소에 외국인용[for foreigner]이라고 표지를 붙여 안내 책자를 비치하였으므로, 영어에 능숙한 외국인은 영어로 안내된

외국인용 안내 책자 코너에서 손쉽게 영어 안내 책자를 이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외국인용 안내 책자가 있는 곳을 안내하는 문구가 영어로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편이 예상된다. ②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내국인은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만이 내국인이므로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③, ④ 다른 언어로 된 안내 책자를 읽고 싶은 사용자의 경우,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용이 제한된다.

- 06 대조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전주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와 할러데이 교수는 국적 외 차이점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정체성의 차이를 부각하여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평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경험을 다루고 있다. ② 할러데이 교수로부터,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고정 관념과 그 사례에 해당하는 관광 안내 책자의 분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평소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을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 ③ 경험한 바와 관련하여 떠올린 의문들을 제시함으로써 관광 안내소 안내 책자의 분류가 언어가 아니라 국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원인에 대해 탐색하는 생각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④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인 할러데이 교수의 경험을 인용하여 흥미를 유발한 후, 자연스럽게 그에 대해 생각해 본 점을 제시하는 구성을 취하여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고정 관념이라는 제재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다.

- 07 다양한 개성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 사회의 미래가 구현되는 데 있어, 외국인에 대한 고정 관념이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모습이 다양성의 존중과 공존이라고 하였으므로 한민족의 정체성만을 중시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② 안내 책자 제작과 비치의 친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에서는 관광 안내소에 비치된 안내 책자 양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⑤ 안내 책자 분류에 공급자의 편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진술된 바와 같은 영향 관계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 08 (가)에서는 관광 안내소의 안내 책자를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안내 책자의 분류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안내 책자를 읽는 사람들 중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내국인이나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을 뿐,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외국인을 위해 만든 안내 책자는 국제어적 성격이 강한 영어로 써서 안내해야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이 중심 내용은 아니다. ④, ⑤ 외국인의 관광 안내소나 안내 책자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09 글쓴이는 국적을 기준으로 안내 책자를 분류한 것이 사용자에게 소외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나, 외국인은 이러한 것이라는 편견을 지닌 공급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글쓴이는 우리 사회가 단조로운 미래를 지향할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③ ⑥에는 한국어와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④ 외국인의 언어로 국제어의 성격을 지닌 영어를 상정한 것은, 한국어와 의 우열 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글쓴이는 결과와 별개로 ⑥를 사용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로 이해하고 있다.

- 10 ⑥는 영어로 외국인용 안내 책자가 있는 곳을 안내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국제어 성격을 지닌 영어의 사용이라는 점에서 국제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언어의 임의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⑥는 영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안내'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한국 외 국적을 소유한 외국인인 영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고정 관념이 드러난다. ③ 외국인 중 영어를 모르는 사람의 가능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④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안내 책자로 고정함으로써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를 읽어 보고 싶은 외국인 사용자의 요구를 차단한다.

- 11 ㉔은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하다'라는 뜻이다. ⑤는 '한정하다'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④ ①~⑤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

- 12 글쓴이는 외국인에게 다양한 배경과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인의 편견을 경험하는 <보기>의 상황에 대해 외국인을 개인으로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인물은 자신에 대한 편견을 의식하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전화 예절에 대한 문화적 차이로 해석할 수 없다. ② 외국인의 행동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일부 사람의 행동이 개선되어야 하겠으나, 그 모습을 눈여겨보는 것 자체가 글쓴이가 추구하는 변화 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보기>의 인물은 과도한 관심,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편견에 기반한 관심으로 겪는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관심 자체를 줄이는 것이 글쓴이가 추구하는 변화는 아니며 외국인의 거주 비율과 갖는 상관성에 대해서도 선지와 같이 판단하기 어렵다. ④ 글쓴이는 각자의 다양한 배경과 관점이 동등하게 인정받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형태를 기준으로 보고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이와 모순된다.

- 13 글쓴이는 ㉔와의 대화를 통해 익숙했던 것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진 외국인에 대한 고정 관념이라는 문제 상황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㉔가 글쓴이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1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의 1~3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에서 할러데이 교수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할러데이 교수가 한국인이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관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3~4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4 ㉔를 통해 외국인용 안내 책자들이 어떤 언어들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관광 안내소 안내 책자가 국적을 기준으로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였다. ③, ⑤ 할러데이 교수는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가 읽고 싶었으나 내국인용이어서 읽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④ 외국인의 언어 사용에 관한 한국인의 고정 관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안내 책자의 구분을 흥미롭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15 ㉔는 할러데이 교수와의 대화 이후 글쓴이가 검색하여 찾아본 것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㉔는 할러데이 교수가 방문한 곳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또, 할러데이 교수가 ㉔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② 글쓴이는 평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관광 안내소 안내 책자가 할러데이 교수의 말처럼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㉔를 검색한 것이지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한 것이 아니다. ③ ㉔는 할러데이 교수가 방문한 곳을 가리키지 않으며, 할러데이 교수는 영어 뿐 아니라 한국어도 익숙한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④ ㉔는 글쓴이가 검색한 것으로, 직접 방문한 공간이 아니며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내용 또한 할러데이 교수에게 들은 바와 같았다.

- 16 글쓴이는 지금의 대한민국(㉔)이 한민족 정체성이 뚜렷했던 과거와 달리 이미 다문화화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한 사회 환경에 비해 다양성에 대한 인식에서 편협함이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배경에 대한 열린 생각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글쓴이가 추구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해당하나, 글쓴이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를 완전히 구현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② 글쓴이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미 다문화하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공동체적 특성과 개인적 개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다.

- 17 이 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경험한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밝힌 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㉔에 해당하는 내용은 '고정 관념'이다. ③ ㉔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용자'이다. ④ ㉔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급자'이다. ⑤ ㉔에 해당하는 내용은 '비유'이다.

심화 복습 문제		본문 084~087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②	05 ④	06 ③	07 ③	08 ⑤	09 ①	10 ④

- 01 할러데이 교수의 견해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 고정 관념이 있다는 판단 정도로만 제시되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변화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는 제시되어 있으나, 할러데이 교수의 견해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와 할러데이 교수는 같은 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에 재직 중인 동료 관계이다. ② 글쓴이는 할러데이 교수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관광 안내소 안내 책자에 대해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③ 글쓴이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다문화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할러데이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관광 안내소의 안내 책자가 국적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과, 이러한 분류에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고정 관념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다.

- 02 이 글은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민족으로 한국인을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이라면 영어를 잘 알 것이라는 편견이 드러나는 사례를 통해 다양한 개성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위해 다문화하는 사회에 부적합한 고정 관념이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민족적 정체성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으며 개념의 적용 또한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정책적 해결 방향을 제안하지 않았으며 구성원 각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③ 한국 사회가 다문화화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묘사 및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외국인인 할러데이 교수와의 소통 경험을 제시하고 그 즐거움과 유익함도 언급하였으나, 독자에게 다양한 의사소통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03 할러데이 교수는 ㉔에서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를 읽고 싶었으나 읽지 못했다는 점에서 모국어인 영어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㉔에서 글쓴이가 할러데이 교수의 말대로 국적에 따라 안내 책자가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㉔는 할러데이 교수가 외국인인 영어를 할 줄 안다는 한국인의 고정 관념을 경험한 공간이다. ② ㉔는 글쓴이가 할러데이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서 검색해 본 것이다. ③ ㉔와 ㉔에서 안내 책자의 분류는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이라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④ ㉔는 할러데이 교수가 방문한 유명 관광지에 있는 것이며, ㉔는 글쓴이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검색 대상이다.

04 글쓴이는 ㉠에 대한 할러데이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는 교수의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기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이후 검색을 통해 이미지를 추가 확인하기는 하지만, 교수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심 있게 보지 않아 기억에 없는 대상이기에 시각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검색 후 ㉠이 국적을 기준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질문을 떠올리며 이것이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③ 할러데이 교수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에 무신경했음을 밝히고 있다. ④ ㉠에 대해 할러데이 교수에게 들은 말 대부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영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용 표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떠올리며 국적이 아니라 언어를 기준으로 안내 책자가 구분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05 이 글은 외국인의 언어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 관념을, <보기>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남성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피실험자들의 고정 관념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언어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식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밝히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은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고정 관념을, <보기>는 직업의 성별에 대한 피실험자의 고정 관념을 보여 준다. ③ 이 글에서 보여 주는 고정 관념이 대상을 우열로 평가하는 차별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은 동료 간 대화를 통한 인식의 확장을 보여 주고 있으나, <보기>는 가족 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으며 의사의 질문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만한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다.

06 ㉠은 내국인용으로 한국어 안내 책자를, 외국인용으로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된 안내 책자를 지정한 분류이다. 이로 인해 다른 언어로 된 안내 책자를 읽고 싶은 내국인과,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를 읽고 싶은 외국인의 요구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한국 국적의 사용자에게는 한국어가, 한국 국적이 아닌 사용자에게는 한국어 외 언어, 특히 영어가 익숙할 것으로 규정하여 구분한 결과에 해당한다. ②, ④ ㉠은 외국인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급자의 편견이 드러나며, 외국인은 영어를 잘할 것이라는 한국 사람들의 고정 관념을 보여 준다. 이는 그 사람의 말씨와 외모 등의 외형적 특징으로 쉽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해 버리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다양한 배경과 관점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를 보여 준다. ⑤ ㉠은 한국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내국인과 영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보여 준다.

07 한국어와 영어 간의 우월성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외국인은 한국어를 모르고 영어를 잘할 것이라는 고정 관념과 편견이 담겨 있는 관점이다. ⑤ 한국인은 당연히 한국어에 익숙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국인용으로 분류한 것이다.

08 <보기>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보여 주는 어휘 목록이다. 남한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대상인 ‘도넛’의 명칭을 외래어로 인정하여 사용하나, 북한에서는 이를 ‘가락지빵’으로 번역하여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같은 한자의 발음 차이가 비교되는 어휘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남한에서는 ‘마찰’, ‘갈등’, ‘화학조미료’ 등의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이를 각각 ‘쓸림’, ‘마음다툼’, ‘맛내기’와 같이 의미를 담은 고유어를 사용한다. ③, ④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에 해당하나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09 ㉠은 ‘꿈, 계획 따위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①이다.

오답 해설 ②, ⑤ ‘보고 듣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주의를 끌 만한 상

태로 나타내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③ ‘접히거나 개진 것 따위를 널찍하게 퍼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④ ‘퍼서 드러내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10 이 글의 글쓴이는 관광 안내소 안내 책자 분류 기준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 존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보기>의 글쓴이 역시 ‘주말’이라는 말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알아야 소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대한 이해로는 적절하나, 이 글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② <보기>는 ‘주말’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정 관념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이 글과 <보기>의 내용 모두 한국어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⑤ <보기>의 글쓴이는 상대의 문화를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추론할 수 있으나, 이 글의 글쓴이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화 학습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서말·서술형 [문제]

본문 083쪽

01 현재 한국 사회는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다변화된 사회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람들은 외형적 특징으로 구성원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등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점검해야 한다. **02** 지역 방언은 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해당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01 글쓴이는 다변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와 필요한 노력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02 지역 방언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정서와 사고가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점에서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의 토대가 된다. 또 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집단 내 구성원 간에 친근감을 느끼게 해 주며 국어의 여러 가지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에 언어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같은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8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4 글쓴이는 안내소 및 안내 책자 분류와 관련한 이미지를 찾아보았을 뿐 특정 안내 책자를 읽고 싶었으나 읽지 못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

07 글쓴이는 관광 안내소의 안내 책자가, 국적이 아니라 언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바르고 슬기로운 우리말 사용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94~101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④	05 ④	06 ①	07 ②	08 ④
09 ④	10 ④	11 ⑤	12 ③	13 ④	14 ②	15 ⑤	16 ①
17 ④	18 ④	19 ④	20 ④	21 ③	22 ④	23 ④	24 ①
25 ④	26 ③	27 ①	28 ②	29 ④	30 ②	31 ⑤	32 ⑤

- 01 (라)에서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에서 ‘안기다’의 ‘-기-’는 피동 접미사이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고 [안기다]로 발음한다.

오답 해설 ① 첨가는 전체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고, 축약은 전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② ‘낮’의 ‘ㅈ’이 [ㄷ]으로 바뀌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데, 이는 음운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한다. ③ 유음화는 ‘칼날[칼날]’처럼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뀌는 경우와 ‘난로[날로]’처럼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음화는 ‘ㄹ’ 앞뒤의 ‘ㄴ’이 모두 바뀐다고 할 수 있다. ⑤ 받침 ‘ㄷ’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 02 ‘달히다’는 거센소리되기(축약)에 의해 먼저 [다티다]로 되었다가 다시 구개음화 현상(교체)에 의해 [다치다]로 소리 나므로, 음운 ‘ㄷ’이 탈락하는 현상에 속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젊은 겁받침 ‘ㄹ’ 중 ‘ㄹ’이 탈락하여 ‘ㄱ’으로 소리 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나타나 [칙]으로 발음된다. ② ‘숨이불’은 음운 ‘ㄴ’이 첨가되어 [숨:니불]로 발음된다. ④ ‘신라’는 음운 ‘ㄴ’이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 [실라]로 발음된다. ⑤ ‘축하해’는 음운 ‘ㄱ’과 ‘ㅎ’이 ‘ㅋ’으로 축약되어 [추카해]로 발음된다.

- 03 ‘폴숲에’는 ‘숲’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조사가 결합되어 있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폴수페]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겉웃’은 ‘겉’의 ‘ㅌ’이 [ㄷ]으로 바뀌어 연음되므로 [거똥]으로 발음된다. ② ‘강, 산, 말’의 종성은 모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 중 하나에 속하므로 표기 그대로 발음된다. ④ ‘낮, 낮, 낮’의 종성은 모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에 속하지 않으므로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⑤ ‘웃 안’은 ‘웃’의 종성이 [ㄷ]으로 바뀐 후 연음되어 [오단]으로 발음된다.

- 04 <보기>에서 동화는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의 성질을 닮아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문’의 ‘ㄴ’과 ‘ㅁ’은 모두 비음이므로 동화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ㄴ’이 ‘ㅁ’에 동화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문’을 [심문]으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파열음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인 비음화에 해당하는 예이다. ③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인 유음화에 해당하는 예이다.

- 05 ‘을’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밭을’은 [바틀]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② 구개음화는 전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축약, 탈락이나 늘어나는 첨가와 달리 교체에 해당하므로 전체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③ ‘굴히다’는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먼저 일어난 뒤, 다시 ‘ㅌ’이 ‘ㅣ’를 만나 [ㄷ]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출이불’의 경우 받침 ‘ㅌ’ 뒤에 온 ‘이불’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06 (라)에서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옮기다’는 ‘옮다’의 사동사이므로 된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된소리되기(축약)는 ‘ㄴ, ㄹ’으로 끝나는 음운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적용되므로 ‘신고’는 [신:꼬]로 된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③, ④, ⑤ 된소리되기(축약)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일정한 환경에서 된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옆집’은 [엿집]으로, ‘밥상’은 [밥쌍]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정도’는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된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지 않는다.

- 07 ‘불놀이’는 유음화에 의해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뀌므로 [블로리]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굴이’는 구개음화에 의해 [구지]로 발음해야 한다. ③ ‘진리’는 유음화에 의해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뀌므로 [질리]로 발음해야 한다. ④ ‘신자’는 ‘ㄴ, ㄹ’로 끝나는 음운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적용되는 된소리되기(축약)에 해당하므로 [신:짜]로 발음해야 한다. ⑤ ‘부엌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부엌문]으로 바뀐다. 그리고 파열음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는 현상인 비음화에 의해 [부엌문]으로 발음된다.

- 08 ‘피붙이’는 받침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경구개음 [ㅌ:]으로 바뀌어 [피부치]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물난리’는 비음 ‘ㄴ’이 앞과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물랄리]로 발음되므로 유음화에 해당한다. ② ‘잡는’은 파열음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어 [잡는]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에 해당한다. ③ ‘정직하다[정지카다]’는 ‘ㄱ’이 ‘ㅎ’과 만나 [ㅋ]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 단어이다. ⑤ ‘맞는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만는다]로 바뀐 뒤, 파열음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어 [만는다]로 발음된다. 따라서 ‘맞는다[만는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 09 음운 탈락에 해당하는 ‘ㅎ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 음운 탈락이 일어나면 음운의 수가 줄어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센소리되기(축약)는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서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음운 축약에서도 음운 수가 줄어들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한 일[한날]’의 예를 통해 음운 첨가는 두 단어가 이어질 때에도 일어남을 알 수 있다. ② <가>를 통해 ‘맑다’는 ‘ㄹ’에서 ‘ㄹ’이 탈락하여 [막파로], ‘맑고’는 ‘ㄹ’에서 ‘ㄱ’이 탈락하여 [발코]로 발음함을 알 수 있으므로 ‘ㄹ’은 ‘ㄱ’이 탈락하거나 ‘ㄹ’이 탈락하여 발음될 수 있다. ③ ‘ㅎ’ 탈락과 거센소리되기(축약)를 통해, ‘ㅎ’은 뒤에 어떠한 말이 오든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⑤ (다)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10 ‘따르- + -는 → 따르는’에서는 모음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담갔다’는 ‘담그- + -았- + -다’로 분석되므로 ‘ㄴ’ 탈락이 일어났다. ② ‘갔다’는 ‘가- + -았- + -다’로 분석되므로 동음인 ‘ㄴ’ 탈락이 일어났다. ③ ‘모아라’는 ‘모으- + -아라’로 분석되므로 ‘ㄴ’ 탈락이 일어났다. ⑤ ‘커서’는 ‘크- + -어서’로 분석되므로 ‘ㄴ’ 탈락이 일어났다.

- 11 ‘넣어요’를 [너어요]라고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한 것으로 ‘ㅎ’ 탈락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하얏다’를 [하야타]로 발음하는 것은 ‘ㅎ’과 ‘ㄷ’의 축약에 의한 것

이다. ② ‘좁히다’를 [조피다]로 발음하는 것은 ‘ㅎ’과 ‘ㅂ’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 ③ ‘놓는다’를 [논는다]로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에 의한 것이다. ④ ‘그럴조’를 [그러조]로 발음하는 것은 ‘ㅎ’과 ‘ㄷ’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

- 12 ㉠에서 겹받침 ‘ㄷ, ㅌ, ㅍ’은 앞선 자음이 탈락하여 각각 [ㄱ, ㅋ, ㅍ]으로 발음된다고 하였으므로, [답따]로 발음되는 ‘답다’가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읽고’는 [일꼬]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라 할 수 있다. ② ‘뭉게’는 [물게]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라 할 수 있다. ④ ‘할다’는 [할따]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라 할 수 있다. ⑤ ‘밝다’는 [박따]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라 할 수 있다.

- 13 음운의 첨가는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것으로, 전체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다.

오답 해설 ① 첨가는 하나의 형태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일어난다. ② 반모음 첨가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되어’가 반모음이 첨가되어 [되여]로 발음되더라도 ‘되어’로 표기한다. ③ ‘여시오’가 [여시오]로도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 ‘ㅣ’가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⑤ 어미 ‘-이’, ‘-오’가 모음 ‘ㅣ’ 뒤에서 반모음 ‘ㅣ’가 첨가되어 [여], [오]로 소리 날 때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

- 14 ‘ㄴ’ 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 음이 덧붙여 발음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막일’이 [막닐]로 발음되는 것은 ‘ㄴ’ 첨가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ㄴ’ 첨가가 일어난 것은 ‘담요[담뇨]’이다.

오답 해설 ① ‘법학[버팍]’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거센소리되기로 축약에 해당한다. ③ ‘신라[실라]’에 나타나는 변동은 유음화로 교체에 해당한다. ④ ‘향료[향노]’에 나타나는 변동은 비음화로 교체에 해당한다. ⑤ ‘왕십리’는 [왕십니→왕십니]로 비음화만 두 번 일어나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 15 ‘국화[구화]’에서는 받침 ‘ㄱ’이 뒤에 오는 ‘ㅎ’을 만나 [ㅋ]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뿡아서[빼아서]’는 ‘ㅎ’이 탈락한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④ ‘낙하산’은 [나카산]으로, ‘하얏게’는 [하야게]로, ‘좁히지’는 [조피지]로, ‘박하사탕’은 [바카사탕]으로 발음되어 음운 축약이 일어난다.

- 16 ‘땀입’은 ‘땀’과 ‘입’이 결합하면서 ‘ㄴ’ 첨가가 일어나고, ‘쌍이’에서는 ‘ㅎ’ 탈락이 일어난다. 그리고 ‘입학’은 ‘ㅂ’과 ‘ㅎ’의 두 음운이 합쳐져 한 음운 ‘ㅍ’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일어나고, ‘칼날’은 ‘ㄴ’이 ‘ㄹ’을 만나 ‘ㄹ’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가)에는 ㉠은 ‘첨가’에 해당하고, ㉡은 ‘축약’에 해당합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7 ‘밭으로’에서 ‘으로’는 형식 형태소인 조사에 해당하므로, 형식 형태소 앞 끝소리인 ‘ㅌ’를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바트로]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날알’의 ‘알’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나달]로 발음해야 한다. ② ‘밭을’의 ‘을’은 형식 형태소이므로 [바틀]로 발음해야 한다. ③ ‘겉옷’의 ‘옷’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거뜰]으로 발음해야 한다. ⑤ ‘밭은소리’에서 ‘밭은’은 용언 ‘밭다’의 어간인 ‘밭-’과 형식 형태소인 어미 ‘-은’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바튼]으로 발음해야 한다.

- 18 ‘국물’이 [궁물]로 발음되는 것은 뒤 음절의 첫소리인 올림소리 ‘ㄷ’이 앞 음절의 끝소리인 안올림소리 ‘ㄱ’에 영향을 주어 ‘ㄱ’을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ㅇ’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 19 ‘금용’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

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9항의 원칙에 따라 [궁녕]으로 발음한다. 다만, ‘금용’의 경우는 표기대로 발음되는 것이 허용되므로 [그똥]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국민’은 표준 발음법 제18항의 적용을 받아 [궁민]으로 발음된다. ②, ③ ‘신라’와 ‘한라산’은 표준 발음법 제20항의 적용을 받아 [실라], [할라산]으로 발음된다. ⑤ ‘향로’는 표준 발음법 제19항의 적용을 받아 [향노]로 발음된다.

- 20 ‘만날 사람’은 [만날싸람]으로 발음되므로 관형사형 어미 ‘-ㄹ’ 뒤의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의 규칙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입고’는 받침 ‘ㅂ’ 뒤의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② ‘꺼안다’는 어간 받침 ‘ㄴ’ 뒤의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③ ㉠의 예인 ‘할 수는’은 단어와 단어의 결합에 해당하므로, ㉡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⑤ ㉠~㉢을 볼 때, 된소리되기는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 21 ㉠ ‘끝인사’의 ‘인사’는 실질 형태소이다. ㉡ ‘곧이’의 ‘-이’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고지]로 발음된다. ㉢ ‘곧이어’의 ‘이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고디어]로 발음된다.

- 22 <보기>에서는 ‘ㅎ 탈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쌍이다’를 [싸이다]라고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한 것으로 ‘ㅎ 탈락’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잡화’를 [자파]로 발음하는 것은 ‘ㅂ’과 ‘ㅎ’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 ② ‘안던’을 [안턴]으로 발음하는 것은 ‘ㅎ’과 ‘ㄷ’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 ③ ‘놓는다’를 [논는다]로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에 의한 것이다. ⑤ ‘꽃히다’를 [꼬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ㄷ’과 ‘ㅎ’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

- 23 <보기>의 제11항에서 겹받침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ㅍ]으로 발음된다고 했으므로, ‘삶다’는 제11항 규정에 따라 [삼:파]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을고’는 제11항에 따라 [읍꼬]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② ‘밟고’는 제10항 다만 규정에 따라 [밥꼬]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③ ‘맑게’는 제11항 다만 규정에 따라 [말게]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⑤ ‘여덟’은 제10항 규정에 따라 [여덜]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 24 ‘땀입[땀닙]’: ‘ㄴ’ 첨가, ‘종지[조치]’: ‘ㅎ’과 ‘ㅈ’이 합쳐져 ‘ㅉ’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

오답 해설 ② ‘국밥[국뽕]’: ‘ㅂ’이 ‘ㅍ’으로 교체(된소리되기) ③ ‘목화[목화]’: ‘ㄱ’과 ‘ㅎ’이 합쳐져 ‘ㅋ’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 ‘놓아[노아]’: ‘ㅎ’ 탈락 ④ ‘축제[축제]’: ‘ㄷ’이 ‘ㅌ’으로 교체(된소리되기), ‘하얏게[하야게]’: ‘ㅎ’과 ‘ㄱ’이 합쳐져 ‘ㅋ’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

- 25 <보기>를 통해 ‘ㄴ’ 첨가가 두 음운이 만나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들어오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내용으로 보아 ‘ㄴ’ 첨가는 ‘ㄴ’ 음이 첨가되므로 하나의 음운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담요’는 합성어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요’이므로, ‘ㄴ’ 음이 첨가되어 ㉡에 따라 [담뇨]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② ‘들일’은 합성어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가 ‘이’로 시작되므로, ‘ㄴ’ 음이 첨가되어 [들닐]로 발음된다. 그리고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을 [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에 따라 [들릴]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한 일’은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에 따라 ‘ㄴ’ 음이 첨가

되어 [한닐]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⑤ '술잎'은 합성어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 되고 뒤 단어가 '이'로 시작되므로 ㉠에 따라 'ㄴ' 음이 첨가되어 [술닙]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르'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에 따라 [솔립]으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26 '뒷개[땃개]'에서는 '뒷-'의 'ㅍ'을 [ㅂ]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개'의 'ㄱ'은 앞 음절 받침 'ㅍ[ㅂ]' 뒤에 연결되어 된소리 [ㅃ]으로 발음하는 된소리되기이 적용된다.

오답 해설 ① '국밥[국뽕]'은 된소리되기 현상만 나타난다. ② '달넌[단넌]'은 비음이 아닌 자음(ㄷ)이 비음(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④ '갈똥[갈똥]'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ㄷ'이 와서 된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다. ⑤ '눈요기[눈노기]'는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음절이 'ㅇ'인 경우 'ㄴ' 소리가 첨가되는 'ㄴ' 첨가가 나타난다.

- 27 '알약'에서 [알냐]이 되면서 없던 음운인 'ㄴ'이 추가되었다. 이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음절이 모음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초성 자리에 'ㄴ'이 첨가되어 '니, 나, 녀, 노, 뉴'로 발음되는 'ㄴ' 첨가에 해당한다. [알냐]이 [알약]이 되는 것은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현상인 유음화에 해당한다. 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에 해당한다.

- 28 '[꼰넵] → [꼰닙]'에서 'ㄷ'이 'ㄴ'으로, '[흑넵새] → [흑넵새]'에서 'ㄱ'이 'ㅇ'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 모두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유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 ㉡ 모두 유음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꼰넵 → [꼰닙]'에서 'ㄷ'이 'ㄴ'으로, 'ㅍ'이 'ㅂ'으로 바뀌어 ㉠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지만,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ㄴ' 첨가에 대한 설명이다. '[꼰넵] → [꼰닙]'에서 'ㄴ' 첨가가 나타나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설명이다. '흑넵새 → [흑넵새]'에서 'ㄹ' 중 'ㄹ'이 탈락하여 ㉡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나지만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29 '반는다'는 받침 'ㄷ'이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어 [반는다]로 발음되므로 제18항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제23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는다]로 발음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꽃망울'은 받침 'ㄷ'이 'ㄹ'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어 [꼰망울]로 발음되므로 제18항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웃고름'은 받침 'ㅍ' 뒤에 연결되는 'ㄱ'이 [ㄱ]으로 발음되므로 제23항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맛먹다'는 받침 'ㄷ'이 'ㄹ'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며,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ㄷ'이 [ㄷ]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제18항과 제23항이 모두 적용되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웃맵시'는 받침 'ㅍ'이 'ㄹ'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며, 받침 'ㅂ' 뒤에 연결되는 'ㅍ'이 [ㅍ]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제18항과 제23항이 모두 적용되었다는 것은 적절하다.

- 30 '내복약'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이 덧붙는 첨가가 일어나 [내:복냐]으로 바뀐다. 그 후 첨가된 'ㄴ'의 영향을 받아 'ㄱ'이 'ㅇ'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나 [내:봉냐]으로 발음되므로, '내복약[내:봉냐]'은 교체와 첨가가 모두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한여름[한너름]'은 'ㄴ'이 첨가되었으므로 첨가에 해당한다. ③ '물난리[물랄리]'는 두 개의 'ㄴ'이 모두 'ㄹ'로 바뀌었으므로 교체(유음화)에 해당한다. ④ '빛나루[빈나루]'는 'ㄷ'이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교체(비음화)에 해당한다. ⑤ '뿔어써[너어써]'는 'ㅎ'이 없어졌으므로 탈락에 해당한다.

- 31 '웃 한 벌[오탄벌]'이 발음될 때에는 'ㅍ'이 'ㄷ'으로 교체된 후 'ㅎ'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비음화에 해당한다. ② 유음화에 해당한다. ③ 'ㅎ' 탈락에 해당한다. ④ 'ㄴ' 첨가와 비음화에 해당한다.

- 32 '췌는[청는]'은 음절 끝의 자음 'ㅍ'이 [ㄱ]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후 비음화가 일어나 [ㅇ]이 되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굴하지[구피지]'는 거센소리되기만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② '작년[장년]'은 비음화만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③ '알고[인코]'는 거센소리되기만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④ '창밖[창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02~107쪽

01 ④	02 ①	03 ⑤	04 ⑤	05 ⑤	06 ②	07 ⑤	08 ④
09 ⑤	10 ⑤	11 ②	12 ⑤	13 ①	14 ①	15 ⑤	16 ④
17 ①	18 ③	19 ②	20 ②	21 ④	22 ②	23 ⑤	

- 01 '부엌'이 [부억]으로 발음되는 것을 통해, 'ㄱ'이 음절 끝의 자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웃이' [웁]으로, '빛이' [빔]으로 발음되는 것을 통해 'ㄷ'이 음절 끝의 자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밖'은 [박]으로, '밑'은 [밈]으로 발음됨을 알 수 있으므로 ㉡에 추가할 음운 변동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부엌'은 [부억]으로 발음되어 음절 끝의 자음이 'ㄱ'에서 [ㄱ]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간, 달, 섬, 창'은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웃, 빛'은 각각 [웁], [빔]으로 발음되므로, 음절 끝의 자음이 여사소리일 때에도 바뀔 수 있다. '간, 달, 섬, 창'을 볼 때, 음절 끝의 자음이 율림소리일 때 음절 끝의 자음이 안 바뀔 수 있다. ③ '부엌'은 [부억]으로, '웃'과 '빛'은 각각 [웁], [빔]으로, '앞'은 [압]으로 발음되므로,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뀔 수 있다. ⑤ 제시된 예를 통해 우리말의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깍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깍는]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깡는]이 된다(㉠). '값만'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갑만]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감만]이 된다(㉡).

오답 해설 ② '끝물'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끝물]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꼰물]이 된다. 하지만 '값'은 된소리되기 때문에 [갑만]이 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옴'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옴]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옴]이 된다. 그런데 '듣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고 비음화가 일어나 [튼]이 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술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술내]가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순내]가 된다. 그런데 '얕은'은 'ㅎ'이 탈락하여 [다른]이 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얕마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얕마당]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얕마당]이 된다. 하지만 '값'은 된소리되기 때문에 [갑]이 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03 '달나라'는 ㉠이 적용되어 [달라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논리'는 ㉠이 적용되어 'ㄴ'이 'ㄹ' 앞에서 [ㄴ]로 바뀌어 [놀리]로 발음된다. ② '실눈'은 ㉡이 적용되어 'ㄴ'이 'ㄹ' 뒤에서 [ㄴ]로 바뀌어 [실룬]으로 발음된다. ③ '상견례'는 ㉡이 적용되어 'ㄹ'이 'ㄴ' 뒤에서 [ㄴ]으로 바뀌어 [상견네]로 발음된다. ④ '물난리'는 ㉠과 ㉡이 모두 적용되어 'ㄴ'이 'ㄹ'의 앞과 뒤에서 [ㄴ]로 발음된다.

- 04 ㉠은 비음화, ㉡은 유음화에 해당한다. '반는다'가 [반는다]로 발음되는 것은 'ㄷ'이 비음 'ㄴ'의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는 것으로 ㉠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라산'이 [할라산]으로 발음되는 것

은 비음 ‘ㄴ’이 유음 ‘ㄹ’ 앞에서 ‘ㄹ’로 바뀌는 것으로 ㉠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밤물’이 [밤물]로 발음되는 것은 ㉠에 해당하지만, ‘여덟’이 [여덟]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것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날’이 [설날]로 발음되는 것은 ㉠에 해당하지만, ‘밥상’이 [밥쌩]으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의한 것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잡는’이 [잡는]으로 발음되거나 ‘막내’가 [망내]로 발음되는 것은 ㉠에 해당한다. ④ ‘난로’가 [날로]로 발음되거나 ‘컬리’가 [컬리]로 발음되는 것은 ㉠에 해당한다.

- 05 ‘만날수록’은 ‘만나다’의 어간 ‘만나-’에 ‘-ㄹ’로 시작되는 어미 ‘-ㄴ수룩’이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의 규정을 적용하여 [만날쑤룩]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국밥’은 받침 ‘ㄱ’ 뒤에 ‘ㅂ’이 연결되므로, ㉠에 따라 [국뽵]으로 발음한다. ② ‘넙게’는 어간 받침 ‘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가 ‘ㄱ’이므로 ㉠에 따라 [넙게]로 발음한다. ③ ‘웁기다’는 기본형 ‘웁다’의 어간 ‘웁-’에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이므로 ㉠에 따라 [웁기다]로 발음한다. ④ ‘살 집’은 관형사형 ‘-(으)ㄹ’ 뒤에 ‘ㄷ’이 연결되므로 ㉠에 따라 [살집]으로 발음한다.

- 06 ‘흙덩이’는 ‘흙’의 ‘ㄹ’이 탈락하고(자음군 단순화) ‘ㄷ’이 ‘ㄲ’으로 교체되어(된소리되기) [흙덩이]로 발음되므로 교체와 탈락이 모두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웃고름’은 ‘ㅅ’이 ‘ㄷ’으로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된 후, ‘ㄱ’이 ‘ㄴ’으로 바뀌어(된소리되기) [온 꼬름]으로 발음되므로 교체만 일어난다. ③ ‘빨강다’는 ‘ㅎ’과 ‘ㄷ’이 ‘ㅌ’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빨가타]로 발음된다. 교체와 탈락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④ ‘숨이불’은 ‘ㄴ’이 첨가되어 [숨:니불]로 발음된다. 교체와 탈락 둘 다 일어나지 않는다. ⑤ ‘광한루’는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에 의해 ‘ㄹ’로 바뀌는 교체(유음화)만 일어난다.

- 07 ‘끝인사’는 ‘ㅌ’ 뒤에 실질 형태소 ‘인사’가, ‘발이랑’은 ‘ㅌ’ 뒤에 실질 형태소 ‘이랑’이 온 것으로, 이를 통해 ‘ㄷ’, ‘ㅌ’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오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의 ‘굴이, 갈이’를 통해 받침이 ‘ㄷ’이나 ‘ㅌ’일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발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발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구개음화는 ‘ㅌ’이 특정한 모음인 ‘ㅣ’와 만날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③ ㉠의 ‘물히다, 견히다’ 모두 ‘ㄷ’ 뒤에 ‘ㅎ’이 와서 [무티다], [거티다]로 축약된 다음 [무치다], [거치다]로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있다. ④ ㉠의 ‘잔디’와 ‘견디다’의 ‘디’는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있다. 이와 달리 ㉠에서 모음 ‘ㅣ’는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있지 않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 08 ‘그려’는 ‘그리다’의 ‘그리-’가 ‘-어’와 만나 이루어진, 즉 어간의 말음 ‘ㅣ’와 어미 ‘ㄴ’이 만나 ‘ㄴ’이 된 것이다. 따라서 ‘그려’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ㄴ 탈락’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해설 ① ‘고프- + -았-’이 ‘고팠’이 될 때 어간 ‘고프-’의 말음 ‘ㄴ’이 탈락하였다. ② ‘슬프- + -았-’이 ‘슬팠’이 될 때 어간 ‘슬프-’의 말음 ‘ㄴ’이 탈락하였다. ③ ‘아프- + -았-’이 ‘아팠’이 될 때 어간 ‘아프-’의 말음 ‘ㄴ’이 탈락하였다. ⑤ ‘바쁘- + -았-’이 ‘바빠’가 될 때 어간 ‘바쁘-’의 말음 ‘ㄴ’이 탈락하였다.

- 09 ㉠을 보면 ‘ㅎ’이 탈락하여 [너어], [노아]로 발음되더라도 표기는 ‘넣어, 놓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를 통해 동일 음운이 탈락하면 발음에 따라 표기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를 통해서 ‘ㅌ/ㄴ’이 탈락하면 표기에 반영됨을 알 수 있지만, ㉡를 통해서 ‘ㅎ’이 탈락하여 발음되더라도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갈다’가 활용할 때 ‘갈-’에서 ‘ㄹ’이 탈락하였다. ② ‘말 + 소’의 합성어 ‘마소’에서 ‘ㄹ’이 탈락하였고, ‘바늘 + 잘’의 파생어 ‘바느질’에서 ‘바늘’의 ‘ㄹ’이 탈락하였다. ③ ‘늘-’과 ‘놓-’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여 발음된다. ④ ‘가-’의 ‘ㅌ’와 뒤에 연결된 ‘-아서’의 ‘ㅌ’가 동일 모음이므로 하나가 탈락하여 [가서]로 발음된다.

- 10 ‘얹고[안코]’는 ‘ㅎ(ㅈ)’ 뒤에 ‘ㄴ’이 결합되어 [크]로 발음되는 경우로, 이는 ㉠이 아니라 ㉡에 따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썰지[싸치]’는 ‘ㅎ’ 뒤에 ‘ㄷ’이 결합되어 [치]로 발음되는 경우로 ㉠에 해당한다. ② ‘얹도록[달로록]’은 ‘ㅎ(ㅈ)’ 뒤에 ‘ㄷ’이 결합되어 [티]로 발음되는 경우로 ㉠에 해당한다. ③ ‘달네[단네]’는 ‘ㅎ’ 뒤에 ‘ㄴ’이 결합되어 ‘ㅎ’이 [니]로 발음되는 경우로, ㉠에 해당한다. ④ ‘놓인다[노인다]’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어 ‘ㅎ’을 발음하지 않는 경우로, ㉠에 해당한다.

- 11 제10항의 다만에서 ‘뺄-’은 자음 앞에서 [뺌]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뺄게’는 [뺌게]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제10항에서 겹받침 ‘ㅌ’은 자음 앞에서 [니]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제11항에서 겹받침 ‘ㅍ’은 자음 앞에서 [미]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제14항에서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제14항에서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12 ㉠에서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르]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의 규정에 따라 ‘뭉게’는 [물게]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서 ‘ㄹ’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의 규정에 따라 ‘흙이’는 [홀기]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뺄게[뺌게]’는 ‘ㄹ’이 용언의 어간 말음에 해당하고 ‘ㄱ’ 앞에서 [르]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라 할 수 있다. ② ‘빨대[박파]’는 ‘ㄹ’이 자음인 ‘ㄷ’ 앞에서 [르]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라 할 수 있다. ③ ‘달 앞에’는 ‘ㄹ’ 뒤에 모음 ‘ㅏ’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었으므로, ㉠에 따라 겹받침 중 하나인 ‘ㄱ’을 옮겨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다가페]로 발음해야 한다. ④ ‘뺄기[뺌기]’는 ‘ㄹ’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가 아니라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인 ‘-기’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뒤엿것인 ‘ㄱ’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할 수 없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라 ㉠에 해당하는 예이다.

- 13 ‘쌍던’은 거센소리되기(적용되어 [쌍턴])로 발음되며, 거센소리되기는 음운 변동의 유형 중 축약에 해당한다.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일고’는 어간 말 ‘ㅎ’과 어미의 첫소리 ‘ㄱ’이 결합하여 ‘크’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적용되어 [일코])로 발음된다. ③ ‘끓이다’는 어간 ‘끓-’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경우로, ‘ㅎ’이 탈락하고 ‘ㄹ’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되어 [꼬리다]로 발음된다. ④ ‘침하교[치카고]’는 겹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하고 ‘ㄱ’과 ‘ㅎ’이 만나 ‘크’로 바뀌는 축약이 일어난다. ‘하침은[하차는]’은 ‘ㅎ’ 탈락이 일어난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탈락이다. ⑤ ‘먹히대[머키다]’는 ‘ㄱ’과 ‘ㅎ’이 만나 ‘크’로 바뀌는 축약이 일어나고, ‘끓고서[끈코서]’는 ‘ㅎ’과 ‘ㄱ’이 만나 ‘크’로 바뀌는 축약이 일어난다. 따라서 각각 음운 변동이 한 번씩만 일어난 것이다.

- 14 <보기 1>의 제18항은 비음화, 제29항은 ‘ㄴ’ 첨가에 대한 것이다. ㉠의 ‘막일’은 [막닐](제29항) → [망닐](제18항)로, ㉡의 ‘색연필’은 [색년필](제29항) → [생년필](제18항)로 바뀌어 발음된다. 따라서 ‘막일’과 ‘색연필’은 <보기 1>의 두 조항이 모두 적용되었다.

오답 해설 ㉡의 ‘숨이불’은 [숨:니불]로 발음되므로 제29항이 적용된 사례이고, ㉠의 ‘직행열차’는 [지강별차]로 발음되므로 제29항과 거센소리되기(적용된 사례)이다. 따라서 ㉠과 ㉡에는 제18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 15 <보기>의 ㄱ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ㄴ은 ‘ㄴ’ 첨가, ㄷ은 된소리되기(교체), ㄹ은 거센소리되기(축약)와 구개음화의 예이

다. ‘달히다’는 비음화에 의해 [단는다]로 발음되므로 ‘달히다’와 같은 예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홀이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홀이불]로 바뀐 뒤 ‘ㄴ’이 첨가되어 [홀니불]로 발음되므로, ㄱ과 ㄴ이 모두 일어난 예라 할 수 있다. ② ㄱ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ㄷ은 된소리되기에 해당하므로, ㄱ과 ㄷ은 모두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다. ③ ‘갸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간다]로 바뀐 뒤, 된소리되기에 따라 [간따]로 발음되므로, ㄱ과 ㄷ이 모두 일어난 예라 할 수 있다. ④ ㄹ의 ‘축하[추카]’는 ‘ㄱ’과 ‘ㅎ’이 축약되어 ‘ㄱ’으로 바뀌므로 자음 축약에 해당한다. ‘달히다’는 자음 축약에 의해 [다티다] 구개음화에 의해 [다치다]로 발음된다.

- 16 ‘폴잎’은 ‘ㄴ’ 첨가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폴닙]으로 바뀐 후, 다시 유음화의 적용을 받아 [폴립]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나타난 경우(㉠)에 해당한다. ‘물난리’는 둘째 음절 첫소리 ‘ㄴ’과 끝소리 ‘ㄴ’이 각각 앞뒤에 있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모두 유음으로 바뀌어 [물랄리]로 발음된다. 따라서 같은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나타난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합박눈[합방눈]’은 비음화 한 가지만 나타나므로 ㉠과 ㉡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꽃밭[꼇밭]’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줄넘기[줄림기]’는 유음화와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날날이[날나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구개음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 사례에 해당한다.

- 17 ‘넙히다’는 ‘ㄴ’과 ‘ㅎ’이 결합하여 ‘ㄹ’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음운이 줄어들었으므로 음운 개수에 변화가 있다.

오답 해설 ② ‘살살이’는 ‘ㄷ’이 ‘ㄸ’으로 교체되고, ‘ㅅ’이 ‘ㅆ’으로 교체되며, ‘ㅌ’이 ‘ㄴ’ 앞에서 ‘ㄷ’으로 교체되어, 음운의 개수는 변화가 없다. ③ ‘교육열’은 ‘ㄴ’이 첨가되고,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음운이 늘어났다. ④ ‘국화꽃’은 ‘ㄱ’과 ‘ㅎ’이 결합하여 ‘ㄱ’으로 축약되고, ‘ㅌ’이 ‘ㄷ’으로 교체되어, 음운이 줄어들었다. ⑤ ‘해맑다’는 ‘ㄹ’이 탈락하고, ‘ㄷ’이 ‘ㅌ’으로 교체되어, 음운이 줄어들었다.

- 18 학습 자료 ㄱ~ㄷ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분석하면 ‘목하숨[모과숨]’은 ‘ㄱ’과 ‘ㅎ’이 합쳐져 ‘ㄱ’이 되는 축약이 1회 나타나고, ‘흙덩이[흑명이]’는 ‘ㄷ’에서 ‘ㄹ’이 탈락하는 탈락 1회와 ‘ㄷ’이 ‘ㄹ’으로 교체되는 교체 1회가 나타나며 ‘새벽이슬[새병이슬]’은 ‘ㄴ’이 첨가되는 첨가 1회,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 교체 1회가 나타난다. 따라서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ㄱ에만 ‘예’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두 개의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없어지는 것은 탈락이 일어난 나쁜이므로 ㄷ은 ‘아니요’라고 답해야 한다. ② 기존에 있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은 교체로, ㄴ과 ㄷ에 모두 교체가 나타나므로 ㄷ에도 ‘예’라고 답해야 한다. ④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것은 첨가로, ㄱ에는 첨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ㄱ은 ‘아니요’라고 답해야 한다. ⑤ ㄱ은 음운 변동이 1회만 일어났으므로 ㄱ은 ‘아니요’라고 답해야 하며, ㄴ은 음운 변동이 2회 일어났으므로 ㄴ은 ‘예’라고 답해야 한다.

- 19 ‘날날이’에서 첫 글자인 ‘날’이 [날]으로 발음된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또한 [날:날이]가 [날:나치]가 된 것은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날:나치]가 [날:나치]로 된 것은 ‘ㄷ’이 ‘ㄴ’과 만나 ‘ㄴ’으로 동화된 것이므로 비음화에 해당한다.

- 20 ‘닭만’은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ㄱ’이 ‘ㄷ’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적용되어 [당만]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맑지’는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ㅅ’이 ‘ㅆ’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막찌]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끓는’은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가 적용되어 [폴른]으로 발음되며, ‘끓고’는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음꼬]로 발음된다. ③ ‘밝혀’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발켜]로 발음되고, ‘덜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덜찌]로 발음된다. ④ ‘젊어’는 ‘ㄹ’이 뒤 음절로 연음되어 [절머]로 발음되며, ‘짧지’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에 의해 [짧찌]로 발음된다. ⑤ ‘밟는’은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에 의해 [밟:는]으로 발음되며, ‘깎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에 의해 [깎따]로 발음된다.

- 21 <보기>의 ㉠은 첨가, ㉡은 교체, ㉢은 탈락, ㉣은 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물엿[물려]’은 ‘ㄴ’이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교체되었으며, ‘ㅅ’은 ‘ㄷ’으로 교체되었다. 또한 ‘발이랑[반니랑]’은 ‘ㅌ’이 ‘ㄷ’으로 교체된 후 ‘ㄴ’이 첨가되었고 ‘ㄴ’에 의해 ‘ㄷ’이 ‘ㄴ’으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물엿[물려]’과 ‘발이랑[반니랑]’은 ㉠과 ㉡이 함께 일어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독립[동립]’은 교체(㉡)만 일어난다. ‘콩엿[콩넛]’은 ㉠과 ㉡이 함께 일어난다. ② ‘밥상[밥쌕]’은 ㉡이 일어나지만 ‘입혀[입싸]’는 축약(㉣)이 일어난다. ③ ‘축하[추카]’는 ㉣이 일어나지만 ‘안는다[안는다]’는 축약(㉣)이 일어나지 않고 탈락(㉢)이 일어난다. ⑤ ‘음조리다[음조리다]’는 ㉠과 ㉡이 함께 일어나지만 ‘웃웃하다[꼴꾸다]’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난다.

- 22 ㉠의 ‘끓는’은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끓는]으로 바뀐 후 유음화되어 [끌른]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뒤의 자음인 ‘ㄴ’이 앞의 자음인 ‘ㄹ’에 동화된 것이다. 반면 ㉡의 ‘홀이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에 의해 [홀니불]이 된 후 비음화에 의해 [홀니불]로 발음되는데, 이는 앞의 자음인 ‘ㄷ’이 뒤의 자음인 ‘ㄴ’에 동화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닭장’의 겹받침 중 ‘ㄹ’이 탈락하였고, ㉡에서도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끓는’의 겹받침 중 ‘ㅎ’이 탈락하였는데, 이는 모두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③ ㉠에서 탈락된 음운은 ‘ㄹ’이고 ㉡에서 첨가된 음운은 ‘ㄴ’이므로 서로 다르다. ④ ㉡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 개수가 7개에서 8개로 1개가 늘었고, ㉠, ㉡에서는 음운 개수가 7개에서 6개로 1개가 줄었다. ⑤ ㉠은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이 유음으로 바뀌고, ㉡은 파열음 ‘ㄷ’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졌다. ㉠에서 ‘ㄱ’은 파열음이고 ‘ㅆ’은 파찰음으로 조음 방법이 같지 않다.

- 23 ‘백로’는 ‘ㄹ’이 ‘ㄴ’으로 바뀌어 [백노]로 발음된 뒤, ‘ㄱ’이 ‘ㅇ’으로 바뀌어 [뱅노]로 발음된다. 따라서 ‘백노’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방법만 두 번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말이’는 ‘ㄷ’이 ‘ㅌ’으로 바뀌어 [마지]로 발음되므로, ‘말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 모두가 변한다. ② ‘향로’는 ‘ㄹ’이 ‘ㄴ’으로 바뀌어 [향노]로 발음되므로, ‘향로’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방법만 한 번 변한다. ③ ‘국민’은 ‘ㄱ’이 ‘ㅇ’으로 바뀌어 [궁민]으로 발음되므로, ‘국민’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방법만 한 번 변한다. ④ ‘섭리’는 ‘ㄹ’이 ‘ㄴ’으로 바뀌어 [섭니]로 발음된 뒤, 다시 ‘ㅌ’이 ‘ㄷ’으로 바뀌어 [섭니]로 발음된다. 따라서 ‘섭리’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방법만 두 번 변한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08~109쪽

- 01 ㉠: 축약, ㉡: 교체, ㉢: 탈락, ㉣: 첨가 02 ㉠은 ‘ㄴ’ 첨가와 유음화가 일어나고, ㉡은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 ㉡은 음운이 교체되고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난다. 03 ㉢는 [바테]로 발음되고, ㉣는 [꼬

치로 발음된다. 이는 ㉓, ㉔의 ‘발’과 ‘꽃’ 뒤에 형식 형태소가 와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고 연음되었기 때문이다. 04 ㉓는 [신기다]로, ㉔는 [넌계]로, ㉕는 [닥짱]으로 발음된다. 이 중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㉓로, ‘-기-’가 사동 접미사이기 때문이다. 05 ㉕에서는 받침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㉔에서는 받침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를 만났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06 ㉕에서는 탈락이, ㉔에서는 축약이 일어난다. 이로 볼 때, 받침 ‘ㅎ’은 탈락하기도 하고, 자음과 축약되어 거센소리되기도 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01 ‘국화[구화]’는 ‘ㄱ’이 ‘ㅎ’과 만나서 [ㅋ]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축약에 해당한다. ‘실내화[실래화]’는 비음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쌍이다[싸이다]’는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받침 ‘ㅎ’이 탈락하는 ‘ㅎ’ 탈락이 일어나므로 탈락에 해당한다. ‘식용유[시공뉴]’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 음이 덧붙여 발음되는 ‘ㄴ’ 첨가가 일어나므로 첨가에 해당한다.
- 02 ㉑은 ‘ㄴ’이 첨가되어 [알냐]로 바뀐 뒤, 유음화가 일어나 [알랴]로 발음된다. 그리고 ㉒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극는다]로 바뀐 뒤, 비음화가 일어나 [궁는다]로 발음된다. 따라서 ㉑과 ㉒은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나는 단어로, 음운 변동 과정에서 교체가 공통적으로 일어난다.
- 03 <보기>를 통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면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㉑과 ㉒은 ‘발’과 ‘꽃’ 뒤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가 와서 [바테], [꼬치]로 발음되는데, 이는 연음되어 발음된 것이므로 음운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
- 04 ㉓는 [신기다]로 발음된다. 제24항의 다만에서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신기다’의 ‘-기-’가 사동 접미사이다. 그리고 ㉔는 제24항에 따라 [넌계]로 발음됨을 알 수 있고, ㉕는 제23항에 따라 [닥짱]으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
- 05 ㉑의 ‘미닫이’와 ‘붙이다’는 모두 받침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미다지], [부치다]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㉒의 ‘곧이어’, ‘발이랑’은 모두 받침 ‘ㄷ, ㅌ’의 뒤에 모음 ‘ㅣ’가 결합되지만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곧이어’의 ‘이어’와 ‘발이랑’의 ‘이랑’이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 06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는 받침 ‘ㅎ’이 탈락하는데, ㉑에 제시된 것은 이러한 ‘ㅎ’ 탈락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ㄱ, ㄷ, ㅌ, ㅈ’이 ‘ㅎ’과 만나서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거센소리되기라고 하는데, ㉒에 제시된 것은 이러한 ‘ㅎ’의 축약을 보여 주는 것이다.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2 음운의 변동 중 첨가는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 변화가 있지만, 교체는 다른 음운으로 바뀌므로 전체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탈락과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 06 ‘남루’는 비음 ‘ㄴ’ 뒤의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 09 구개음화는 받침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런데 ‘곧이어[고디어]’와 같이 받침 ‘ㄷ, ㅌ’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에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 11 자음군 단순화에서는 대체로 겹받침 ‘ㄲ, ㄴㄲ, ㄷ, ㄸ, ㅌ, ㅊ, ㅍ, ㅑ, ㅕ, ㅖ’은 뒤의 자음이 탈락하여 각각 [ㄱ, ㄴ, ㄷ, ㅌ]으로 발음되고, 겹받침 ‘ㄹ, ㅍ, ㅑ, ㅕ, ㅖ’은 앞선 자음이 탈락하여 각각 [ㄱ, ㅍ, ㅑ, ㅕ, ㅖ]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자음군 단순화에서는 앞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와 뒤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14 ‘향로’는 비음 ‘ㅇ’ 뒤의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 19 ‘달히고’는 축약(거센소리되기)으로 [다티고]로 바뀐 뒤, 다시 교체(구개음화)가 일어나 [다치고]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난다.

(2) 대화의 원리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14~119쪽

-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④ 06 ④ 07 ④ 08 ④
09 ② 10 ④ 11 ② 12 ⑤ 13 ⑤ 14 ③ 15 ② 16 ③
17 ② 18 ⑤

- 01 <보기>에서 준서는 축구 경기를 같이 보러 갈지 묻는 자연의 말에 어제 저녁에 본 야구 경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는 대화의 화제에서 벗어난 말하기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자연이 협력의 원리를 어기고 있지는 않다. ③ 준서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준서가 애매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02 <보기>에서 민지는 뮤지컬을 보러 가자는 정아의 제안에 직접적으로 뮤지컬을 보러 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대신, 오늘 자신이 할 일이 많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어김으로써 거절의 뜻을 완곡하게 전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아도 이러한 민지의 말하기 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정아는 대화상 함축된 의미를 찾아 민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민지는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으며, 질의 격률은 어기지 않았다. ② 정아는 뮤지컬을 보러 가자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민지는 뮤지컬을 보러 갈 시간이 없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지만, 정아가 말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④ 협력의 원리를 어긴 것은 민지로 정아가 아니다. 또한 효율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03 방학식이 언제냐는 선미의 질문에 철수는 정확하게 7월 28일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오늘 날짜를 묻는 질문에 성문은 어제 날짜까지 말하고 있으므로 양의 격률을 어겼다. ② 저녁 메뉴에 대한 질문에 해은은 모호하게 대답하고 있으므로 태도의 격률을 어겼다. ④ 옷의 가격에 대한 질문에 점원은 모호한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태도의 격률을 어겼다. ⑤ 민서는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겼다.

- 04 <보기>에서 지수가 2인 3각 경기에 같이 나가자는 말에 민지는 자신의 생일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화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이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또한 선호는 지수의 말에 2인 3각 경기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 05 재판장의 말을 통해 승준은 대화 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승준이 대화 참여자들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06 윤주는 라온의 부주의로 유출된 개인 정보가 4천만 건이라고 하면서 '전 국민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전 국민'이 아니라 '전 국민의 80%'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윤주는 명료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태도의 격률' 중 '명료하지 않은 표현을 피하라.'를 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7 체면 유지의 원리뿐만 아니라 공손성의 원리도 지키지 않으면 가까운 사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태리의 말을 통해, 의문형의 간접적인 말을 하더라도 청자는 정중하지 않은 불쾌한 말로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주고받는 말이란 ~ 화자가 청자에게 말하는 태도와 관련되는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가치나 존재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유지되기도 하고 손상되기도 한다.'와 제시된 지호와 연수의 사례를 통해, 화자가 체면 유지의 원리를 위배하면 청자는 자신의 가치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공손성의 원리는 상대방과의 대인 관계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현하려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체면을 세우는 원리인 체면 유지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08 <보기>의 김 대리는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겸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 09 관용의 격률은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보기>에서 정아는 자신이 부주의해서 잘 듣지 못했이라며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고 있으므로 관용의 격률에 해당한다.

- 10 <보기>에서 연경은 자신이 맡은 조별 과제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이를 조장인 성준에게 부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경은 성준에게 "네가 조장인데 당연히 네가 해야지.", "너는 책임감도 없냐?"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성준은 기분이 상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경은 자신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성준에게 부담감을 주는 말과 성준의 체면을 손상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1 <보기>에서 강 코치는 기범을 자신의 팀으로 데려오기 위해, "니 중앙고로 오면 바로 주전으로 뛰게 해 줄게."라고 함으로써 기범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범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강 코치는 기범이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기범을 꺾어내려는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기범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강 코치는 "어차피 니 불러 주는 데도 별로 없다가네."라며 기범을 꺾어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기범은 "아닌데에, 불러 주는 데 많습니다."라며 응수하고 있다. 따라서 기범은 자신을 꺾어내리는 강 코치의 말에 기분이 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기범은 자신의 팀으로 오라는 강 코치의 제안에 "땀 데 가서 알아 보아소."라고 거절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⑤ <보기>는 강 코치와 기범이 대화하는 상황으로, 기범을 자신의 팀으로 데려오기 위해 설득하는 강 코치와 이를 거절하는 기범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12 '꾸안꾸', '최애색'은 줄임말로, 오늘날의 담화 관습에 해당한다.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점원은 '아이템', '레이어드', '캐주얼'이라는 외국어를 과도하게 혼용하여 말하고 있다. ②, ④ '꾸안꾸'는 '꾸민 듯 안 꾸민 듯'의 줄임말, '최애색'은 '최고로 좋아하는 색'의 줄임말에 해당한다. 이러한 줄임말은 오늘날 나타난 신조어로, 이러한 신조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사람에게 이를 사용할 경우 세대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제 최애색이라 마음에 들어요."라는 손님들의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엿볼 수 있다.

- 13 ㉠은 '여(女)'를 접두사로 사용하여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드러내는 말이고, ㉡는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말에 해당한다. 따라서 ㉡는 장애인들을 소외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 특정 집단의 사람들만을 존중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④ ㉔, ㉕는 과거에 사용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특정한 담화 관습이 반영된 말로, 평등과 인권 존중을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는 맞지 않는 차별적인 말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개선되어야 하는 특정한 담화 관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14 <보기>를 통해 완곡 어법은 상대의 감정이 상할까 염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애들러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없을 때 직접적으로 살 물건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패장을 더 둘러보겠다고 표현함으로써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완곡 어법을 사용한 예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자신의 부탁이나 생각을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④ '미역국 먹다'라는 관용 표현을 사용한 예에 해당한다.

- 15 <보기>에서 '차린 건 없지만', '제 요리 솜씨가 너무 형편없어서' 등의 말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하는 전통적인 담화 관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16 '관습이라는 이유로 지난날의 특정한 담화 관습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거나,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담화 관습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를 통해, 전통적인 담화 관습 중에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오늘날의 담화 관습과 관련된 내용이다. ④ 전통적인 담화 관습 중에는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담화 관습도 많다. ⑤ 전통적인 담화 관습 중 '실색'이라는 표현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소외시킬 우려가 있지만 전통적인 담화 관습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소외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 17 <보기>에서 경민은 아버지의 제안에 대해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가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고, 경아는 경민의 말을 듣고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엿볼 수 있다.

- 18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는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로, 말을 삼가는 것과 거리가 먼 속담이다.

오답 해설 ① 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받게 되니 말조심을 하라는 말 ② 말은 비록 밭이 없지만 천 리 뵈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으면 그만큼 쓸 말은 적어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라는 말 ④ 아무리 비밀히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로,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

심화 복습 문제

본문 120~125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④

05 ③

06 ①

07 ③

08 ①

09 ③

10 ①

11 ②

12 ⑤

13 ③

14 ④

15 ④

16 ②

- 01 <보기>에서 경수는 농구를 하러 가자는 민기의 제안에 직접적으로 농구하러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대신, 내일 한자 급수 시험이 있는데 외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는 협

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어김으로써 거절의 뜻을 완곡하게 전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기도 이러한 경수의 말하기 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협력의 원리를 어진 경수의 태도를 지적하지는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경수는 대화의 화제와 관련 없는 한자 급수 시험에 대해 말하여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이는 농구하러 갈 수 없다는 의도를 함축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③ 민기는 경수의 말에 담긴, 농구하러 갈 수 없다는 함축된 의미를 찾아 경수의 마음을 헤아리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 02 <보기>에서 축구를 잘하느냐는 화성의 말에, 동희는 자신이 축구를 잘한다는 말을 필요 이상의 정보와 함께 전달하고 있다. 이는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을 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03 ⑤에서 A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협력의 원리가 아니라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B는 A의 질문에 모호하게 대답하여 태도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③ B는 대화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말하여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④ B는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 04 ㉓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부장의 제안에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지 않고 모호하게 말하고 있어 태도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그리고 저녁을 같이 할 것인지의 대화 주제와 관련 없는 신입 사원에 대한 말을 함으로써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또한 필요한 정보, 즉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외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 05 윤주가 라온의 부주의로 유출된 개인 정보가 4천만 건이라고 하면서, 전 국민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자, 재판장은 '전 국민'이 아니라 '전 국민의 80%'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판장은 윤주에게 정확한 표현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보기>에서 재판장은 승준에게 에이피티 공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승준의 말이 대화의 화제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하지는 않고 있다. ② <보기>에서 승준은 대화 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⑤ <보기>에서 윤주가 말한 '라온의 부주의로 유출된 개인 정보가 무려 4천만 건입니다.'는 이어지는 재판장의 말을 통해서도 충분한 근거임을 알 수 있다.

- 06 (가)에서 민아는 '시간이 괜찮으면'이라는 말과 의문문 형식을 사용하여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놀이공원에 가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민아는 요령의 격률을 사용하고 있다. (나)에서 손님은 주인에게 집이 정돈이 잘 되어 있고 살림 솜씨가 대단하다며 칭찬을 극대화하고 있으므로 칭찬의 격률을 사용하고 있다.

- 07 (가)에서 민지는 명수가 칭찬을 하자 "내가 원래 잘 그리긴 하지."라며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 경수는 선생님의 칭찬에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원래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거든요."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민지와 (나)의 경수 모두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라는 겸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8 "내가 조장인데 당연히 네가 해야지."에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

는 표현을 사용하여 요령의 격를 어기고 있고, “너는 책임감도 없냐?”에서는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칭찬의 격를 어기고 있다.

- 09 ③은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라 연수의 체면을 세워 주기 위해 ‘너도 짐이 있어 힘들겠지만’이라고 연수의 입장을 고려한 뒤 ‘도와줄 수 있겠니?’와 같이 의향을 묻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른 말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④ 자신의 짐을 들이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연수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② 연수의 짐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연수에게 자신의 짐을 나눠 줄 것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연수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연수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다.

- 10 “니 중앙고로 오른 바로 주전으로 뛰게 해 줄게.”, “선수는 자꾸 경기를 뛰 봐야 실력이 는다 아이가.”에서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리고 있으므로 요령의 격를 지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니 불러 주는 데도 별로 없다카데.”, “그캐도 판 데 가든 주전 뛰기는 쉽지 않을 기다.”에서는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려야 한다는 칭찬의 격를 위반하고 있다.

- 11 기범이 강 코치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면서 비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기범은 강 코치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강 코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③ 기범은 강 코치가 프로 2군 출신에 코치 경력도 없다는 점 등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④, ⑤ 기범은 “판 데 가서 알아보이쇼”라고 강 코치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강 코치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들은 강 코치는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12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받게 되니 말조심을 하라는 말,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말은 비록 말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모두 말을 삼가라는 의미를 지닌 전통적인 담화 관습에 해당하는 속담이다. 이는 말을 조심하라는 의미이지,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과 마음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 13 ‘킹받네’는 ‘열받다’라는 단어와 ‘킹’을 합친 신조어로, 열받는 상황을 더욱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희는 ‘킹받네’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므로, 과묵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전통적 담화 관습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진희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친구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② 진희는 ‘화 내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친구들이 자신이 가지고 한 곳을 거절하는 데서 오는 화난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정민은 진희의 제안에 외국어인 ‘노노’를 사용하여 거절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경아의 ‘노잼’과 정민의 ‘억까’는 줄임말에 해당하는 신조어이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아의 ‘노잼’과 정민의 ‘억까’는 일상생활에 퍼진 새로운 담화 관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4 <보기>를 통해 겸양 어법은 자신을 낮추어 공손하게 표현함으로써 예의를 지키는 담화 관습임을 알 수 있다. ④에서는 축하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공을 드러내기보다는 ‘제가 뭐 한 일이 있나

요?’라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도움과 염려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겸양 어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말하기에 해당한다. ②, ⑤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요청하는 말하기에 해당한다.

- 15 (가)에서 글쓴이는 옆집 할아버지에게 ‘생파’ 간다고 하니까, 이를 먹는 ‘파’로 이해하여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에서 민주는 할머니가 ‘똥강아지’라고 부르자 더러운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했다가,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과 대화할 때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에서는 민주가 할머니 세대의 말하기 방식을 잘 알지 못해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 언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공통적인 이유는 세대 차이로 인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세대 차이로 인한 문제이지 개인주의적 세대와는 관련이 없다. ② 성별에 따른 언어적 차이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③ (가)에만 해당되는 이유이다. (가)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를 고려하지 않고 ‘생파’라는 줄임말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⑤ (가)는 옆집 할아버지와 대화이므로 가족 간의 성향 문제로 볼 수 없으며, (나)에서도 서로의 관심사가 상이하여 생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 16 ㉠은 전통적으로 말을 삼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말 문화를 드러내는 속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라는 뜻으로, 화는 입으로부터 생기므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구화지문(口禍之門)’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한 치의 쇠불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 ③ 입에는 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④ 거리나 향간에 떠도는 소문 ⑤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온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26~127쪽

- 01 승준은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서 양의 격를 어기고 있다. 그리고 윤주는 명료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태도의 격를 어기고 있다. 02 은정은 영화 보러 가지는 동수의 제안에 ‘나도 그 영화 보고 싶었어.’라고 상대와 일치하는 표현을 최대화하고 있으므로 동의의 격를 사 용되었다. 03 기범은 강 코치를 비하하고 있고, 강 코치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 04 전통적인 담화 관 습에는 말을 삼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말 문화가 있다. 05 줄임말을 많 이 사용하는 새로운 담화 관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세대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 01 <보기>의 재판장의 말을 통해 승준은 대화 참여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승준은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지 말라.’는 양의 격를 위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윤주는 유출된 개인 정보가 4천만 건임에도 ‘전 국민의 개인 정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장이 ‘전 국민’이 아니라 ‘전 국민의 80%’라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윤주는 명료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료하지 않은 표현을 피하라.’는 태도의 격를 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보기 2>에서 동수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은정은 자신도 그 영화를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은정의 말은 상대와 불일치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일치하는 표현은 최대화된 동의의 격률을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3 <보기>에서 기범은 “프로 2군 출신이라면서요, 코치 경력도 없고, 월급 100만 원이나 됩니까? 턱도 없지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강 코치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비하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범은 “판 데 가서 알아보이소.”라고 강 코치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기범은 체면 유지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4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받게 되니 말조심을 하라는 말이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말은 비록 말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말이다.

05 <보기>에서 윤서는 ‘생축(생일 축하), 생선(생일 선물), 생파(생일 파티)’ 등 줄여 쓴 말을 사용하고 있고, 강산은 ‘문풀(문же 풀이), 문상(문화 상품권), 절친(절친한 친구)’ 등 줄여 쓴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담화 관습에는 줄임말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줄임말을 일상에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다른 세대에서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OX로 마무리

본문 128~12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4 협력의 원리에는 양의 격률, 질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태도의 격률이 있다. ‘동의를 격률’은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08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최대화하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 중 겸양의 격률에 해당한다. 칭찬의 격률은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10 음식을 먹고 상대방에게 ‘우아, 정말 맛있어요! 요리 솜씨가 훌륭해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하는 것이므로 칭찬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동의의 격률은 상대와 자신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16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는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로, 말을 삼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전통적인 담화 관습의 사례라 할 수 없다.

18 ‘줄임말 같은 신조어의 사용, 외국어의 혼용’ 등은 오늘날에 급속하게 퍼진 새로운 담화 관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자 성어의 사용’은 전통적인 담화 관습에 해당한다.

4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힘

(1) 세상을 보는 눈, 논리

기출 심전 문제

본문 134~139쪽

01 ② 02 ③ 03 ① 04 ④ 05 ④ 06 ③ 07 ⑤ 08 ②
09 ⑤ 10 ② 11 ① 12 ③ 13 ① 14 ② 15 ② 16 ③
17 ⑤ 18 ④ 19 ③

01 ㄱ: 이 글은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한다.’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통해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ㄴ: (나)의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 정보를 나누고 있다.’와 (다)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 품이다.’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ㄴ: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하는가’라는 쟁점에 대해,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을 언급한 뒤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균형 있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ㄷ: 이 글은 쟁점에 대한 글쓰이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관점의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02 (가)에서 초연결성과 지역성의 관계에 대한 주장을 제시한 뒤, (나)~(라)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초연결성과 지역성의 관계에 대한 주장을 제시한 문단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② (나)에는 (가)에 제시된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나타나 있다. ④, ⑤ (다), (라)는 (가)에 제시된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 문단이다.

03 이 글은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하는가’라는 쟁점에 대해 ‘초연결 사회가 진행될수록 지역의 가치가 제한된 공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지기 때문에 오히려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에서 초연결성은 기존의 연결성을 약하게 만들어 지역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초연결성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것이라고 하였다. ③, ④ (다)와 (라)에서 초연결 사회에 접어들며 등장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이 지역성을 강화시키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지역의 가치를 더 중시하게 만든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거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⑤ 초연결 사회에 접어들며 등장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은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초연결 사회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시각은 드러나 있지 않다.

04 (다)와 (라)에서 초연결 사회에 접어들며 등장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발전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지리적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것이 초연결 사회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초연결성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기존의 연결성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역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와 (다)에서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라)에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은 해당 지역의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05** 인공지능 기반으로 수집된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특징이다.

오답 해설 ① (라)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까지 포함한 초연결망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은 그 양과 범위가 광대하고 다양하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③ (나)에서 초연결성은 특정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연결망도 형성하지만, 특정 지역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연결망을 형성하기도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초연결성은 개인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상호 연결성을 높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6**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은 높은 상호 연결성을 바탕으로 세밀한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민들은 이웃들과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한다.

- 07** ㉠은 주장에 대한 이유, 즉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쓴이의 견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반론에 해당한다. ② 반론의 타당성을 약화하는 것은 반박에 해당한다. ③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실제 사례나 통계 자료를 활용한 근거이다. ④ 쟁점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은 주장을 통해 드러난다.

- 08** 이 글은 초연결 사회에서 지역성은 어떤 양상을 보일지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여 증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 지역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초연결 사회에서 부각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④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상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을 뿐 사회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⑤ 초연결 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09** (라)는 (가)~(다)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글쓴이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새로운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쟁점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②, ③ (나)에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④ (다)에는 주장에 대한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이 제시되어 있다.

- 10** (가)의 ‘초연결성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 지역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에 쟁점에 대한 반대 입장이 나타나 있다. 또한 (다)의 ‘네트워크 연결의 고도화를 ~ 소멸될 것이라고 말한다.’에도 쟁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가 익명에 기반을 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에서 그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서론, (나), (다)는 본론, (라)는 결론으로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 반론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는 흐름으로 내용을 전개했다. ③ 주장에 대한 근거를 주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사례를 통해 제시했으므로 다양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통계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면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⑤ (다)에서 반론에 대한 반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11** (가)에서 ‘초연결성은 지역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물음에 대해 글쓴이는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초연결성이 동네 생활권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지는 않으며, 이것이 이 글의 쟁점도 아니다. ③ 초연결 사회에서 지역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를 통해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상호 연결성을 높여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이 글의 쟁점은 아니다. ⑤ (나)에서 초연결성을 통해 사람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예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들고 있다. 따라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이 초연결성을 통해 성장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것이 이 글의 쟁점은 아니다.

- 12**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은 개인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한다. 즉 지역민들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기존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④ (나)에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웃들과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초연결 사회의 고도화된 연결망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은 높은 상호 연결성을 바탕으로 세밀한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은 해당 지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지역 정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소통에서 느끼는 효능감이 크다고 하였다.

- 13** (다)에서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익명에 기반을 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여김을 알 수 있다. 즉 플랫폼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는 일시적, 형식적이므로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 ④ 초연결성이 네트워크 연결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거나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초연결성의 특성을 보여 줄 뿐 ㉠의 이유로는 볼 수 없다. ③, ⑤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 14** (라)에서 초연결성을 토대로 한 동네 생활권 기반 플랫폼들은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사람들을 연결하고 사회적으로 결합하도록 매개하고 있다고 한 것을 통해, 초연결 사회의 고도화된 연결망이 동네 생활권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게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다)에서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요소로 만든다고 하였다. ③~⑤ (가)에 나타나 있는 초연결 사회와 초연결성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글쓴이는 이로 인해 동네 생활권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는 ㉠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15** (가)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밝힌 뒤 (나), (다)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 (라)에서 반론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마)에서 논증한 내용을 요약하여 강조하고 있다.

- 16** (다)에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형성되는 동네 생활권은 고도화된 연결망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다)에서 초연결성을 통해 사람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초연결성은 특정 지역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연결망도 형성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역성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밀한 지역을 단위로 소속감, 친밀감, 애착심을 느끼며 ‘한 동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⑤ (마)에서 동네 생활권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들은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사람들을 연결하고 사회적으로 결합하도록 매개하고 있다고 하였다.

17 이 글에서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소통이 거래보다는 사람 간의 연결이 주가 된다는 것은 이 글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초연결성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게 해 준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준다는 특징이 이 글의 주장을 강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④ 초연결 사회의 단점이므로 이 글의 주장을 강화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글의 주장을 약화하는 견해이다.

18 이 글에서는 초연결성에 영향을 받은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이 긍정적인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보기>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통은 공동체적 특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소통만으로는 이상적인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즉 <보기>는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의 형성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는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성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이 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초연결성이 영구적인 지역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이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⑤ 이 글이 초연결성이 지역 공동체 바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 자신의 관점에 따라 논증을 재구성할 때는 우선 글쓴이가 어떤 관점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파악한 뒤 주장의 타당성, 적절성, 공정성 등을 검토하여 자신의 관점을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의 논증을 재구성할 때에는 우선 ㄱ과 ㄴ 중 하나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만약 ㄱ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 글의 주장을 입증하는 논증을 보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주장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주장을 바꾸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ㄴ의 경우에 해당한다.

심화 복습 문제

본문 140~143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④
05 ④
06 ①
07 ③
08 ①

09 ③

01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 중 근거는 실제 사례나 통계 자료와 같이 객관적인 성격의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과 ㉡이다.

오답 해설 ㉠: 장점과 관련한 화제의 개념과 특징으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쓴이의 견해이므로 이유에 해당한다. ㉢: 반론에 대한 반박에 해당한다.

02 (마)에서 글쓴이와 상반된 입장의 반론을 제시한 뒤 그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의 내용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초연결성이 직접 만나서 ~ 지역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에서 쟁점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언급한 뒤,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② (가)의 '초연결성은 개인이 ~ 상호 연결성을 높여 주고 있다.' 등에서 개념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③ (나)와 (다)의 첫 문장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견해를 제시한 뒤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④ (마)의 '이 입장에서는 동네 기반 ~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에서 쟁점에 대해 글쓴이와 상반된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해 보이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03 (가)에서 '초연결성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기존의 연결성을 약하게 만들어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글쓴이는 초연결성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가 초연결성이 기존의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초연결성의 토대가 없었다면 지리적 공간을 압축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성이 부각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③ (마)에서 '초연결 사회에서 지역성은 능동적으로 생성되고 강화되어 간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④ (가)에서 '초연결 사회가 진행될수록 지역의 가치가 제한된 공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지기 때문에'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다)에서 '초연결 사회에 접어들며 등장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이 이웃들과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것은 고도화된 연결망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04 ㄱ에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소통 공간에서 동네 주민들은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중고 거래는 사람들을 이어 주는 연결 고리 중 큰 축일 뿐, 거래보다는 사람 간 연결에 무게가 실린다고 하였다. 이는 이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근거로,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ㄱ에서 플랫폼 내 온라인 소통 공간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은 (다)의 근거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② ㄴ에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소통은 온라인에서뿐 아니라 대면 모임으로도 이어지는데, 이 점은 지역 공동체적 특성의 일부임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다)의 근거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③ ㄱ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익명의 동네 주민들끼리 생활에 밀착된 정보를 공유하며 밝힌 끼를 함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ㄴ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마)에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관계가 익명에 기반을 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라는 반론에 대한 반박의 근거를 보강할 수 있다. ⑤ ㄴ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인적 교류를 인정하면서도 이는 정서적 측면보다는 물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편리함과 연결 가능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연결이 애착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형성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예상되는 반론(현재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삼을 수 있다.

05 '한동네'는 세밀한 단위의 지역성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지리적 제약이 사라진 개념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초연결 사회는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로, 모든 것이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그에 대한 정보가 생성, 수집되고 공유되는 초연결성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하였다. ② (라)의 '네트워크 연결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한 초연결성'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가)의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성'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다)의 "아주 좁은 지역의 특성에 맞춘"이라는 개념으로 세밀한 단위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동네 생활권(hyper local)'에서 알 수 있다.

06 (나)에서 초연결성의 토대를 통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특색과 가치가 넓은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언제 어디서나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은 초연결 사회의 특징으로, 이것이 지역성을 강화하는 근거는 아니다. ③ 초연결성은 특정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연결망을 형성하므로 초연결 사회가 진행될수록 연결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것이다. ④ 지역성이 일상에 뿌리 내려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이 활발해지는 것은 지역성이 강화된 결과이다. ⑤ 글쓴이는 초연결 사회가 진행된다고 해서 직접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연결성보다 플랫폼의 상호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중요해진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07** ㉓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일상적인 정보를 나누며 소통하는 모습의 예일 뿐,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특정 지역에 대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지역에 방문해 그곳의 특색 있는 문화를 즐기고 그 경험을 다시 초연결망을 통해 전파하는 것은, 초연결성을 토대로 지역성이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지역성이 전파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② 언론에서 지역 뉴스의 보도를 이전보다 중시하는 것에서 지역성의 강화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이 리 모임에 갖는 것은 이웃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역성이 일상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초연결성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 사람 사이의 관계는 넓어지고 세계는 좁아진다.

- 08** 이 글은 초연결성과 지역성의 관계를 쟁점으로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을 논증하고 있다. 초연결 사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초연결 사회의 특성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 또는 약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뿐 아니라 반대 주장의 자료까지 모두 수집해야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는 주장의 근거나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료나 기사, 영상 등 수집한 자료는 믿을 만하고 출처가 정확해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④ 화제와 관련한 개념들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내용을 전개해야 한다. ⑤ 각각의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뒷받침 내용으로 제시하면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 09**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사례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하므로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는 근거는 주장과 충분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④ (라)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역 사람들이 소소한 일상과 감성을 공유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능동적으로 생성하고 강화하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로, 반론의 견해를 약화시키고 있다. ⑤ (나)와 (다)의 이유와 근거, (라)의 반론에 대한 반박을 통해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시킨다는 주장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논증에 의해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44~145쪽

01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한다. **02** 초연결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03** 해당 지역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개인적,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게 해 줌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된다. **04** (가)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쓴이의 견해인 이유와 구체적인 사례인 근거가 나타나 있고, (나)에는 반론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반론에 대한 반박이 나타나 있다. **05** (다)에서는 논증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글쓴이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 01** (다)의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하는 것은 비단 우리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에서 쟁점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 02** (나)의 ㉓ 뒤에 제시된 문장에서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 03** (다)에서 ‘동네 생활권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들이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사람들을 연결하고 사회적으로 결합하도록 매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동네 사람에 대한 존중과 동료애 같은 개인적 유대, 나아가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유대까지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 04** (가)에서 ‘초연결성을 통해 사람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견해이므로 이유에 해당하고,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은 객관적인 사례이므로 근거에 해당한다. 또한 (나)에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가 익명에 기반을 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반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나)에서는 이러한 반론이 있음을 언급한 뒤 이를 약화시키는 반박을 제시하고 있다.

- 05** (다)는 이 글의 결론 부분으로, 앞서 논증한 내용을 요약한 뒤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글쓴이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O×로 마무리 check

본문 146~14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2** 이유는 글쓴이의 견해와 같은 주관적인 성격의 것이고, 실제 사례나 통계 자료는 객관적인 성격의 근거에 해당한다.

- 07** 근거 자료는 내용이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10** 이 글은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상반되는 견해에 대해 반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상반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었다고는 볼 수 없다.

- 13**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글쓴이의 주관적인 견해이므로, 근거가 아니라 이유에 해당한다.

- 15** 결론에서는 논증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뒤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을 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17** 초연결성은 특정 지역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연결망을 형성하기도 한다.

(2)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토론

기술 실전

문제

본문 150~157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⑤	05 ②	06 ⑤	07 ③	08 ③
09 ②	10 ③	11 ⑤	12 ④	13 ①	14 ④	15 ③	16 ③
17 ⑤	18 ①	19 ⑤	20 ①	21 ③	22 ③	23 ⑤	24 ④

- 01 (다)에서 쟁점은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토론은 어떤 논제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논증을 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말하기'라고 하였다. ② 토론의 주제는 논제로, (나)에서 토론의 논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토론에서는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말해야 하며, 이때 논증은 주장이나 판단의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⑤ (나)에서 정책 토론의 논제는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아 진술하는데, 변화에 대한 주장은 찬성 측이 맡게 되므로 찬성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 02 ③은 어떤 사안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루는 사실 문제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떤 정책을 도입, 실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다루는 정책 문제이다.

- 03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에 관한 가치 판단을 다루는 것은 가치 문제이다. 정책 문제는 어떤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이나 실행 방안을 다룬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정책 문제는 '어떤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이나 실행 방안을 다룬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정책 문제는 어떤 정책을 도입, 실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겨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④ (나)에서 '일반적으로 정책 토론의 경우 논제는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아 진술한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정책 문제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실행 가능성이 있는 해결 방안이 있는가?',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가?' 등이 필수 쟁점이 된다.'고 하였다.

- 04 (나)에서 정책 토론의 찬성 측은 변화에 대한 주장을 맡아 이를 입증하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반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찬성 측은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가?'라는 쟁점에 대해, 이익이나 효과가 비용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② ㉠, ㉡은 '실행 가능성이 있는 해결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 전략에 해당한다. ③, ④ ㉢, ㉣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 전략에 해당한다.

- 05 ㄱ은 쟁점에 대해 내세우는 견해인 주장에 해당한다. 설득력 있는 논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쟁점에 관한 주장이 명확해야 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 그러나 주장이 다양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ㄱ은 주장이고 ㄴ은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인 '이유', ㄷ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이다. ⑤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에는 통계 자료나 전문가의 의견 등이 있다.

- 06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를 나타낸 표를 통해 반대 신문식 토론은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에서 시작하여 찬성 측 제2 토론자의 반론으로 마무리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각 토론자는 ~ 세 번의 발언 기회를 얻는다.'고 하였다. ④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를

나타낸 표를 통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첫 번째 입론과 반대 신문, 두 번째 입론과 반대 신문이 끝난 후 반론을 주고받음을 알 수 있다.

- 07 토론은 크게 '입론-반대 신문-반론'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입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ㄷ)이다. 반대 신문은 입론을 마친 토론자를 대상으로 상대측의 주장, 이유, 근거 중에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 질문하는 단계(ㄴ)로, 이때 상대측이 제시한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고 공정한지 검증한다(ㄱ). 그리고 반론은 상대측의 입론을 반박하여 자신의 주장이 더 타당함을 증명하는 단계(ㄹ)이다.

- 08 (가)에서 '찬성 1'은 필수 쟁점 세 가지, 즉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로 얻게 되는 이익이나 효과가 비용보다 큰가?'를 모두 다루고 있다. 그중 두 번째 필수 쟁점에 대한 주장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는 백신 양극화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첫 번째 필수 쟁점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② 첫 번째 필수 쟁점에 대한 주장에 해당한다. ④ 두 번째 필수 쟁점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⑤ 세 번째 필수 쟁점에 대한 주장에 해당한다.

- 09 이 토론에 제시된 문제 상황은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가)에서 '찬성 1'이 이에 대한 통념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은 ~ 재산권을 말합니다.'에서 지식 재산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③, ④ '우리는 전염병 ~ 4.5%에 불과했습니다.'는 첫 번째 필수 쟁점, '저희는 전염병 ~ 있다고 합니다.'는 두 번째 필수 쟁점, '또한 전염병 ~ 확인할 수 있습니다.'는 세 번째 필수 쟁점에 대해 논증을 제시한 부분이다. 즉, 각 필수 쟁점별로 주장을 제시한 후 그 이유와 근거를 밝히고 있다. ⑤ '○○에서 발표한 자료', '실제로 △△ 치료제를 개발한 한 제약 회사' 사례, "국제 사회의 개발 협력 성과와 과제"라는 논문'을 각 필수 쟁점에 대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10 (나)에서 '반대 2'는 (가)에서 '찬성 1'이 근거로 제시한 '○○에서 발표한 자료'와 관련하여, '△△ 바이러스가 막 확산하던 시점에 조사한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주장의 모순된 지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했을 뿐, 출처에 대해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④ 근거로 제시한 자료 자체에 대해 지적했을 뿐 주장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⑤ 찬성 측이 제시한 이유의 논리적 허점을 찾고 있지는 않다.

- 11 (가)에서 '반대 1'은 '의학 전문 잡지인 ◇◇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기사화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을 뿐, 그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의 양극화 현상은 ~ 구조적인 차원에서 분석해야 합니다.'에 나타나 있다. ②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도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에 나타나 있다. ③ '얼마 전 보도된 ~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에 나타나 있다. ④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면제되면 ~ 크게 약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에 나타나 있다.

- 12 (나)에서 '반대 1'은 '찬성 1'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하여 지식 재산권 면제로 전염병 백신이나 치료제 공급이 어느 정도는 확대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에는 큰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식 재산권의 면제만으로는 상

황이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제시한 것으로, 주장을 수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찬성 1’은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치료제’의 사례를 제시하여, ‘반대 1’이 지식 재산권 면제만으로 전염병 백신을 생산, 유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③ 많은 전염병 백신의 복제약 생산은 ‘찬성 1’이 제시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치료제’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⑤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보다는 선진국들이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13 (가)에서 찬성 측이 제시한 주장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여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이다. 지식 재산권을 연구하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④ (가)의 ‘찬성 2’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⑤ (다)의 ‘반대 2’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4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단계는 ‘입론’이다. (나)는 반대 신문으로, 입론을 마친 토론자를 대상으로 상대측의 주장, 이유, 근거 중에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 질문하는 단계이다. 반대 신문 중에는 상대측이 제시한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고 공정한지, 상대측 토론자들 사이에 불일치하는 의견은 없는지 등을 검증한다.

- 15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내용이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다)에서 ‘반대 2’가 제시한 근거는 ‘관련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이므로 한쪽 입장만을 담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뢰성에 대한 평가이다. 근거의 신뢰성은 제시된 정보나 자료의 출처가 정확하고 믿을 만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에서 ‘반대 2’가 제시한 근거는 출처가 없으므로 정보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지 않다. ⑤ 주장과 근거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타당성에 대한 평가이다.

- 16 객관적 입장에서 찬반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평가하는 것은 배심원의 역할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토론자들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토론 절차에 맞게 발언하고 있다. ② (나)에서 ‘반대 2’가 ‘정해진 시간 안에 주장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찬성 1’이 ‘주장을 뒷받침할 이유와 근거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야겠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토론자들은 상대측의 주장과 이유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 17 ㉠(반론)은 상대측의 입론에 반박하여 자신의 주장이 더 타당함을 증명하는 단계이다.

오답 해설 ① 반대 신문에서 이루어진다. ② 입론에서 이루어진다. ③ 반론 단계에서는 입론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 없다. ④ 입론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진행할 때, 두 번째 입론에서 이루어진다.

- 18 ㄱ: (가)에서 ‘찬성 2’가 ‘전염병과 같은 문제는 국가적 문제로 보려는 시각을 넘어서서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ㄴ: (가)에서 ‘반대 2’가 ‘찬성 측에서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백신 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지만’이라고 지적한 데서 알 수 있다. ㄷ: (가)에서 ‘찬성 1’이 ‘지식 재산권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을 돕도록 유도하는 것’은 ‘선진국의 선의에 전적으로 의존하자는 것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ㄷ: (가)에서 ‘반대 1’이 제시한 반론의 내용이다. ㄹ: (가)에서 ‘반대 2’가 제시한 반론의 내용이다.

- 19 이 글은 정책 문제에 대한 반대 신문식 토론에 해당한다. 토론은 어떤 논제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논증을 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말하기이다. 이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동체 문제에 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토론의 목적이 합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② 반대 신문식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2명으로 구성되며, 각 토론자는 입론, 반대 신문(교차 조사), 반론(반박) 등 세 번의 발언 기회를 얻는다. ③ 이 토론의 논제는 정책 문제로, 정책 문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실행 방안을 다룬다. ④ 정책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변화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반박한다.

- 20 (가)의 ‘찬성 1’의 발언은 필수 쟁점에 대한 주장을 밝히고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첫 번째 ‘입론’㉠에 해당한다. (나)의 ‘반대 2’의 발언은 앞서 ‘찬성 1’이 발언한 내용 중 근거 자료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므로 ‘반대 신문(교차 조사)’㉡에 해당한다. (라)의 ‘찬성 2’의 발언은 앞서 제시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장, 이유, 근거를 제시한 논증이며 두 번째 ‘입론’㉢에 해당한다. (리)의 ‘반대 1’의 발언은 앞서 입론한 ‘찬성 2’가 제시한 근거의 허점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반대 신문(교차 조사)’㉣에 해당한다. (마)의 ‘반대 1’의 발언은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이 더 타당함을 밝힌 것으로 ‘반론(반박)’㉤에 해당한다.

- 21 (다)에서 ‘반대 1’이 ‘저희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라고 한 것과, (라)에서 ‘찬성 1’이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여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한 것을 통해, 논제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임을 알 수 있다.

- 22 ‘지식 재산권이 전염병 백신과 관련된 기술의 장벽을 높여 신약 개발과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것은 (라)에서 찬성 측이 주장에 대한 이유로 제시한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다)에서 문제 해결의 실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반대 1’이 주장한 내용이다. ② (마)의 반론에서 ‘반대 1’이 제시한 내용이다. ④, ⑤ (다)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반대 1’이 제시한 내용이다.

- 23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가?’에 대해 반대 측이 제시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 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무역 자유화, 자본 자유화, 기술 진보 등을 세계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는 것이다.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만으로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도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얼마 전 보도된 뉴스를 인용하여 제시한 근거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A]와 [B]에서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가?’라는 필수 쟁점(ㄱ)에 대하여,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으로 인해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라는 찬성 측 주장(ㄴ)과,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핵심 원인을 지식 재산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반대 측 주장(ㄷ)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③ [A]에서 찬성 측의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켜 개발 도상국의 전염병 백신의 구입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토론자는 토론의 규칙을 잘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에 참여해야 하지만, 상대측의 견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토론은 논제에 대해 찬반으로 나누어 논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58~163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④
05 ④	06 ①	07 ④	08 ⑤
09 ④	10 ②	11 ⑤	12 ①
13 ④	14 ③		

01 적절한 것은 ㄱ, ㄷ, ㄹ, ㅂ으로 4개이다. ㄱ: 정책 토론의 논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명확히 나뉘는 것이어야 한다. ㄷ: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 찬성 측은 변화에 대한 주장을 말하므로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검토하고 반박하는 역할을 한다. ㄹ: 토론에서 논증은 쟁점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논증은 쟁점에 대해 내세우는 전제인 '주장', 그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근거'로 구성된다. ㅂ: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반대 신문은 상대측의 주장, 이유, 근거 중에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가 없는지, 제시한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고 공정한지 등을 검증한다.

오답 해설 ㄴ: 문제의 옳고 그름을 다루는 것은 가치 논제이다. 이 글은 정책 토론이므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는 논제를 선정해야 한다. ㄴ: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첫 번째 입론은 필수 쟁점을 모두 다루며, 두 번째 입론은 첫 번째 입론의 주장 일부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펼친다.

02 (다)에서 '반대 1'은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이 문제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을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문제 상황의 원인에 공감을 드러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찬성 1'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은 ~ 재산권을 말합니다.'에서 지식 재산권의 개념을 정의한 뒤, 각 필수 쟁점에 대한 주장-이유-근거를 차례로 언급하고 있다. ② (나)에서 '반대 2'는 (가)에서 '찬성 1'이 첫 번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에서 발표한 자료'의 조사 시점을 문제 삼고 있다. ③ (나)에서 '찬성 1'은 '반대 2'의 지적에 대해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라고 일부 수용한 뒤, 실제 개발 도상국의 백신 접종률과 초기 대응에 실패한 상황을 밝혀 자신이 내세운 근거가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 (라)에서 '반대 1'은 전염병 백신에 대한 지식 재산권의 면제를 통해서도 개발 도상국에 큰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지식 재산권으로 이익을 본 선진국들이 이익의 일부를 개발 도상국 자원에 쓰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03 [A]에서는 백신에 대한 지식 재산권이 면제되면 지식 재산권을 많이 소유한 선진국들의 국제 사회 지원에 대한 의무감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그와 같은 내용이 '의학 전문 잡지인 ◇◇'에도 실렸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정성은 내용이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의학 전문 잡지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면제되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백신 지원이 감소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로 얻게 되는 이익이나 효과가 비용보다 큰가?'라는 필수 쟁점에 대한 주장으로, 이익이나 효과가 비용보다 크지 않다는 주장이 명확히 드러난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면제되

면 '지식 재산권을 많이 소유한 선진국들의 국제 사회 지원에 대한 의무감이 크게 약해질 것'이라는 것은 '개발 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백신 지원이 감소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주장을 타당하게 뒷받침해 준다. ⑤ 근거로 '의학 전문 잡지인 ◇◇'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내용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04 ㉠에는 (다)에서 '반대 1'이 입론한 내용에 대한 반대 신문이 들어야 한다.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치료제의 지식 재산권 면제로 복제약을 대량 생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식 재산권 면제가 전염병 백신의 수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 않는지 질문한 것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도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증에 대한 반대 신문으로 적절하다. 또한 이어지는 '반대 1'의 답변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오답 해설 ① 찬성 측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며,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을 돕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반대 측이 내세우는 의견이므로 찬성 측의 반대 신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반대 측은 고급 인력과 고도화된 기반 시설이 전염병 백신과 관련된 기술의 장벽을 높이고 있어 지식 재산권의 면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은 반대 측의 논증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허점을 지적하는 반대 신문으로 볼 수 없다. ③ 반대 측은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문제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치료제의 지식 재산권 면제로 효과를 본 사례는, 많은 전염병 백신과 다른 특수한 경우라는 것은 찬성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한 반대 측의 답변 내용이다. 즉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반대 측의 논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반대 신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05 이 글의 논제는 정책 논제이다. 정책 논제는 정책을 도입, 실행, 유지하는 것의 바람직함을 논하는 것(ㄴ)으로,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ㄷ).

오답 해설 ㄱ: 사실 논제에 대한 설명이다. ㄷ: 가치 논제에 대한 설명이다. ㄹ: 논제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분명히 나뉘는 것이다.

06 제시된 설명은 입론에 해당한다. (가), (다)는 각각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이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나), (라)는 반대 신문, (마)는 반론에 해당한다.

07 ㉠의 '반대 2'는 앞서 '찬성 2'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공중 보건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그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언급했을 뿐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또한 그 뒤에 세계무역기구의 다른 규정 대해 언급하며 지식 재산권 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 바이러스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모두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주장의 근거로 이 사례가 적절'한지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955년에 개발된 ~ 말라리아 백신'에서 사례를 나열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례가 많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지식 재산권은 개발자들의 노력과 투자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개발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한 '반대 2'의 말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공중 보건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찬성 측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작습니다.'라고 반박한 뒤 반대 측 논자에 유리한 백신 개발에 드는 비용 문제나 연구자들의 권리와 관련하여 반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8 (다)에서 제시한 근거는 '관련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할 경우 백신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한 의견이 긍정적으로 전망한 의견보다 두 배나 높았'다는 것이다. 이 근거는 설문 조사 자

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신뢰성이 떨어지며,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자들, 즉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이므로 공정성 또한 떨어진다.

오답 해설 ①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② 설문 조사의 내용은 주장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타당성의 문제이다. ③ 설문 조사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④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이므로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어 공정성이 떨어진다.

- 09** 개발 도상국이 전염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류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전염병 문제는 국가적 문제로 보려는 시각을 넘어서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반대 측이 아니라 찬성 측의 반론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지식 재산권의 면제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①)는 것이나 지식 재산권이 면제되어도 백신 개발이 활발해지기 어렵다(③)는 것은 지식 재산권 면제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반대 측의 반론 내용이다. 그리고 지식 재산권 면제가 전염병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 체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⑤)이나 지식 재산권 면제가 아닌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을 돕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②)은 찬성 측의 반론 내용이다.

- 10** ‘(가): 첫 번째 입론 - (나): 반대 신문 - (다): 두 번째 입론 - (라): 반대 신문 - (마): 반론’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⑤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로 얻게 되는 이익이나 효과가 비용보다 큰가?’를 필수 쟁점으로 하여 입론에서 논증을 제시한 뒤 찬반 주장을 주고받고 있다. ③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정책 논제를 다루고 있다. ④ 반대 신문식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 11**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백신 개발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두 번째 입론인 (다)에 제시된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② ‘우리는 전염병 ~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이와 같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실제로 △△ 치료제를 ~ 있다고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2** (나)와 (라)는 입론을 마친 토론자를 대상으로 상대측의 주장, 이유, 근거 중에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 질문하는 반대 신문 단계이다. 토론에서는 논제에 대해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므로, 상대측 토론자가 논제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는지는 검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13** [A]에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거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답 해설 ①, ⑤ 준언어적 표현이나 유사한 다른 사례의 제시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

- 14** 찬성 측은 (라)에서 반대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해 ‘개발 과정에서 생산 기술과 관련된 지식 재산권의 일부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대답하는 한편, 근거를 보충해 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폴리오 백신, 에볼라 출혈열 백신, 말라리아 백신 등을 들고 있으므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해결 가능성, 해결 방안의 효과에 대한 세 가지 필수 쟁점을 모두 제시하였다. ② (가)에서는 ‘○○○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나)에서 반대 측은 그 자료

의 조사 시기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지적이 적절하다고 볼 때 근거가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점수를 낮추는 것은 적절하다. ④ ‘반대 측에서는 지식 재산권을 ~ 의존성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반대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다. ⑤ (가)와 (다)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들어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64~165쪽

01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이다. **02**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로 얻게 되는 이익이나 효과가 비용보다 큰가? **03** (가)는 첫 번째 입론으로 필수 쟁점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언급하여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고 있고, (나)는 두 번째 입론으로 앞에서 제시한 주장의 일부를 강화하기 위해 논증하고 있다. **04** • 주장: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이유: 지식 재산권이 전염병 백신 관련 지식과 기술의 장벽을 높여 신약 개발과 발전을 더디게 했기 때문이다. **05** 상대측의 반대 신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했으므로 충분한 근거를 들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했으며 반대 신문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 01** 이 토론의 논제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로, 어떤 정책을 도입, 실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하는 정책 논제이다.

- 02**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의 필수 쟁점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실행 가능성이 있는 해결 방안이 있는가?’,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가?’이다.

- 03** (가)는 첫 번째 입론, (나)는 두 번째 입론에 해당한다. 입론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한다. (가)에서는 필수 쟁점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언급하며 각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고 있고, (나)에서는 (가)에서 제시한 주장의 일부를 강화하는 논증을 펼치고 있다.

- 04** (나)에서는 주장, 이유, 근거로 논증을 구성하고 있다.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가 주장이고 ‘지식 재산권이 전염병 백신과 ~ 더디게 했기 때문입니다.’가 이유에 해당한다.

- 05** (다)에서 ‘찬성 2는 ‘△△ 바이러스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모두 면제된 것이 아닌데,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공중 보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 사례가 적절한가’라는 ‘반대 1’의 반대 신문에 대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근거를 들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1 토론은 어떤 논제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논증을 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말하기이다.
- 03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루는 것은 가치 논제이다. 정책 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실행 방안을 다룬다.
- 07 찬성 측은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이익이나 효과가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논증한다.
- 09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는 첫 번째 입론에서 필수 쟁점을 모두 언급한 뒤, 두 번째 입론에서 앞서 제시한 주장의 일부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제시한다.
- 11 반론 단계는 앞서 논의한 필수 쟁점에 대해 정리하는 단계로, 새로운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 14 반대 측도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이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 18 지식 재산권이 전염병 백신 관련 지식과 기술의 장벽을 높여 신약 개발과 발전을 더디게 했다는 점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5

언어와 매체를 활용한 표현

(1)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

기출 심전 문제

본문 172~179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④ 05 ⑤ 06 ③ 07 ④ 08 ⑤
09 ② 10 ③ 11 ① 12 ① 13 ⑤ 14 ③ 15 ⑤ 16 ⑤
17 ④ 18 ④ 19 ③ 20 ⑤ 21 ① 22 ② 23 ⑤ 24 ③
25 ⑤ 26 ② 27 ⑤ 28 ⑤ 29 ⑤ 30 ③ 31 ③ 32 ③

- 01 선어말 어미를 통해 표현하는 것은 주체 높임뿐이다. 상대 높임은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표현하며, 객체 높임은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를 통해 표현한다.
- 02 '무슨 일이니?'는 종결 어미 '-니'를 사용하여 '해라체'의 상대 높임이, '궁금합니다'는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하여 '하십시오체'의 상대 높임이 나타난다. '해라체'와 '하십시오체'는 모두 격식체에 해당한다.
- 오답 해설** ①, ② '국어 선생님께서 계시는지는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국어 선생님'을 높인 표현이다. 또한 '국어 선생님께서 여쭙고'는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해서 문장의 객체인 '국어 선생님'을 높인 표현이다. ③ '들어가셨는데'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사-'를 사용하여 문장의 생략된 주어인 '국어 선생님'을 높인 표현이다.
- 03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아주 높임) - 하오체(예사 높임) - 하계체(예사 낮춤) - 해라체(아주 낮춤)'가, 비격식체에는 '해요체(두루 높임) - 해체(두루 낮춤)'가 있다. 따라서 격식체는 상대를 높이는 표현, 비격식체는 상대를 낮추는 표현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③, ④ '하십시오체'는 격식체, '해요체'는 비격식체로, 격식체는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추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비격식체는 청자와 가까우며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상황에서 쓰인다.
- 04 ④는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통해 높인 객체 높임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체 높임이다.
- 오답 해설** ①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통해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②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사-'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조사 '께서'와 '밥', '먹다'의 높임말인 '진지', '잡수시다'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⑤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사-'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 05 '할머니께서는 눈이 좋으시다.'는 높임 대상인 '할머니'의 신체 일부분 '눈'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 표현이다.
- 오답 해설** ① 높임의 대상은 주체인 '할머니'이다. ② 조사 '께서'를 통해 높이는 대상은 '할머니'이다. ③ 특수 어휘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선어말 어미 '-으사-'를 통해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 06 ㄱ에는 안긴문장의 주어이자 주격 조사 '께서'로 높이고 있는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는 표현이면서, '너'라고 불린 상대 '예성'에게 적절한 상대 높임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오라고 하

서'가 줄어든 형태인 '오라셔'가 적절하다. ㄴ은 '아버지'의 신체인 '키'를 높임으로써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된 형태인 '크시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오래'는 '선생님'을 높이지 않은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오시래'는 '오시라고 해'가 줄어든 형태로,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이 아닌 '예성'을 높이는 표현이다.

- 07 ㉞의 '주십시오'는 정중한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십시오'를 통해 청자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할머니를 모시고'는 특수 어휘 '모시다'를 통해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② '만족하셨어'의 주체는 '할머니'로, 선어말 어미 '-사-'를 통해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③ ㉞은 주체인 '선생님들'의 '말씀'을 높임으로써 '선생님들'을 높인 간접 높임 표현으로,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인 '말씀'과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⑤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청자를 높이고 있다.

- 08 (가)와 (나)의 대화 참여자는 '윤찬'과 '이서'로 동일하다. 그러나 (가)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이므로 비격식체인 해체를 사용하여 대화한 데 비해, (나)는 공식적인 회의 상황이므로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대화에서도 높여야 할 대상은 있으므로 높여야 할 대상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③ 대화 참여자는 '윤찬'과 '이서'로 동일하므로, 화자와 청자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또한 대화 참여자들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④ 대화의 화제가 달라진 것이지 화제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 09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사건 또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되었는지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과거의 사건인지 현재의 사건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③ 화자가 말을 하는 시점은 발화시,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은 사건시이다.

- 10 ㄱ은 '지금', ㄴ은 '어제'라는 부사어를 활용하여 각각 현재 시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ㄱ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이다. ②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이다. ④, ⑤ ㄱ은 선어말 어미 '-는-'을 통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고, ㄴ은 선어말 어미 '-았-'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ㄷ은 관형사형 어미 '-르-'를 통해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즉, ㄱ, ㄴ은 선어말 어미, ㄷ은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11 '곧'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오답 해설 ② '-았었-/있었-'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임을 나타내면서 현재와의 단절감을 드러낸다. ③, ④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또는 '-던-',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 12 ㄱ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 ㄴ은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이다.

오답 해설 ②, ④ '-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아/-어 오다'를 통해서도 진행상을 실현할 수 있다. ③, ⑤ '-어 있다'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아/-어 버리다'를 통해서도 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다.

- 13 ㉠과 ㉡의 부사어 '지금도'는 둘 다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① '기억한다'에서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② '몰랐지만'에서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 '눈물겹다'는 형용사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의 경우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나타낸다. ④ ㉠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

재 시제, ㉡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이다.

- 14 '-더-'는 과거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 제시된 문장에서는 '어제' 본 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④ '-더-'는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라 선어말 어미이다. 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시제인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15 제시된 글은 과거의 경험을 서술한 것이지만,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16 피동사에 다시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를 덧붙인 것은 이중 피동으로,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피동이란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주어가 되어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능동에 대응된다. ③, ④ 피동 표현은 '-아-, -하-, -리-, -가-', '-되다', '-받다'와 같은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어지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 17 <보기>에서 '나누어지는'과 '뿔뿔다'라는 행위의 주체, 즉 표를 나눈 주체와 '그 후보'를 대표로 뽑은 주체는 모두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누어지는'은 '나누다'의 어간 '나누-'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뿔뿔다'는 '뿔다'의 어간 '뿔-'에 피동 접사 '-히-'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③ '표'는 나누어지는 대상이고, '후보'는 뽑힌 대상이므로, 둘 다 행위를 당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⑤ '나누어지는'은 '나누-'에 피동 접사 '-아-'를 결합한 '나뉘는'으로 바꿀 수 있다.

- 18 ㄴ은 도둑이 '쫓기는' 행위를 당하는 상황이 부각된 표현이므로 행위의 주체인 경찰보다 도둑이 더 부각된다.

오답 해설 ① ㄱ의 주어 '경찰이'가 ㄴ의 부사어 '경찰에게'가 되었다. ② ㄱ의 목적어 '도둑을'이 ㄴ의 주어 '도둑이'가 되었다. ③ ㄱ은 능동 표현, ㄴ은 이에 대응하는 피동 표현으로, 같은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ㄱ의 서술어 '쫓고'에 피동 접미사 '-가-'를 결합한 형태가 ㄴ의 서술어 '쫓기고'이다.

- 19 '말리다'는 주어가 행위를 제힘으로 함을 표현하는 능동 표현이다. '말렸다'는 '말리- + -었- + -다'로,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단어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이루어졌다'는 '이루다'의 어간에 '-어지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② '들린다'는 '들다'의 어간에 피동 접사 '-리-'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④ '예상된다'는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다. ⑤ '오해받았다'는 피동 접사 '-받다'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다.

- 20 '먹었다'는 동사의 어간 '먹-'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은 사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열렸다'는 동사의 어간 '열-'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② '놓였다'는 동사의 어간 '놓-'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③ '잡혔다'는 동사의 어간 '잡-'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④ '떠밀리다'는 동사의 어간 '떠밀-'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 Plus <참고> 피동과 사동

피동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스스로 동작이나 작용을 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범주 예 접시에 탈스러운 사과가 <u>달겨</u> 있다.
사동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하도록 시키거나 유발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 예 친구가 약속 시간을 <u>늦추었다</u> .

- 21 '심겨진'은 피동사인 '심기다'에 다시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를 덧붙인 이중 피동으로, ㉠은 맥락상 피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심겨진'을 '심은'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심긴'은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다. ③, ④ '담았다'를 '담여졌다'고 고치면 이중 피동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담혔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 22 '가려진'은 '가리다'의 어간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붙은 피동 표현이므로 이중 피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잊혀지지는'은 피동사 '잊히다'에 다시 '-어지다'를 덧붙인 이중 피동이다. ③ '쓰여진'은 피동사 '쓰이다'에 다시 '-어지다'를 덧붙인 이중 피동이다. ④ '담겨진'은 피동사 '담기다'에 다시 '-어지다'를 덧붙인 이중 피동이다. ⑤ '열려진'은 피동사 '열리다'에 다시 '-어지다'를 덧붙인 이중 피동이다.

- 23 '읽혀져'는 '읽다'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인 피동사 '읽히다'에 다시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를 덧붙인 이중 피동이다. 이를 '읽혀진'으로 바꾸어도 이중 피동은 그대로이다. '읽혀져 온'은 '읽혀 온'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24 <보기>는 기사문으로, '알려져'와 '추정된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통해 전달하려는 사실을 부각하고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는 않으나 그 주체를 모르거나 숨기기 위해서 피동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동 표현을 통해 행위의 원인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알려진' 것과 '추정된' 내용을 부각하고 있으나 그 주체의 책임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5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인용된 내용의 출처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직접 인용은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인용절의 마침표 등을 모두 표시하고 따옴표로 묶은 뒤 인용격 조사 '이'라고 붙여 표현한다. ④ 간접 인용은 원래의 내용을 화자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용격 조사 '고'를 붙여 표현한다.

- 26 ㉠은 문장 부호 없이 내용을 인용한 간접 인용문이므로 인용격 조사 '고'를 붙여야 하고, ㉡은 따옴표로 인용절을 묶은 직접 인용문이므로 인용격 조사 '이'라고 붙여야 한다.

- 27 ㉢는 선생님의 말을 별도의 문장 부호 없이 인용한 간접 인용문이므로 '고'를 붙여 적절하게 나타내었다.

오답 해설 ① 간접 인용문으로 표현한다면 '먹어'의 종결 표현을 바꾸어 '철수가 그만 먹었다고 말했다.'로 나타내야 한다. ② 간접 인용문으로 표현한다면 '고등학생이다'의 종결 표현을 바꾸어 '현수가 고등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로 나타내야 한다. ③ 간접 인용문으로 표현한다면 인용격 조사 '고'를 사용하여 '훌륭하다고'로 나타내야 한다. ④ 직접 인용문으로 표현한다면 인용절을 따옴표로 묶어 '정확히는 나에게 "나는 보람을 좋아해."라고 말했다.'로 나타내야 한다.

- 28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높임, 시간, 인칭, 지시, 문장 종결 표현 등을 적절히 고쳐야 한다. ㄱ에서 '민지'가 부른 '너'는 '나'이므로, '너'를 '나'로 바꾸어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나를 불렀다고 했다.'로 바뀌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문장 종결 표현인 '똥구나'를 '똥다'로 적절히 바꾸었다. ② 높임 표현인 '갓어'를 '갓다'로 적절히 바꾸었다. ③ 시간 표현인 '내일'을 '오늘'로 적절히 바꾸었다. ④ 지시 표현인 '이'를 '그'로 적절히 바꾸었다.

- 29 ㉠은 글쓴이가 원래 발화의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

개하기 위해 간접 인용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인용격 조사는 '고'를 붙인 것으로, '형식이라고'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직접 인용, ㉢은 간접 인용으로 둘 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쓰는 인용 표현이다. ② 직접 인용은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③ 간접 인용은 원래의 내용을 화자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④ ㉣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벤아민은 19세기만큼 주거 중독증이 나타난 시대도 없었다고 진단한다.'가 된다.

- 30 '분류', '분해', '구별'은 대응하는 고유어 어휘 '나누다'와 비교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미를 나타내어 주로 학술적인 글이나 담화에서 많이 사용된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분류', '분해', '구별'은 모두 고유어 '나누다'에 대응하는데, '나누다'에 비해 세밀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학술적인 글에서 정교한 개념을 나타낼 때 효과적이다.

- 31 (나)의 ㄱ에 쓰인 '변명'은 ㄴ에 쓰인 '설명'에 비해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변명'과 '설명'에 나타난 화자의 의도는 다르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내빈', '착석'은 '해', '자리에 앉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식성이 높은 어휘이다. ④, ⑤ (다)의 ㄱ에서 보조사 '이나'는 물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ㄴ의 '밖에'가 드러내는 부정적 태도와 비교할 때 긍정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32 ㄱ: 정부가 유도하고자 하는 바이므로 부정적 의미가 없는 '소비(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앴.)'가 적절하다. ㄴ: 비판의 대상이므로 부정적 의미가 있는 '조장(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낭비(浪費)'는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해뜨게 쓸.'이라는 뜻이고, '허비(虛費)'는 '헛되이 쓸. 또는 그렇게 쓰는 비용.'이라는 뜻이다. 또한 '권장(勸獎)'은 '권하여 정려함.'이라는 뜻이고, '장려(獎勵)'는 '좋은 일에 힘쓰도록 북돋아 줌.'이라는 뜻이다.

심화 목표 문제								본문 180~185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④	05 ②	06 ②	07 ③	08 ③	09 ②	10 ④	11 ④	12 ③	13 ①	14 ②	15 ④	16 ②
17 ①	18 ②	19 ④	20 ③	21 ④	22 ③	23 ③	24 ⑤								

- 01 객체 높임은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것은 상대 높임이다.

- 02 ④는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 높임이 실현된 문장으로, 높임의 대상은 청자이다.

오답 해설 ① '께서'와 '계신다'를 통해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② 특수 어휘 '모시고'를 통해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③ '말씀'을 높임으로서 주체인 교장 선생님을 높이는 한편, 하십시오체를 통해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⑤ 해오체체의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인 이모를 높이고 있다.

- 03 ④는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을 뿐, 할머니의 소유물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아버지의 '키'를 높임으로써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② 선생님의 '책'을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③ 선배님의 '고

만'을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⑤ 어머니의 '걱정'을 높임으로써 어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04 ㉠에서 '들어갔는데'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국어 선생님'을 높인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② ㉠은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국어 선생님'을 높이는 한편, 하심시오체의 종결 어미 '-니다'를 통해 청자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③ ㉠의 '일이나'는 해라체의 종결 어미 '-니'를 통해 청자인 학생을 낮추고 있다. ⑤ ㉠은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고'를 통해 문장의 객체인 '국어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 05 ㉠은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한편, 특수 어휘 '드린'을 통해 객체 높임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특수 어휘 '벼리'를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으나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은 특수 어휘 '모시고'를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으며,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나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은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께서'와 '주셨다'에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⑤ ㉠은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본'을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으나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 06 ㉠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객체인 '아버지'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 역시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이므로,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은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로 동일하다. ③ ㉠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객체인 '아버지'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 역시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로 동일하다. ④ ㉠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은 생략된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은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이다. ⑤ ㉠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주체인 '어머니', 객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 상대 높임의 대상은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의 대상이 모두 다르다는 것은 적절하다.

- 07 ㉠을 객체인 '할머니'에 대한 높임이 드러나도록 수정하려면 '데리고'를 특수 어휘를 사용해 '모시고'로 수정해야 한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모두 나타내려면 '삼촌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으로 가셨어.'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수정한 문장이 '눈'을 높임으로써 주체인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수정한 문장이 선어말 어미 '-사-'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오시래'는 '예성'을 높이고 '선생님'을 낮춘 표현이므로, '오래서'로 고쳐야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청자인 '예성'을 낮춰 나타낼 수 있다. ⑤ '계시다'는 간접 높임에는 사용하지 않는 특수 어휘이므로 이를 '있으셨습니다'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 08 ㉠은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고, ㉡은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 ㉡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 ㉢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미래 시제가 나타난다. ④ ㉢은 '먹을 것'에서 관형사형 어미 '-을'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⑤ ㉢은 '어제', ㉣은 '지금', ㉤은 '내일'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 09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는 과거 시제이다. ㄴ은 부사어 '곧'과 선어말 어미 '-겠-'을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다.

오답 해설 ①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은 현재 시제이다. ㄴ은 동사의 어

간 '내라-'에 선어말 어미 '-ㄴ-'을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은 '곧', ㉣은 '내일'이라는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④ ㉠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르'를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며, ㉡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⑤ ㄴ은 선어말 어미 '-ㄴ-'을 활용하여 현재 시제를, ㄴ은 선어말 어미 '-겠-'을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ㄴ은 선어말 어미 '-다-'를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10 ㉢의 '살아가던'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① '것이었다'에서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② '기억한다'에서 동사와 결합한 선어말 어미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③ '물렀지만'에서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⑤ '눈물겹다'는 형용사로, 형용사는 기본형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 11 ㄴ의 '-고 있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행동이 기준점에 가까워지면서 진행됨을 나타내는 것은 ㄴ의 '-아 오다'이다.

- 12 '이순신 장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과거의 일을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편적 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편적 진리를 나타낸 예로는 '지구는 돈다.'를 들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흔났다'는 어머니에게 혼날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정해진 사실처럼 표현한 것이다. ② '떠난다'는 내일이라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을 '-ㄴ-'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④ '하겠습니다'는 그 일에 대한 의지를 '-겠-'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⑤ '끝냈겠다'는 추수에 대한 추측을 '-겠-'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 13 ㉠은 '맛있었다'의 선어말 어미 '-었-(㉠)과 '먹은'의 관형사형 어미 '-은-(㉡)을 통해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선 과거 시제(㉢)가 실현된 예이다.

오답 해설 ② 시간 부사어 '내일'과 '읽을'의 관형사형 어미 '-을'을 통해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인 미래 시제가 실현되었다. ③ 시간 부사어 '이미'와 '도착했다'의 선어말 어미 '-았-'을 통해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선 과거 시제가 실현되었다. ④ 시간 부사어 '작년'과 '왔었다'의 선어말 어미 '-았었-'을 통해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선 과거 시제가 실현되었다. ⑤ 시간 부사어 '지금'과 '한다'의 선어말 어미 '-ㄴ-'을 통해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가 실현되었다.

- 14 피동은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주어가 된다. 즉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보다 행위의 대상이 부각된다.

오답 해설 ①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③, ④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또는 설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 ⑤ 연결 어미를 이용하여 구성된 '-아/어지다'를 활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15 '그려졌다'는 '그리-'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붙은 피동 표현이므로 이중 피동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급혔다'는 '급-'에 피동 접사 '-히-'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② '빠앗졌다'는 '빠앗-'에 피동 접사 '-기-'가 결합한 피동 표현으로, 주어진 '형'이 '동생'에게 인형을 빼앗기는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낸다. ③ '세워졌다'는 '세우-'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⑤ '나뉘었다'는 '나누-'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하여 '나뉘-'로 줄어든 형태의 피동 표현이다.

- 16 ㄴ의 '불려졌다'는 피동사 '불리다'에 다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

는 ‘-어지다’가 덧붙은 이중 피동이다. 또한 ㄹ의 ‘보여진’은 피동사 ‘보이다’에 다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덧붙은 이중 피동이다.

오답 해설 ㄴ, ㄷ: ‘꽃겼다’, ‘보인다’는 피동사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다. ㄹ: ‘파악되었다’는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다.

- 17 ‘알려져’는 ‘알리다’의 어간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를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알리다’는 피동 접미사가 붙은 피동사가 아니라 사동사이다.

오답 해설 ㉔ ‘일고 있다’의 ‘-고 있다’는 진행상을 나타낸다. ㉕ ‘적용한’의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㉖ ‘추정된다’의 ‘-되다’는 피동 접사이며,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18 직접 인용은 원래 발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만, 간접 인용은 원래 발화를 화자(글쓴이)의 관점에서 표현한다.

오답 해설 ① ‘선수의 부모는 이러한 결과가 선수의 엄청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였다.’는 간접 인용이 사용된 부분으로, 선수의 부모의 말을 간접 인용하여 인터뷰 기사의 핵심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③ ‘선수의 ~ 비롯되었다고’에서는 인용격 조사로 ‘고’를, “나의 ~ 노력형”이라고에서는 인용격 조사로 ‘이라고’를 사용했다. ④ 간접 인용에서는 별도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직접 인용인 “다음 생에도 ~ 노력한다.”, “나의 ~ 노력형”에서는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절을 나타냈다. ⑤ 선수 아버지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서는 선수 아버지의 심리가 생생하게 드러난다.

- 19 ㄱ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그는 나에게 내가 자기의 책을 보았냐고 물었다.’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ㄱ과 비교하면 인용 조사(라고 → 고), 인용절의 대명사(당신 → 내, 저(의) → 자기(의)), 높임 표현(-시(었)- → -았-), 종결 어미(-습니까 → -냐)에 변화가 생김을 알 수 있다. ㄴ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나는 어제 그에게 그녀는 오늘 도착한다고 말했다.’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ㄴ과 비교하면 인용 조사(라고 → 고), 인용절의 시간 표현(내일 → 오늘), 종결 어미(-습니다 → -다)에 변화가 생김을 알 수 있다. 즉 ㄱ과 ㄴ은 모두 간접 인용 문장으로 바꿀 때 인용절의 종결 어미가 바뀐다.

- 20 ㉔은 간접 높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므로, ‘아버지 자전거는 어디에 있는 거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어제’의 사건을 표현해야 하므로 현재 시제가 쓰인 ‘자’는 ‘잔’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동사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 ‘-는’은 현재 시제,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② ‘자다’는 높임말 ‘주무시다’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한다. ④ ‘달려지다’는 피동사에 다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를 덧붙인 이중 피동어로 ‘달려지’와 같이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직접 인용으로 나타내려면 인용격 조사로 ‘라고’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는 간접 인용의 인용격 조사이다.

- 21 ‘-냐’는 해라체의 종결 어미로, 해라체는 격식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② 주격 조사 ‘께서’와 ‘물으셨다’의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③ ‘숙제를 다 해 왔냐고’는 간접 인용이 나타난 부분으로, 인용격 조사 ‘고’가 사용되었다. ⑤ ‘물으셨다’에는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과거 시제가 나타난다.

- 22 (가)의 ‘분류’, ‘분해’, ‘구별’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로, 정교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서로 바꾸어 쓰면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며, <보기>에서 서로 바꾸어 쓸 수도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가)의 ‘분류’, ‘분해’, ‘구별’은 모두 고유어 ‘나누다’에 대응하는데, ‘나누다’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학술적인 글에서 추

상적이고 정교한 개념을 나타낼 때 효과적이다.

- 23 간접 인용문의 내용이 직접 인용문과 비교할 때 크게 바뀌지는 않았으나, 발화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는 방법은 간접 인용이 아니라 직접 인용이다.

오답 해설 ④ 인용절의 종결 어미 ‘-다’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간접 인용에 사용하였다. ⑤ 간접 인용은 원래 발화를 화자(글쓴이)의 관점에서 표현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 24 ㉔의 ‘지배하기’는 문맥상 후자의 경향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다스리기’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③ ‘제시하다’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보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⑥ ‘부여하다’는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주다.’의 의미이므로, ‘중요성이나 가치 따위를 부여하다.’의 의미인 ‘두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⑥ ‘검토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지다.’의 의미이므로 ‘따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⑧ ‘발전하다’는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다.’의 의미이므로, ‘나아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86~187쪽

01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청자인 ‘담임 선생님’을 높이는 상대 높임과,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고’를 사용하여 객체인 ‘국어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다. 02 • 적절하지 않은 이유: 간접 높임에 사용할 수 없는 특수 어휘 ‘게시다’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적절한 표현: 대표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03 부사어 ‘곧’과 관형사형 어미 ‘-르’를 사용하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04 ㄱ의 ‘-ㄴ’은 가까운 미래를, ㄴ의 ‘-ㄴ’은 현재 시제를 표현한 것이다. 05 피동 표현은 ‘추정된다’로, ‘추정’에 접미사 ‘-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06 • 부자연스러운 이유: ‘열려진’은 피동사 ‘열리다’에 다시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이기 때문이다. • 적절한 표현: 살짝 열린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07 정환이는 나에게 자신은(자기는) 보람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08 ㄱ의 ‘이냐’는 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반면, ㄴ의 ‘밖에’는 부정 표현 ‘안’과 호응하여 물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01 <보기>에서 높임의 대상은 둘이다. 청자인 ‘담임 선생님’은 종결 어미를 통해 표현하는 상대 높임으로, 객체인 ‘국어 선생님’은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고’를 통해 표현하는 객체 높임으로 높이고 있다.

- 02 ‘게시다’는 간접 높임에 사용할 수 없는 특수 어휘이므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있으시겠습니다’로 고치는 적이 적절하다.

- 03 부사어 ‘곧’과 관형사형 어미 ‘-르’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이다.

- 04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ㄴ/는-’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거나 보편적 진리, 습관적 행동을 언급하는 경우에 쓰기도 한다.

- 05 피동 표현은 ‘-이-, -히-, -리-, -기-’, ‘-되다’, ‘-발다’ 등과 같은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어지다’ 등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보기>는 ‘추정된다’라는 피동 표현이 나타난다.

06 '열려진'은 피동사 '열리다'의 어간에 다시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이다.

07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따옴표를 삭제하고 인용격 조사를 '고'로 바꾸면서 인용절에 나타난 대명사와 종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고쳐 써야 한다.

08 ㄱ과 ㄴ이 동일한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때, '이나'와 '밖에'의 쓰임은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ㄱ의 '이나'는 수량이 크거나 많음, 혹은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보조사이고, ㄴ의 '밖에'는 '그것 말고', '그것 이외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88~189쪽

- | | | | | | | | |
|------|------|------|------|------|------|------|------|
| 01 × | 02 ○ | 03 × | 04 ○ | 05 ○ | 06 ○ | 07 × | 08 ○ |
| 0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 17 × | 18 ○ | 19 ○ | 20 ○ | | | | |

01 상대 높임의 격식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비격식체는 사적인 상황에서 쓰인다.

03 주체 높임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 특수 어휘를 통해 표현한다.

07 관형사형 어미 '-는', '-(으)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 '던'이다.

10 '-아/-어 있다'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이다. 완료상과 진행상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고 있다'이다.

14 피동 접미사에 '-아/-어지다'를 덧붙인 표현은 이중 피동 표현으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17 원래 발화의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고자 할 때는 간접 인용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2) 매체를 활용한 세상 보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92~195쪽

- | | | | | | | | |
|------|------|------|------|------|------|------|------|
| 01 ④ | 02 ② | 03 ① | 04 ② | 05 ① | 06 ④ | 07 ② | 08 ③ |
| 09 ③ | 10 ② | 11 ③ | | | | | |

01 이 글은 ○○ 동물원의 사례를 통해 동물원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그와 반대되는 입장은 다루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 동물원이 하는 다양한 동물 보호 활동의 사례를 통해 동물원의 기능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현재 ○○ 동물원에는 약 130종, 1,6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등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동물원이 ~ 보전 공간으로'라는 표제 밑에 표제를 보충하는 부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 동물원의 ~ 순기능이다.'에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제시한 뒤 ○○ 동물원에서 동물 보호를 위해 펼치는 다양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 동물원 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멸종 위기종 보호에 대한 동물원의 노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02 이 글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동물원의 순기능(㉠)'으로 제시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동물원이 동물들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아가 '생태학적으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번식을 돕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회귀 동물들에 대한 체험은 이 글에서 제시한 ㉠과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③ '○○ 동물원의 수의사와 사육사들이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보전하고 습성 발달을 돕는 등 다양한 동물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 동물원이 '각 개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 동물원이 '체계적으로 동물의 건강도 관리하고 있다'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표제에서는 '동물원이 이런 일도?'라는 의문형 진술을 제시한 뒤 "판다·한국 호랑이 등 동물들의 보전 공간으로"라는 내용을 제시하여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물원의 순기능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표제의 의문형 진술이 동물원의 필요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는 의도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부제에서는 '멸종 위기종과 회귀종 보전에 주력', '동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 보전형 동물원으로 발돋움'이라는 표현을 통해 ○○ 동물원의 노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동물원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③ 전문에 해당하는 1문단에서는 ○○ 동물원이 '세상에 동물원이 존재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보여 주고 있다.'라는 표현과 동물원이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번식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가 잘 모르는 동물원의 순기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동물원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④ 2문단에서는 ○○ 동물원이 '각 개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 동물원에서 살아가는 개체의 종류와 그 수를 제시하고, 4문단에서 ○○ 동물원의 구체적인 동물 복지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동물원이 동물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⑤ 3문단에서 아기 판다의 출생 사례와 함께 ○○ 동물원이 '멸종 위기종 번식을 위해 수의사와 사육사들이 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동물들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호르몬을 분석하는 등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언급하여 동물원이 동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04 인터넷 개인 방송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생산된 후에도 수정이나 재생산이 가능하다.

오답 해설 ③ 인터넷 개인 방송은 생산자인 개인의 관점이나 의도가 별도의 여과 과정 없이 내용 구성이나 편집에 반영될 수 있다. ⑤ 인터넷 매체에서는 댓글

을 통해 생산자와 수용자 또는 수용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진다.

- 05 '남방큰돌고래들이 제주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라는 자막과 '생태 법인'에 대해 제시한 것으로 보아, 이 방송의 생산자는 동물들이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는 마치 사방이 거울로 된 집에 사는 것과 같다.'는 돌고래 보호 운동가의 말을 인용한 것과 남방큰돌고래는 2023년에 '전시 부적합 중'으로 분류되었다는 자막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는 수족관의 역할에 부정적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생산자는 동물을 인간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저마다의 생태에 따라 안전하게 살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④ 동물들이 원래의 서식지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 동물들에게 안전한 서식지를 찾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⑤ '남방큰돌고래들이 제주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와 같은 자막으로 보아, 생산자는 동물이 동물원이 아니라 원래 서식지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06 ㉔은 댓글에서 수용자가 제시한 내용의 출처를 묻는 질문이지 방송 내용의 신뢰성을 점검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질문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㉔에서는 앞서 '산돌바람'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② ㉔에서는 방송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여론'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③ 이 방송의 생산자는 돌고래를 수족관에 가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㉔에서는 동물원이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다고 하며 생산자와 반대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⑤ ㉔에서는 동물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언급하고 있다.

- 07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매체 자료에 반영된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 08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나)와 같은 인터넷 개인 방송의 특징이다. (가)와 같은 신문 기사는 전문가 집단이 내용을 생산한다.

오답 해설 ④ (나)와 같은 인터넷 매체는 정보의 전달 범위가 넓고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이와 비교할 때 (가)와 같은 인쇄 매체는 비교적 정보의 확산 속도가 느리다고 볼 수 있다.

- 09 (가)와 (나)는 모두 동물 보호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진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동물원과 동물 복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가)는 동물원이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는 반면, (나)는 동물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④ 동물원이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을 드러낸 것은 (나)가 아닌 (가)이다. ⑤ 동물들이 주체적으로 살도록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에 나타난 관점이다.

- 10 ㉔, ㉕, ㉖, ㉗은 동물원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㉘는 동물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보여 줄 뿐, 동물원에 대한 생산자의 관점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없다.

- 11 자막으로는 동영상에서 음성으로 제시되는 내용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나 생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시된다. 음성으로 전달되는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므로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④ '고양이', '일사탕', '불꽃놀이' 등의 댓글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산돌바람', '흔들바위' 등이 방송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의문점을 표출하고 있으며, '꼬리발' 등이 방송 내용과 다른 관점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심화 학습 문제

본문 196~199쪽

01 ④ 02 ④ 03 ① 04 ⑤ 05 ③ 06 ③ 07 ④ 08 ③
09 ② 10 ⑤

- 01 매체 자료에 생산자의 관점이 반영되는 것은 (가)와 (나)의 공통된 특징이다.

오답 해설 ② 대중 매체인 (가)와 인터넷 개인 방송인 (나)는 모두 정보의 전달 범위가 넓고, 그만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⑤ (나)는 정보가 쌍방향으로 전달되고 수용자의 의견이 생산자에게 전달되어 정보의 수정에 반영되는 것이 용이한 편이다.

- 02 매체 자료의 유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다르다. 즉 음악, 영상 등의 요소는 (나)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 03 동물원은 동물이 서식지에서 살 권리나 감금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물의 서식지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② 생태 법인이 인정되면 감금되지 않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댓글 내용을 참고할 때 적절한 반응이다. ③ (나)는 동물이 주체적으로 살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동물원이 동물을 보호한다는 관점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④ (나)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사례를 통해 동물이 자기 생태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동물원에서 동물의 생태에 맞는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남방큰돌고래는 '전시 부적합 중'으로 분류되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동물원이 개체에 따라 전혀 맞지 않는 공간일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 04 ○○ 동물원이 멸종 위기종의 번식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동물원이 동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멸종 위기종의 번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동물 보호와 관련된다.

오답 해설 ① ○○ 동물원은 '동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 보전형 동물원'을 지향하는데, 이는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시설, 동물 복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동물원 허가제와 지향점이 같다고 볼 수 있다. ② ○○ 동물원에는 수의사와 사육사 등이 동물들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등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한 것에서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동물원 허가제는 '동물의 습성에 맞는 서식 환경 제공'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동물원은 야생과 유사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 소재를 활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요구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④ ○○ 동물원은 체계적으로 동물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안전·질병 관리'라는 동물 복지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05 ㉔은 ○○ 동물원 원장의 인터뷰 내용으로, 희귀종인 판다의 탄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호르몬 ~ 번식을 위해 노력했다."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통해 멸종 위기종 동물들을 보전하기 위한 동물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 동물원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홍보는 (가)에서 인터뷰를 제시한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 ② 지난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언급이므로 새로운 정보 전달과 거리가 멀다. ④ (가)에서는 번식 성공과 관련한 동물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06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는 마치 사방이 거울로 된 집에 사는 것과 같다.'라는 돌고래 보호 운동가의 말이 인용되고 있으나, 돌고래 보호 운동가와의 면담 장면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남방큰돌고래가 '전시 부적합 중'인 이유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대표적인 해양 보호 생물종인 남방큰돌고래'라고 언급하며 화면 상단에 제시한 '해양 환경 정보 포털'의 링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 보호 생물

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제돌이는 돌고래를 감금하고 쇼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을 이유로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돌고래다운 삶'을 되찾았다는 자막을 통해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④ '남방큰돌고래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리까지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자막을 통해 '생태 법인으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 '생태 법인이 도대체 뭐가요?'라고 질문하고 이에 답변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07 (가)에서는 돌고래 보호 운동가의 발언을 인용했을 뿐, 동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돌고래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② 동물원 환경이 서식하기에 부적합하여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사례는 동물이 주체적으로 살도록 지켜 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타당하다. ③ '돌고래를 감금하고 쇼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언급했을 뿐 그 출처는 밝히지 않아 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고 볼 수 있다. ⑤ 동물 보호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평가할 때 동물 복지를 중시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 것은 긍정하다고 할 수 있다.

- 08 '꽃봉오리'는 방송 내용을 통해 사람들이 '동물원이 돌고래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방송 내용을 요약하여 '흔들바위'의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해양 보호 생물종이 뭐죠?'라는 '산들바람'의 질문에 대해 '조약돌'이 '링크를 누르면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을 통해 수용자들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가 드러난다. ② '수족관 돌고래를 자연으로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나 된다고 합니다.'라는 '고양이'의 댓글에 대해 '미리내'는 설문 조사의 내용이 정확한지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고, '꼬리발'은 동물원이 동물들에게 더 안전한 것 같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불꽃놀이'의 댓글을 통해 생태 법인으로 인정되면 '서식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감금되지 않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봄바람'과 '동물 사랑'의 반응은 동물이 주체적으로 살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한다는 방송의 주제를 수용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 09 (나)에서는 '동물원 등록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동물원 허가제'에 따라 동물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동물원 등록제 제도하에서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동물원 운영이 가능했고, 그에 따라 동물들이 지내기 어려운 동물원이 만들어졌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여 '동물원 허가제'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③ '동물원 허가제'에 따라 동물원을 운영할 때 '동물 보호', '동물의 생명 존중 가치 실현'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했다. ④, ⑤ '동물원의 여건과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높아지게 되었다'는 동물권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동물 복지를 중시하게 된 상황이 드러난다.

- 10 ㉠은 동물원에서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물에게 감금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은 동물에게 감금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다.

오답 해설 ① 동물에게 서식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에만 해당한다. ②, ③ 동물원의 동물 보호와 공익적 효과를 긍정하는 것과,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동물원 운영을 추구하는 것은 ㉡에만 해당한다. ④ ㉠, ㉡ 모두 동물의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01 (가)는 표제와 부제, 기사 내용을, (나)는 동영상과 링크된 자료, 자막, 댓글을 분석해야 한다. 02 (가)는 동물원이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보전하고 습성 발달을 돕는 공간이므로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03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수용자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 01 (가)는 신문 기사로 표제와 부제, 전문과 본문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고, (나)는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동영상과 자막, 링크된 자료, 댓글 등을 통해 생산자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 02 부제의 '동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 보전형 동물원으로 발돋움', 전문의 '멸종 위기 동물들을 ~ 진정한 이유' 등에서 동물원이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 03 (나)와 같은 인터넷 개인 방송은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로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다. 또 댓글을 통해 드러나듯 생산자와 수용자, 그리고 수용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 03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별도의 여과 과정 없이 개인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드러나는 것은 인터넷 개인 방송의 특징으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는 이와 거리가 멀다.
- 08 ㉠의 인터넷 개인 방송은 생산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화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
- 10 ㉠의 신문 기사는 ㉠의 인터넷 개인 방송에 비해 정보의 확산 정도가 빠르다고 볼 수 없다.

최종 점검 모의고사

제1회

본문 204~215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④	05 ⑤	06 ⑤	07 ⑤	08 ③
09 ①	10 ⑤	11 ④	12 ③	13 ⑤	14 ⑤	15 ⑤	16 ②
17 ③	18 ⑤	19 ①	20 ③	21 ⑤	22 ⑤	23 ⑤	24 ④
25 ②							

▶ (나) 속미인곡_정철

핵심 정리

갈래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정경 가사
성격	서정적, 여성적, 충신연주지사
주제	연군의 정
해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을 빌려 노래함.

- 01 (가)에서 화자는 사랑을 갑자기 운명적으로 찾아온다고 인식하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의 주변 환경까지 함께 받아들이게 됨을 깨닫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사랑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사랑이 지닌 절대적 속성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던져지는 빗줄을’ ‘어찌할 수 없이’ 받아서 배를 매고 있는데, 이는 갑자기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고 있는 것은 사랑이 운명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알려고 하지만,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꿈’에서 임을 만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실컷 말하려고’ 하지만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이 깨어 탄식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꿈속에서는 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난 것을 아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화자는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 / 임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라고 하였다. 이는 죽어 ‘지는 달’이 되어서라도 임을 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사랑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02 (가)에서는 ‘털썩’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빗줄’이 날아온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도 없이, 구름과 빗과 시간과 (이) 함께’라는 동일한 시구와, ‘받는 것, 되는 것, 때어진다는 것, 아는 것’이라는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 계절적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 문장 안에서 모순되는 역설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 03 ㉠은 화자가 사랑하게 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면 (나)에서 화자는 물가에 갔다가 사공은 간 데 없고 ‘빈 배’만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대상으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가리키므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은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② ㉠을 통해 화자는 실연과 기쁨을 얻게 되므로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없다. 반면에 ㉠은 화자가 바라보며 외로움을 느끼는 대상이므로 화자로 하여금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라 볼 수도 있다. ④ ㉠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화자는 ㉠을 잡아매고 있으므로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 그리워하는 대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가)에서 화자는 ㉠을 잡아매 다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의 주변 환경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로 하여금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화자는 임과 헤어진 자신의 상황을 이미 알

고 있으므로 ㉠이 화자에게 임과 이별한 상황을 깨닫게 해 준다고는 할 수 없다.

- 04 (가)의 4연에는 사랑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즉 화자는 사랑을 하게 되면 ‘구름과 빗과 시간이 함께 / 때어진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따라서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싼 세계인 ‘구름과 빗과 시간’이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빗줄’은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 ‘배’는 사랑하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빗줄을 잡아매 배를’ 매는 행위는 사랑하는 대상과 맺는 인연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빗줄이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날아온 것은 사랑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다가왔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화자는 ‘호젓한 부둣가’에 앉아 있다가 빗줄을 잡아 배를 맨 뒤, 배를 매면 구름과 빗과 시간이 함께 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호젓한 부둣가’는 화자의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이면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⑤ 배가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는 모습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떨림과 설렘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배가 ‘빛 가운데’ ‘울렁이며’ 떠 있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화자의 설렘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05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 / 임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를 통해 화자가 임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임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정권 싸움에서 패배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임과 떨어져 있는 화자에게, 정권 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은 임을 걱정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임을 그리워하며 홀로 지내는 여인인 화자는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듯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넘겨 간의 사랑으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보편적인 공감을 유도하고 애뜻함을 부각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③ ‘내 몸의 지은 죄가 신갈이 쌓였으니 /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겠는가?’를 통해,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이는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에서 알 수 있듯이, 임의 태도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과 관련된다. 이와 같은 화자의 모습에는 임금을 향한 사대부의 충성심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임금이 있는 대궐을 천상의 공간인 ‘천상 백옥경’에 빗댄 것을 통해 비유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 06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을 통해 ‘나’가 이전에도 피병을 부린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에게 장인은 먹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고 있으므로, 장인이 ‘나’가 피병을 부리는 모습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든 것이다.’를 통해, ‘나’는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치밀어 애먼 소에게 화풀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핑계로 혼인을 시켜 주지 않는 장인을 ‘이놈의 장인님 하고 댕돌에다 매꽃고 싶어 하는 등 불만을 가지고 있다. ③ 점순이는 ‘나’에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떨게.”라고 하면서 성례시켜 달라고 요구할 것을 충동질하는 당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장인은 ‘나’를 부려 먹기 위해 올 가을에 벼가 잘되면 장가를 수 있다고 했다가 막상 가을이 되자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조결 데리구 무슨 혼인을 한다구 그러니, 온!”이라고 하면서 점순이의 키를 핑계 삼아 혼인을 미루고 있다.

- 07 <보기>의 ‘서로 좋아하는 사이’처럼 상황이 바뀌게 되면, [가]에 제시된 것보다 더욱 친밀감 있게 대화할 것이다. 하지만 <보기>처럼 바뀐다 해도 어리숙하고 순진한 ‘나’의 성격을 볼 때, ‘보다 씩씩한 태도와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점순이와 ‘나’는 서로 내외하는 사이라서 멀찍이 떨어져 대화하고 있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면 ‘나’와 점순이가 지금보다는 가까이 마주 앉아 대화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 할 경우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많이 느낄 수 있으므로, [가]에서처럼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닌 보다 더 많은 대화가 오고 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 할 경우 ‘나’와 점순이 모두 혼인할 생각이 있으므로 혼인하자는 태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가]에서 점순이는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라고 적극적이고 당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서로 좋아하는 사이’일 경우 점순은 보다 적극적인 표현과 말투로 자신의 입장을 ‘나’에게 전달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8** 작년 이맘때 장인이 돌맹이를 집어 던져 ‘나’가 사나흘 공공 앓자 ‘거반 올상’을 지은 것은 ‘나’가 일을 하지 못할까 우려가 되었기 때문이다. 장인이 ‘나’를 다치게 하고 ‘거반 올상이 되’는 모습을, ‘나’를 속이고자 하는 장인의 교활한 속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목필이’는 장인이 목을 잘 한다고 해서 장인 이름인 ‘봉필이’를 이용한 언어유희에 해당하고, ‘이놈의 장인님’은 존칭어와 비속어를 함께 쓴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목필이’, ‘이놈의 장인님’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② ‘나’는 ‘작년 이맘때’ 일어난 일과 ‘그 전날’ 일어난 일을 회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이 ‘나’의 회상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는 역순행적인 구성상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화전발을 갈면서 봄날의 향기를 느끼고 봄날의 풍경을 보면서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있는데, 이는 봄이라는 사랑의 계절을 맞이하여 ‘나’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나’는 ‘작년 이맘때’ “올 갈에 버 잘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라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여서 열심히 일을 하였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장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순진하면서도 어리숙한 면모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09** ‘이건 우아래가 몽독한 것이 내 눈에는 혈없이 감참와 같다.’에서 서술자인 ‘나’가 대상인 점순이를 감참와에 비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서술자인 ‘나’는 대상인 점순이를 자신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요약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참의’ 중에는 감참와가 젖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등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후룩하 먹음직하니 좋다.’를 통해, ‘나’는 대상인 점순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점순이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점순이의 적극적인 면모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걸 채시니없이 들까쁘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를 통해 점순이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나’와 장인이 싸우는 공간이 점순네 집 바깥마당과 밭 둔덕임을 알 수 있지만,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와 장인의 싸움 장면에서 과장된 희극적 표현으로 해학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② 점순이는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채라고 했지만 막상 ‘나’가 장인과 싸울 때 장인의 편을 들어 ‘나’의 귀를 잡아 당긴다. 이는 싸움을 부추기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아버지 편을 드는 이중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③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는 결말 부분으로, ‘나’와 장인의 싸움이라는 절정 사이에 결말을 미리 제시하여 긴장감과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④ ‘짜정’, ‘까셀라’ 등의 방언과 ‘이 자식’, ‘이까진 놈의 장인님’ 등의 비속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사건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해 주는 효과가 있다.

- 11** ㉔는 ‘나’와 장인이 싸운 뒤의 상황으로, 장인이 ‘나’에 대해 호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호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㉔는 ‘나’와 장인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인은 ‘나’를 부려만 먹고 성례를 시켜 주지는 않고 있으므로, ‘나’와 장인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㉔와 같은 점순이의 말을 계기로 ‘나’와 장인의 싸움이 일어나므로 ㉔는 점순이가 ‘나’를 충동질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나’가 혼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점순이의 적극적인 성격을 짐작하게 해주는 말이라 할 수 있다. ② ‘나’는 점순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얼굴이 ‘예미’없는 황새 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 따라서 ㉔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점순이의 말에 ‘나’가 스스로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③ ㉔ 뒤의 ‘장인님이 섣뚱 오냐 날이라두 성례시켜 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는지 모르다.’를 통해, ‘나’는 성례를 시켜 준다는 말을 했으면 싸움을 그만두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를 통해 ‘나’와 장인이 싸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성례를 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장인은 ‘나’에게 바짓가래이를 붙잡히자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사위인 ‘나’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는 독자에게 웃음을 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12** ‘나’가 장인을 녀 알로 떠밀어 버린 것은 장인이 지게막대기로 자신의 어깨를 내려갈져서 약이 오르고 화가 났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다. 따라서 장인을 녀 알로 떠밀어 버린 것이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일터로 가려 하다가 바깥마당에 드러누워서 ‘오늘은 열 쪽에 난대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일터로 가지 않고 마당에 드러누운 행동에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어떻게든 결판을 내고자 하는 ‘나’의 심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나’는 장인의 계속되는 매를 참고 견디다가 수염을 잡아채고 있는데, 이는 점순이가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나’와 장인의 모습을 몰래 보고 있음을 알고 ‘매까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정 바보로 알게 아난가.’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가 장인의 계속되는 매를 참고 견디다가 수염을 잡아채는 것은 점순이가 ‘나’를 바보로 알까 봐 허세를 부린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나’는 장인이 자신의 바짓가래이를 잡아 너무 아파서 거의 까무러치게 되자,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라 생각하며 원수로만 알고 장인의 바짓가래이를 잡아 나꿔채고 있다. 따라서 ‘나’가 장인의 바짓가래이를 잡아 나꿔채는 것은 혼례를 시켜 주지 않고 때리기만 하는 장인에게 몹시 화가 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④ ‘나’는 점순이가 자신의 아버지 편을 들어 자신의 귀를 뒤로 잡아당기자, 기운이 탁 꺾이며 장인의 매를 피하지 않고 점순이의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점순이가 자신의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가 깨져 버린 것에 당황한 ‘나’의 심리가 반영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 13** [A]는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가 다시 일하러 가는 장면으로, 장인과 ‘나’가 다루는 [B]보다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여기서 ‘나’는 성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장인이 달래자 고마워하면서 일터로 나가는데, 이를 통해 ‘나’의 어리숙함이 부각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B]에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대비되지는 않고 있다. ② [B]에서는 장인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을 뿐 외양 묘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③ [A]에는 갈등하던 ‘나’와 장인이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고, [B]는 장인이 ‘나’를 지게막대기로 때리는 장면이므로 두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글의 서술자는 ‘나’이므로 전지적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의견을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은 나타나지 않는다.

- 14** 준경은 태운이 양원역에 기차를 세우지 않자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리고 준경은 보경에게 자신이 양원역을 만들려 한 것은 태운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태운이 양원역에 기차를 세우지 않은 것이, 태운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준경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마을 사람들은 기차가 양원역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기차가 양원역에서 서지 않자 당황해하며 멀어지는 열차 쫓무니만 바라보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기차가 양원역에 서지 않자 허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준경이 수험표를 바람에 날려 보내려 하자 보경은 도망치는 것이냐 묻고, 이에 준경은 “인자 그마할란다.”라 말하고 있다. 이에 보경은 “바보가? 역도 다 맨들고 기차만 서면 되는데, 그만두겠다고?”라 하면서 준경을 질책하고 있다. 따라서 보경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준경에 대해 나무라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태운은 잡지를 읽고 홍보과장에게 흥분하여 전화하면서 “당신을 잡지책 퍼둬 회수하시고, 잘못된 기사라고 다시 쓰고 사과하소!”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태운은 잡지에 실린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홍보과장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박 기사는 태운이 규정에 따라 양원역에 기차를 세우지 않았다고 하자, “하기사, 우리가 뭐 힘도 없고……”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박 기사

는 태운이 양원역에 기차를 세우지 않은 이유에 수긍한다고 할 수 있다.

- 15** 준경이 자신 때문에 엄마와 누나가 죽었다고 말하자, 이에 보경은 “니 잘못도 아닌데, 왜 그걸 아버지한테 용서받으라 하노? 엄마랑 내가 잘못된 건데 왜 자꾸 니 잘못이라 하는데?”라 말하고 있다. 이는 보경이 자책하는 준경에 대해 자신이 잘못된 것이라며 준경을 위로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경이 ‘엄마랑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준경과 태운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준경의 말을 통해 준경은 아버지가 봐 주기를 바라며 ‘몰래 아버지’를 보았지만, 태운은 이러한 준경을 한 번도 봐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준경과 태운은 서로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양원역만 만들면 좋겠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줄 거라’ 생각했다는 준경의 말을 통해, 준경이 ‘양원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에는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준경의 말을 통해 준경과 태운이 이전에 갈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태운이 양원역에 기차를 세우지 않자 준경은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태운이 양원역에 기차를 세우지 않았음으로써 준경과 태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준경의 말을 통해 준경은 태운에게 실감게 말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준경이 태운을 무뎌둬하게 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6** 홍보과장은 태운에게 “준경 학생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가 죽었다는 내용은 저희가 만들어 낸 얘기가 아닙니다. 준경 학생이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라고 말하는데, 이에 태운은 당황하여 말문이 막히고 있다. 이를 통해 홍보과장은, 엄마와 누나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준경의 속마음을 태운이 알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홍보과장으로 인해 태운과 준경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준경이 태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보과장의 말을 통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태운이 홍보과장의 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지는 않다. ⑤ 준경이 양원역을 만들려고 한 이유를 홍보과장이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다.

- 17** S# 91에서 준경은 기관실의 태운을 바라보고 있고, 태운은 앞만 본 채 기차를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차가 승강장을 지나는 과정에서 태운을 바라보는 준경의 모습과 기관실에서 앞만 보는 태운의 모습을 ‘컷백’하여 보여 주면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드러내 줄 수 있지만, 태운과 준경의 끈끈한 관계를 강조해 준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역사 화장실에서 서둘러 나오는 김 노인의 모습에서, 승강장에 있는 철구 삼촌까지의 모습을 ‘팬’으로 촬영하면 기차가 양원역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② 태운은 기차를 물면서 멀리 승강장에 모여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따라서 태운의 시각에서 승강장의 모습을 ‘롱 숏’으로 촬영하면 양원역과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④ 기차가 지나간 후의 준경은 화가 난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준경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면 준경의 표정을 잘 보여 주어 화가 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⑤ 준경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보경의 모습 이후 ‘영주역-낮’으로 장면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준경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보경의 모습 다음에 ‘페이드아웃’으로 촬영하면 영주역에서 태운이 기관차를 내리는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

- 18** ‘준경의 집, 기관사 숙직실, 철교’ 등의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배경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우여문’, ‘마이 다쳤나’, ‘뭐라 했노?’ 등을 통해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투리의 사용은 사건 전개에 있어서 생생한 현장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② S# 119의 ‘박 기사’의 말을 통해 장면 밖에서 일어난 보

경의 사고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현재에서 과거(회상)로 사건을 전개하여 보경이 기차를 피하려다 사고로 죽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과거 회상을 현재 사건에 삽입한 역순행적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인물들의 대사에 말줄임표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어적 표현으로는 담기 어려운 인물의 복잡한 심리적 정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19** 태운의 “너저 엄마를 죽게 만들고, 누나까지 그래 만든 내를…… 죽도록 미워할 거라 생각했지”라는 말을 통해, 태운이 아내와 보경이 죽은 것이 자기 탓이라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태운의 “내 일하는데 거 어예 가노, 똘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이로.”라는 말과, 박 기사가 대신 운전해 준다는 것도 마다하는 모습을 볼 때, 태운은 가족보다 자신의 일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③ 준경을 위해 태운이 화물 열차를 운행한 것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박 기사이다. ④ 태운은 박 기사로부터 보경의 사고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든 빨리 가려는데 다리 힘이 풀려 휘청거’리며 ‘대답도 못하고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태운이 보경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다고는 할 수 없다.

- 20** 준경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했다는 태운의 말에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미워할 생각 없다”, “나도 내 안 미워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준경의 눈물은 태운의 진심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정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태운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태운은 준경에게 보경의 죽음과 관련된 사실, 준경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태운이 준경에게 말하는 장면은 극 전개에서 ‘자기 고백’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② 태운은 준경에게 보경이 죽은 과거의 사건, 즉 보경의 죽음이 태운이 운행한 화물 열차와 관련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준경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므로 태운이 숨겨왔던 사실에 해당한다. ④ 준경은 태운의 말을 듣고 아버지도 미워하지 않고 자신도 미워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태운과 준경이 보인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태운은 그동안 준경을 멀리 한 이유가 준경을 사랑해서 지키고 싶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준경이 태운의 속마음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21** ㉔은 박 기사가 태운에게 화물 열차를 자신이 운행한 것으로 하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를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이다. 이는 박 기사가 준경을 위해서 한 말, 즉 태운이 운행한 화물 열차에 의해 보경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고려할 때, 마을 사람들에게 태운이 진실을 말하게 되면 이 사실이 준경의 귀에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나) 슬겅설_이규보

핵심 정리

갈래	설(說), 한문 수필
성격	교훈적, 풍자적, 비유적
주제	사물에 대한 편견의 배제 / 생명의 소중함
해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한 변증법적 전개 방식을 통해 교훈을 전달함

- 22** (가)의 글쓴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풀벌레가 죽은 사건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편리한 자동차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개와 달리 이의 죽음은 하찮다는 ‘어떤 사람’에게 글쓴이는 개나 이의 죽음은 같다는 것, 즉 모든 생명이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가)는 글쓴이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글쓴이는 자동차 때문에 죽은 풀벌레를 통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나)는 개, 이 등의 대상이 드러나 있지만, 이들로부터 글쓴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 ② (나)는 '어떤 사람'의 질문과 '나'의 대답을 통해 모든 생명이 동일하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는 문답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에서 글쓴이는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민 텡스틸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 글쓴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다. ④ (나)의 "그렇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나머지 손가락들은 아프지 않겠습니까?" 등을 통해, 글쓴이가 의문형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는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23 글쓴이는 인간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자동차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상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생태주의에 어긋남을 깨닫게 된다(㉒). 그러나 글쓴이는 하루아침에 자동차를 없앨 수 없는 형편을 고려하여(㉔)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기로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고 있다(㉕). 그러면서 글쓴이는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㉕는 글쓴이가 ㉗과 ㉔를 고려하여 이끌어 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㉕를 통해 자기 만족감을 얻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4 ㉙은 글쓴이가 고속 도로 야간 운전을 한 다음 날 자동차의 유리창과 앞 범퍼에 엉겨 죽은 풀벌레들을 본 경험을 드러낸 것이다. 글쓴이는 죽은 풀벌레들의 잔해를 보고 엄청난 살상 행위로 인식하면서 죄의식을 느끼며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게 된다. 하지만 글쓴이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운전자들도 풀벌레들을 살상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고 있으므로, ㉙은 모든 운전자들이 공유하는 경험에 해당하지만 글쓴이에게 안도감을 준다고는 할 수 없다.

25 '어떤 사람'은 '큰 동물(개)'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신에게 '작은 생물(이)'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을 놀린다고 여기는 것이지, '나'가 개의 죽음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했다고 생각하여 반발 의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또한 (나)의 내용을 볼 때, '나'는 '큰 동물'과 '작은 생물'의 죽음은 모두 동일하다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어떤 사람'은 개의 죽음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만, 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으므로, 생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어떤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을 모두 동일하게 아프다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④ '나'는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눈에 사는 메추라기를 봉새처럼 여기십시오."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생명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나'는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외적인 현상에 사로잡혀 사물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자세를 경계하고 있다.

제2회

본문 216~221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④	05 ④	06 ③	07 ③	08 ②
09 ①	10 ②	11 ④	12 ②	13 ⑤	14 ③	15 ⑤	16 ⑤
17 ①	18 ①	19 ①					

01 진로 탐색을 위해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글이나 책을 매체 자료와 함께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⑤ 지나치게 어렵거나 전문적인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한다. ② 진로 탐색과 관련하여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한다. ④ 주어진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난이도와 분량의 책 또는 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02 <보기>는 건축가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건축가가 어떤 직업인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건축가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건축물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② 학교 건물의 구조적인 특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③ 건축가가 경제적인 보상이 큰 직업인지는 알 수 없다. ⑤ 역사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3 건축가는 의뢰인의 요구에 자신의 창작 의지를 더하고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같은 건축가라도 저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건축가는 사회와 시대의 요청, 건축주의 요구, 대지와 자연환경이 요구하는 바를 받아서 자신의 창작 의지, 철학 등을 더한다고 하였다. ④ 건축가는 사회와 시대의 요청을 받아서 건축물을 만든다고 하였다. ⑤ 건축가는 건축과 관련된 모든 요구를 조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04 진로 독서를 할 때에는 먼저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선택(㉑)하여 읽는다(㉒). 그리고 읽기 목적에 따라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한 후(㉓), 발표나 독서 토론 등을 통해 읽기의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㉔)을 할 수 있다.

05 독서 포트폴리오는 책과 자료를 읽은 후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모아 둔 것이므로 자신이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한다. 포트폴리오를 통해 배경지식을 갖추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읽고 이해한 내용과 무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부적절하다.

06 관광지의 안내 책자와 관련된 할러데이 교수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㉒). 또한 할러데이 교수의 이야기를 들은 후 글쓴이가 안내 책자를 외국인용과 내국인용으로 분류해 놓은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㉔).

오답 해설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부분은 없으며(㉑), 안내 책자가 분류되어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세한 묘사는 드러나지 않는다(㉒). 또한 묻고 답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㉓).

07 글쓴이가 언어 습득을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할러데이 교수와 함께하면 즐거워지는 이유가 익숙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② (마)에서 안내 책자가 한국어로 쓰인 내국인용과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외국인용으로 나누어진 것은 공급자만의 관점만을 반영한 결과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할러데이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글쓴이가 관광 안내소의 이미지를 검색하여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안내 책자의 분류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⑤ 할러데이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관광 안내소 안내 책자의 구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08 이 글은 글쓴이가 외국인인 할러데이 교수의 경험을 통해 다변하는 우리 사회의 언어문화를 설장한 글이다.

오답 해설 ① 할러데이 교수가 유명 관광지에서 경험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유명 관광지 자체가 중심 화제는 아니다. ③ 할러데이 교수가 본 한국의 안내 책자의 구분이 나타나 있으나 이를 한국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관광지 안내 책자가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는 견해가 나타나 있을 뿐 제작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가치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09 (가)에는 할러데이 교수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 있으나, 문제 상황을 경험한 것은 할러데이 교수이지 글쓴이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할러데이 교수가 경험한 내용을 글쓴이가 전달하고 있다. ③ 할러데이 교수의 이야기를 들은 후 글쓴이가 직접 검색하여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④ 안내 책자가 외국인용과 내국인용으로 구분된 것에 대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의 배경과 상황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⑤ 안내 책자에는 공급자의 관점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글쓴이의 견해에 해당한다.

- 10 (나)에서 내국인용 안내 책자는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외국인용은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라)에서 할러데이 교수가 한국어에 익숙하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내국인 중에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안내 책자가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나뉘어 진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마)에서 안내 책자의 구분이 공급자의 관점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글쓴이의 견해를 통해 알 수 있다.

- 11 글쓴이는 할러데이 교수의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아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외국인 중에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할러데이 교수처럼 한국어에 익숙한 사람도 있는데 외국인이라면 한국어를 못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안내 책자를 구분해 놓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할러데이 교수의 말을 통해 글쓴이는 외국인에 대해 우리가 지닌 고정 관념과 편견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글쓴이는 안내 책자를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공급자의 관점만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⑤ 안내 책자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배경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의 관점에서 분류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 12 ㉠은 안내 책자가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나뉘어 진열되어 있어서 흥미로웠다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할러데이 교수를 통해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글쓴이가 할러데이 교수의 말을 듣기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의미이다. ④ 안내 책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배경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⑤ 외국인 중에도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영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13 ㉢는 안내 책자를 한국어로 쓰인 내국인용과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쓰인 외국인용으로 구분해 놓는 방식을 가리킨다.

오답 해설 ① 외국인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방식이다. ②, ③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한 방식을 일컫는다. ④ 다문화 시대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상황이 공존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을 말한다.

- 14 이 글에서는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한국어를 못하고 영어에 능숙할 것이라는 고정 관념이, <보기>는 의사라는 직업이 남성을 연상시킨다는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이 빚어낸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할러데이 교수의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언어문화를 성

찰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상황을 다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글은 언어의 가치가 아니라 언어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 관념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이 글은 다양한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보여 주고, <보기>는 어떤 직업은 특정한 성별에 더 적합하다는 편견을 보여 준다. ⑤ 이 글은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여 준다.

- 15 (나)는 안내 책자 공급자의 입장을 추측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라면 영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생각의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안내 책자가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나뉘어 진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내국인용 안내 책자는 한국어로, 외국인용은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공급자의 입장을 보여 주고, (다)는 사용자의 입장을 보여 준다. ④ (가)에서 외국인용이라고 영어로 표지가 붙어 있다고 하였다.

- 16 글쓴이는 안내 책자를 보는 사람들의 배경과 상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로만 안내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내국인 중에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② 안내 책자를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한 기준은 국적이다. ③ 외국인이지만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④ 현재의 안내 책자 분류 기준이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17 (나)에서 글쓴이는 안내 책자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추측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의견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공급자의 입장에서 안내 책자를 분류하여 비치한 것은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③, ④ 안내 책자를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은 (나)와 다르며, 사용자의 배경은 훨씬 다양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⑤ 안내 책자의 분류에 대해 (나)는 공급자의 입장, (다)는 사용자의 입장을 보여 준다.

- 18 ㉢에서는 자신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세계화, 인구 다변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인 이주민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③ ㉤에서는 사용자의 다양한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④, ⑤ ㉢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외국인들이고 ㉤는 우리라고 했을 때 두 집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통합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 19 <보기>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글은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보기>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보기>는 주말의 개념이 문화권에 따라 다른 데서 발생한 오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지 주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③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과 공존하게 된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④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지는 않는다. ⑤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외국의 것으로 우리 문화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01 ②	02 ①	03 ②	04 ②	05 ①	06 ③	07 ②	08 ④
09 ③	10 ③	11 ⑤	12 ④	13 ④	14 ③	15 ①	16 ①
17 ⑤	18 ④	19 ⑤	20 ①	21 ③	22 ②	23 ⑤	24 ⑤

- 01 모음 탈락이나 두음 법칙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만,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등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⑤ 음운 탈락이나 음운 축약이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 02 <보기>에서 설명한 현상은 비음화이다. '국내'와 '함박눈'은 비음 'ㄴ' 앞의 'ㄱ'이 'ㅇ'으로 바뀌어 각각 [궁내]와 [함방눈]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모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② '국물'은 비음 'ㄹ' 앞의 'ㄱ'이 'ㅇ'으로 바뀌어 [궁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단어이다. '나팔꽃'은 음절 끝 'ㄷ'이 'ㄴ'으로 바뀌어 [나팔꼇]으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 단어이다. ③ '업무'는 비음 'ㄹ' 앞의 'ㅂ'이 'ㄴ'으로 바뀌어 [엄무]로 발음되므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단어이다. '피부'는 음절 끝 'ㅍ'이 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ㅍ'으로 바뀌어 [피부치]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 단어이다. ④ '담는'은 비음 'ㄴ' 앞의 'ㄷ'이 'ㄴ'으로 바뀌어 [단는]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단어이다. '서랍장'은 예사소리 'ㅈ'이 앞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 된소리 'ㅈㅈ'으로 바뀌어 [서랍장]으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단어이다. ⑤ '신라'와 '한라산'은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바뀌어 각각 [실라], [할라산]으로 발음되므로 모두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 단어이다.

- 03 ㉠의 '학문'은 비음 'ㄹ' 앞의 'ㄱ'이 'ㅇ'으로 바뀌어 [학문]으로, '앞마당'은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으로 바뀐 뒤, 다시 비음 'ㄹ'의 영향으로 'ㄹ'으로 바뀌어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비음화가 나타난 사례이다. ㉡의 '설날'과 '출렁기'는 유음 'ㄹ' 뒤에서 'ㄴ'이 'ㄹ'로 바뀌어 각각 [설:랄], [출렁끼]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유음화가 나타난 사례이다.

- 04 '산길'은 두 개의 명사가 합쳐진 합성어(명사)이다. 따라서 용언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잇소리 현상 중, 두 개의 형태소나 단어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역도[역도]'는 'ㄱ' 받침 뒤의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③ '넙고[넙꼬]'는 용언의 어간 받침 'ㄴ' 뒤의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열정[열정]'은 한자음 'ㄹ' 뒤의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⑤ '둘 바[둘바]'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ㅂ'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 05 '홀이불'은 접두사 '홀-'과 실질 형태소 '이불'이 결합한 파생어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홀이불]로, 다시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 [혼이불]로 발음된다.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⑤ 모두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② [구지] ③ [여다지] ④ [부체] ⑤ [해도지]

- 06 <보기 1>의 [불임]으로 보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된 형태인 ㉠의 '물힌'은 [무친]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말이'는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마지]로 발음해야 한다. ② '술을'은 'ㄷ' 뒤에 'ㅣ'나 '히'가 결합된 형태가 아니므로 연음되어 [수들]로 발음해야 한다. ④ '느티나무'는 'ㄷ'가 원래부터 한 형태소이므로 [느티나무]로 발음해야 한다. ⑤ '발이랑'은 'ㄷ'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

사 '이랑')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바치랑]으로 발음해야 한다.

- 07 ㉡의 '씨서'는 'ㅈ- + -어서'이므로 'ㄴ' 탈락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가- + -아서: 'ㅈ' 탈락 ③ '고프- + -아서: 'ㄴ' 탈락 ④ 건너- + -어서: 'ㄷ' 탈락 ⑤ 자- + -았- + 다: 'ㄷ' 탈락

- 08 ㉢은 [집중하기]로 발음되며,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 '하얏게[하야게]', ㉡ '시작합니다[시자깁니다]', ㉢ '잡히지[자피지]', ㉣ '축하합니다[추카합니다]'에서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쳐져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있다.

- 09 ㉠~㉣은 모두 [목파]로 발음된다. ㉠은 된소리되지만,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은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된소리되기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에 해당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생기지 않지만,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하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음운 개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만이다.

오답 해설 ② ㉠~㉣ 모두 교체인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은 교체만 1번, ㉢은 교체와 탈락이 각각 1번씩 일어나지만, ㉡은 교체만 두 번 일어난다.

- 10 ㉢의 '입문하여[임문하여]'는 비음화의 예이다. ㉢의 '집문서[짐문서]', '만누이[만누이]'는 모두 비음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은 자음군 단순화이다. '궁기다[궁기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지만, '급하다[급하다]'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② ㉡은 구개음화이다. '미달이[미다지]'는 구개음화에 해당하지만, '빨대[빨대]'는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④ ㉣은 된소리되기이다. '꺼안다[꺼안다]'는 된소리되기에 해당하지만, '꿈같이[꿈가치]'는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⑤ ㉤은 거센소리되기이다. '궁히다[궁피다]'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하지만, '한여름[한여름]'은 'ㄴ' 첨가에 해당한다.

- 11 '팔뻥[팔뻥]'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땀땀[땀땀]'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ㅎ'과 'ㄷ'이 'ㅌ'으로 축약되어 발음된다. ㉢의 '애뜻한'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어 [애뜰한]으로, 다시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애트탄]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낯설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ㄷ'이 'ㄷ'으로 바뀌어 [낯설고]로, 다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ㅌ'이 'ㅌ'으로 바뀌어 [낯설고]로 발음된다. ② '놀더라'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ㅎ'과 'ㄷ'이 'ㅌ'으로 축약되어 [놀더라]로 발음된다. ③ '맞는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어 [맞는지]로,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ㄷ'이 'ㄴ'으로 바뀌어 [만는지]로 발음된다. ④ '먹히는'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ㄱ'과 'ㅎ'이 'ㅋ'으로 축약되어 [머키는]으로 발음된다.

- 12 ㉢은 [따뜻한 → [따뜻한](음절의 끝소리 규칙) → [따뜨탄](거센소리되기)의 과정을 거쳐 발음되는 말로,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식물[식물]: 비음화 ② 심고[심꼬]: 된소리되기 ③ 같이[가치]: 구개음화 ⑤ 쓰- + -어 → 써: 'ㄴ' 탈락

- 13 ㉠ '국화[구과]'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 것으로 음운의 수가 줄면서 새로운 음운 'ㅋ'이 있는 것이므로 D에 해당한다. ㉡ '갈등[갈똥]'은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난 것으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는 것이므로 A에 해당한다. ㉢ '좋은[조은]'은 'ㅎ' 탈락(탈락)이 일어난 것으로 음운의 수가 줄었으나 새로운 음운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C에 해당한다. ㉣ '생각만[생강만]'은 비음화(교체)가 일어난 것으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는 것이므로

A에 해당한다. ㉔ ‘숨이불[숨:니불]’은 ‘ㄴ’ 첨가(첨가)가 일어난 것으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생겼으나 그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B에 해당한다. ㉕ ‘행복해[행보개]’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 것으로 음운의 수가 줄면서 새로운 음운 ‘ㄱ’이 있는 것이므로 D에 해당한다.

- 14 ㄱ. 목화숨[목화숨]: 거센소리되기(축약 1회) ㄴ. 흙덩이[흙덩이]: 자음군 단순화(탈락 1회), 된소리되기(교체 1회) ㄷ. 새벽이슬[새빙니슬]: ‘ㄴ’ 첨가(첨가 1회), 비음화(교체 1회) 따라서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 즉 ‘축약이 일어났는가?’라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ㄱ에만 〇을 표시한 ㉔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학습 활동지〉의 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한다.

질문	ㄱ	ㄴ	ㄷ
두 개의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탈락)	×	○	×
기준에 있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는가?(교체)	×	○	○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축약)	○	×	×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첨가)	×	×	○
음운 변동이 총 2번 일어났는가?	×	○	○

- 15 ‘쌍던’은 거센소리되기(축약)에 따라 [쌍턴]으로 발음되며,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㉒ ‘일고’는 어간의 ‘ㅎ’과 어미의 첫소리 ‘ㄱ’이 결합하여 ‘ㄱ’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일꼬]로 발음된다. ㉓ ‘끓이다’는 ‘끓-’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경우로, ‘ㅎ’이 탈락하고 ‘ㄹ’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되어 [꼬리다]로 발음된다. ㉔ ‘침하교[치카고]’는 겹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하고 ‘ㄱ’과 ‘ㅎ’이 만나 ‘ㄱ’으로 바뀌는 축약이 일어난다. ‘하철은[하차는]’은 ‘ㅎ’ 탈락이 일어난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탈락이다. ㉕ ‘먹히다[머키다]’는 ‘ㄱ’과 ‘ㅎ’이 만나 ‘ㄱ’으로 바뀌는 축약이 일어나고, ‘끓고서[꼬고서]’는 ‘ㅎ’과 ‘ㄱ’이 만나 ‘ㄱ’으로 바뀌는 축약이 일어난다. 따라서 각각 음운 변동이 한 번씩만 일어난 것이다.

- 16 ㉔는 받침 ‘ㅅ’이 ‘ㄷ’으로 교체되고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바뀐 것이므로 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㉒ ㉔는 ‘ㅅ’과 ‘ㅎ’이 곧바로 합쳐져 ‘ㅌ’으로 바뀐 것이므로 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㉓ ㉔는 겹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하고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ㄱ’으로 바뀐 것이므로 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㉕ ㉔는 받침 ‘ㅅ’이 ‘ㄷ’으로 교체되고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바뀐 것이므로 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㉕ ㉔는 겹받침 ‘ㅌ’의 ‘ㅌ’이 접미사 ‘-하-’의 ‘ㅎ’과 곧바로 합쳐져 ‘ㅌ’으로 바뀐 것이므로 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7 제안을 거절할 때는 먼저 상대의 제안에 공감을 표현한 다음,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㉔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며 상대의 제안에 공감을 표현한 다음(공감의 격률), “그런데 이미 봉사 활동을 가기로 친구들과 약속했어요.”라며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고(동의의 격률), “대신 다음 주에 함께 낚시 가는 것은 어떠세요?”라고 질문 형식으로 제안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고 있으므로(요령의 격률) 가장 적절하다.

- 18 철수는 빵을 자신이 나누는 대신 나누어진 빵에 대한 선택권은

상대에게 주면서 상대의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요령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오답 해설 ㉔은 겸양의 격률, ㉒는 관용의 격률, ㉓은 칭찬의 격률, ㉕는 동의(공감)의 격률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보기〉의 대화에서는 이와 같은 격률의 적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 19 ㉔은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칭찬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칭찬의 격률에 따라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도록’ 고쳐야 한다. ㉕는 ‘한심하다’거나 ‘실력이 없다’는 식의 비방을 줄이고 ‘기본 실력이 있다’는 칭찬을 늘림으로써 칭찬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오답 해설 ㉔, ㉒ 여전히 상대를 비방하고 있는 표현이다. ㉓, ㉕ 자신을 칭찬함으로써 겸양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 20 지은은 ‘모듬 발표 주제’라는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난 말을 함으로써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오답 해설 ㉒는 질의 격률, ㉓은 양의 격률, ㉔는 공손성의 원리 중 겸양의 격률, ㉕는 태도의 격률과 관련된 조언이지만, 〈보기〉의 지은의 말과는 무관하다.

- 21 은경은 대화를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대화의 주제를 제시하고 대화 참여자들이 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견(정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질의 격률을 지켰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㉔ 해주는 전통문화 중 전통 음식을 주제로 하라고 말함으로써, 전통 문화라는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말을 하여 협력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 ㉒ 우신은 한옥을 주제로 하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될 상황에, 현대의 주거 문화나 한옥을 보기 힘든 현실 등 불필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제공하여 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㉔ 용운은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아 태도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㉕ 미선은 점심에 대한 감상이나 먹고 싶은 음식 등 대화의 화제에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 22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받게 되니 말조심을 하라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는 세 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라도 잘못 놀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 수가 있다는 뜻으로, 말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쌀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는 쌀은 쏘아도 주울 수 있으나 말은 다시 수습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나타내는 속담이다. 따라서 〈보기〉의 속담에 공통으로 나타난 우리말의 담화 관습은 ‘말을 조심하 가려 한다.’이다.

오답 해설 ㉔ ‘언행일치(言行一致)’는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음. 또는 말한 대로 실행함.’을 뜻한다. 〈보기〉의 속담에 이러한 담화 관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㉓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과 관련된 담화 관습은 〈보기〉의 속담에 나타나지 않는다. ㉔, ㉕ 우리말의 담화 관습이기는 하나, 이러한 담화 관습은 〈보기〉의 속담에 나타나지 않는다.

- 23 〈보기〉는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㉕는 ‘죽다’를 ‘돌아가다’로 표현한 경우로,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담화 관습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㉔~㉔ 모두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의 예이다.

- 24 담화 관습은 시대나 사회·문화적 상황 등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과거의 담화 관습과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비교하며 성찰하여 담화 관습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정한 담화 관습만을 고수하거나, 특정한 담

화 관습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담화 관습을 수정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의 글쓴이는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선수’는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 이를 다른 선수들의 공으로 돌리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사이다 발언에 누리꾼이 열광했다는 표제를 통해 자기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 ④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으면 그만큼 쓸 말은 적어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라는 속담이다. 따라서 ㉠과 이 속담에 나타난 담화 관습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4회

본문 230~23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01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하는가’라는 쟁점에 대해,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을 언급한 뒤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화제에 대한 여러 입장을 제시하거나 입장을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초연결 사회’, ‘초연결성’, ‘동네 생활권’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④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하는가’라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주장을 제시한 뒤 이유와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나)~(라)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02 (다)에서 ‘초연결 사회에 접어들며 등장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은 높은 상호 연결성을 바탕으로 세밀한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것은 초연결 사회의 특성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초연결성은 특정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연결망도 형성한다고 했다. ② (가)에서 초연결성은 개인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상호 연결성을 높여 준다고 했다. ③ (다)에서 ‘동네 생활권(hyper local)’은 ‘아주 좁은 지역의 특성에 맞춘’이라는 개념으로 세밀한 단위의 지역성을 나타낸다고 했다. ⑤ (나)에서 기업들도 지역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지역성을 기업 이미지의 개선과 판촉 등에 활용하는 것을 늘리고 있다고 했다.

- 03 이 글은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하는가?’라는 쟁점에 대하여 ‘초연결 사회가 진행될수록 지역의 가치가 제한된 공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지기 때문에 오히려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 04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쓴이의 견해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은 쟁점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 ㉡~㉤은 근거에 해당한다.

- 05 <보기>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통은 공동체적 특성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소통만으로는 이상적인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초연결성에 영향을 받은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이 긍정적인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보기>의 관점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교류가 이상적인 지역 공동체 형성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기능으로 제시한 내용이므로 <보기>의 관점에 따른 비판으로 볼 수 없다. ②, ④ <보기> 또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소통이 초연결 사회의 연결망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공동체적 특성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 ③ <보기>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정서적 측면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관점이다.

- 06 (마)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역 기반의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초연결 사회에서 지역이 지니는 가치를 잘 보여준다고 했다. 이는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지역의 개념이 광범위한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⑤ (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07 ①은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입장이다.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요소로 만들 것이라는 관점은,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고 보는 글쓴이의 관점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라)의 '한편 네트워크 ~ 없다고 주장한다.'에 제시된, 글쓴이와 반대되는 관점의 예상 반론 내용이다. ② (가)의 '이 물음에 ~ 주장이 있다.'에 제시된, 글쓴이와 반대되는 관점의 입장이다.

- 08 (가)에서 쟁점과 글쓴이의 주장을 밝힌 뒤 (나), (다)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 (라)에서 반론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마)에서 논증한 내용을 요약하여 강조하고 있다. (다)에는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만 나타낼 뿐 글쓴이의 견해, 즉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9 '학생 3'은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사례가 적절한 근거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며 다른 근거가 필요하다고 반응하고 있으므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학생 1'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유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주장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② '학생 2'는 근거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타당성이 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④ '학생 2'는 반론에 대한 반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학생 1'은 이러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학생 2'는 근거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학생 3'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 10 이 글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를 다룬 토론으로, 찬성 측이 변화에 대한 주장을 말아 주장을 입증하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검토하고 반박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해설 ① 정책 논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② 반대 신문식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③ 토론의 개념으로 적절하다. ⑤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의 필수 쟁점 세 가지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실행 가능성이 있는 해결 방안이 있는가?',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가?'이다.

- 11 입론에서는 논제에 관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ㄴ), 특히 첫 번째 입론에서는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정의하고 논제가 등장한 배경을 밝힌다(ㄷ).

오답 해설 ㄱ은 반대 신문, ㄹ은 반론에 해당한다.

- 12 (가)에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전염병 백신의 가격이 낮아져 개발 도상국의 백신 구입 부담이 줄어들고 양극화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700달러에 판매되는 치료제가 지식 재산권이 면제된다면 복제약이 약 15달러 이하로 판매될 수 있다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여 전염병 백신의 시장 가격이 낮아진 실제 사례가 아니라 지식 재산권을 면제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켜"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는 국제 사회의 협력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의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의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면제되면 ~ 크게 약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3 (가)에서 '찬성 1'의 "우리는 전염병 대유행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험했습니다."와 (다)에서 '반대 1'의 "물론 저희도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이 문제라는 점에는 공감합니다."로 보아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찬반 양측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찬성 측의 입장으로, 반대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③ 반대 측의 입장으로, 찬성 측은 지식 재산권 면제로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반대 측이 제시한 관점이다. ⑤ 찬성 측은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아닌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를 주장하는 입장이고, 반대 측은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였으나 이를 해결 과제로 본 것은 아니다.

- 14 (나)에서 '반대 2'가 "○○에서 발표한 자료는 △△ 바이러스가 막 확산하던 시점에 조사한 자료 아닌가요?", "선진국들이 백신 접종을 서둘러서 그 격차가 더 커진 것 아닌가요?"와 같이 질문한 것은 답변을 제한하는 폐쇄형 질문으로 이를 통해 찬성 측이 제시한 '○○에서 발표한 자료'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에서 '찬성 1'은 구체적 수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라)에서 '찬성 1'이 언급한 사례가 앞서 찬성 측이 언급했던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 ④ (라)에서 '반대 1'은 '찬성 1'이 질문에서 언급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치료제와 비교하여 전염병 백신의 복제약 생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질문에 어긋난 대답을 했다고 볼 수 없다. ⑤ (나)의 '반대 2'와 (라)의 '찬성 1' 모두 상대방의 입론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성을 검증하고 있다.

- 15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논제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이다. [A]에서 필수 쟁점에 대해 제시한 주장은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핵심 원인을 지식 재산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 16 (라)에서 '반대 1'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는 것보다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행사하여 큰 이익을 본 선진국들이 그 이익의 일부를 개발 도상국의 백신과 치료제 지원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17 표를 참고할 때 (마)와 (바)는 반대 신문식 토론의 반론 단계로, 각 발언자가 마지막 발언을 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반론 단계는 앞서 논의한 필수 쟁점에 대해 정리하는 단계로, 새로운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오답 해설 ① 표를 참고할 때 찬성 측 두 번째 입론은 '찬성 2'의 첫 번째 발언으로 이 단계에서는 첫 번째 입론에서 한 주장의 일부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펼친다. ② (나)는 반대 측 첫 번째 입론에 이은 '반대 1'의 두 번째 발언에 해당한다. ③ (다)에서 '반대 2'가 내세운 주장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인류의 백신 개발 기술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찬성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다.

- 18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의 권리는 희생될 수 있지 않나요?"라는 '찬성 2'의 발언 내용과, '의약품에 대한 지식 재산권도 국제 사회가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반대 2'의 답변 내용으로 볼 때 ㉠에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다른 권리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찬성 측은 특허 예외 규정을 긍정하는 입장이므로 특허 보호 의무가 특허 예외 규정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은 찬성 측의 반대 신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④ 반대 측이 근거를 들어 반박한 내용이며 (라)의 질문과 답

변의 맥락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⑤ (라)의 질문과 답변의 맥락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19 ㉠은 찬성 측 두 번째 입론의 주장이고 ㉡은 ㉠을 뒷받침하는 이유이다. ㉢은 찬성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근거에 해당한다. ㉣은 반대 측 두 번째 입론의 주장인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도 인류의 백신 개발 기술은 크게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를 뒷받침하는 이유이고, ㉤은 그 근거로 제시된 설문 조사의 내용이다.

20 전염병은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지식 재산권 면제가 국제적 협력 체제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이다.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촉진될 것인지에 대한 주장이나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1 지식 재산권의 면제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나 지식 재산권 면제로 백신 개발이 활발해지기 어렵다(㉡)는 것은 지식 재산권 면제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반대 측의 반론 내용이다. 그리고 지식 재산권 면제가 전염병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 체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나 지식 재산권 면제 대신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을 돕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은 찬성 측의 반론 내용이다.

22 [B]는 '반대 측에서는 지식 재산권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을 돕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겠는데'에서 상대측 주장을 재진술한 뒤, 그러한 주장이 실현된다면 '선진국에 대한 개발 도상국의 의존성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C]에서는 '찬성 측에서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백신 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지만'에서 상대측 주장을 재진술한 뒤, 그러한 주장이 실현된다면 '선진국은 새로운 의약품 개발할 의욕과 동기를 잃게 될 것'이라는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는 찬성 측 주장이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언급했을 뿐,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에서는 상대측 주장의 실현 가능성이 낮음을 지적했으나 자기 측 주장이 더 합리적임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A]와 [C] 모두 상대측의 문제 제기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B]와 [C] 모두 상대측의 반론 내용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23 '반대 2'가 (다)에서 제시한 근거는 관련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이므로 지식 재산권 면제가 백신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답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 있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찬성 2'는 (가)에서 주장, 이유, 근거를 차례대로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나)에서도 콜라 백신, 에볼라 출혈열 백신, 말라리아 백신 등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② (가)에서 '찬성 2'가 근거로 제시한 △△ 바이러스는 모든 지식 재산권을 영구히 면제한 것은 아니므로 논리적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백신들의 사례는 신뢰성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④ '반대 1'은 (나)에서, (가)에서 '찬성 2'가 근거로 제시한 △△ 바이러스의 모든 지식 재산권이 영구히 면제된 것은 아니라며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찬성 측 논증의 타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⑤ '반대 2'는 (라)에서, '찬성 2'가 언급한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며 과도한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한 뒤 '찬성 2'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규정을 바탕으로 반대 신문에 대응하고 있다.

제5회

본문 240~247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④	05 ①	06 ①	07 ②	08 ⑤
09 ③	10 ④	11 ③	12 ⑤	13 ④	14 ⑤	15 ④	16 ⑤
17 ③	18 ③	19 ①	20 ④	21 ②	22 ①	23 ⑤	24 ⑤

01 주체 높임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 특수 어휘 등을 통해 표현하며, 주체 높임에 사용되는 특수 어휘에는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등이 있다. ③은 '께서'와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주체인 '국어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한편,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신체의 일부분인 키를 높임으로써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②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시라.'는 주체 높임이 나타나지 않은 문장으로, 주체 높임을 통해 '선생님'을 높이려면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라.'라고 해야 한다. ④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며 주체 높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⑤ 청자인 '이모'를 높이는 상대 높임이 나타날 뿐 주체 높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02 '형, 어머니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어.'는 '-어'라는 해체의 종결 어미로 청자인 형에 대해 낮춤의 상대 높임을 표현하고 있으며, 주격 조사 '께서'와 '가셨어'에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특수 어휘 '모시고'를 통해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상대 높임은 '낮춤'의 표현이 나타나며,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모두 사용된 문장이다.

03 문맥상 ㉠의 주어는 '할머니'로, '만족하셨어'는 주체 높임이 적절하게 실현된 표현이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

오답 해설 ①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데리고'를 특수 어휘 '모시고'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좋아하셨어'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④ '계시다'는 간접 높임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선생님들의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셨습니다'를 '있으셨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⑤ 공식적인 상황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표현했으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

04 '예전에는 이곳에 물고기가 많았었다.'의 선어말 어미 '-았었-'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임을 나타내면서 현재와의 단절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지속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곧'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이다. ② 관형사형 어미 '-(으)로'는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③ 선어말 어미 '-터-'는 과거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하는 의미를 표현한다. ⑤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에는 동사의 경우 주로 선어말 어미 '-는/-니-' 등을 사용하며,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의 경우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나타낸다.

05 '내일 수학 시험 본다.'에서 '-ㄴ-'은 현재 시제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가까운 미래를 표현한다. 또한 '꼭 만점을 받겠어.'의 '-ㄹ-'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②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꾼다.'의 '-ㄴ-'은 보편적 진리를 나타내며, '제가 이 일을 맡겠습니다'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 ③ '좀 있으면 결과가 발표된다.'의 '-ㄴ-'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며, '자급자족이면 결과가 발표됐겠다.'의 '-겠-'은 추측을 나타낸다. ④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의 '-ㄴ-'은 보편적 진리를 나타내며, '이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 ⑤ '친구들은 지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의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며,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의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06 ①은 ‘-어 있다’를 통해 동작의 완료를 나타낸 문장이다.

오답 해설 ②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가 나타난 예이다. ③ ‘할 수 있다’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낼 뿐 완료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모시고 오는’이나 ‘값다’ 모두 현상을 나타낼 뿐 완료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고 있다’를 통해 진행상이 나타난 예이다.

07 ‘언니가 구두를 신고 있다’는 진행상과 완료상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문장이다. 즉 문맥에 따라 언니가 구두를 신는 동작을 진행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언니가 구두를 신는 동작이 완료된 후 그 결과의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미래 시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08 ‘추정된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되다’가 결합한 것이므로 ㉠의 예이다.

오답 해설 ① ‘잡겨’는 피동 접사 ‘-기-’가 결합한 피동사이다. ② ‘막혔다’는 피동 접사 ‘-히-’가 결합한 피동사이다. ③ ‘이루어졌다’는 ‘이루-’에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④ ‘나누어지는데’는 ‘나누-’에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09 ‘열어진’은 ‘열다’의 어간에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섞여졌다’는 피동사 ‘섞이다’에 다시 ‘-어지다’를 덧붙인 것이다. ② ‘모여졌다’는 피동사 ‘모이다’에 다시 ‘-어지다’를 덧붙인 것이다. ④ ‘담겨진’은 피동사 ‘담기다’에 다시 ‘-어지다’를 덧붙인 것이다. ⑤ ‘읽혀져’는 피동사 ‘읽히다’에 다시 ‘-어지다’를 덧붙인 것이다.

10 ㉢에서 ‘대통령’을 뽑은 행위의 주체는 ‘국민들’이다. ㉢에서 행위의 주체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나 아는 사람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행위의 대상인 ‘도둑’이 쫓기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② ㉡은 피동 표현을 통해 ‘첫잔’을 갠 주체인 ‘나’를 밝히지 않고 있다. ③ ㉢은 행위의 주체인 ‘기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⑤ ㉤은 ‘날씨’를 묻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설정하기 어려워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11 ㄱ은 ‘정환이는 나에게 자기는 보람이를 좋아한다고 말했다.’와 같은 간접 인용으로 바꿀 수 있고, ㄴ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너희들) 숙제를 다 해 왔니?”라고 물으셨다.’와 같은 직접 인용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ㄱ의 종결 어미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ㄱ의 인용절에서 ‘나’는 ‘자기’, ‘자신’과 같은 표현으로 바뀐다. ④ ㄴ은 ‘너희들’과 같은 문장 성분이 추가될 수 있다. ⑤ ㄱ의 ‘라고’는 ‘고’, ㄴ의 ‘고’는 ‘라고’로 바뀐다.

12 ‘자식에게 새 옷을 입혀 주고’에서 ‘입히다’는 옷을 입게 한다는 의미로, 피동사가 아니라 사동사이다.

오답 해설 ① ‘주신’은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된 표현으로 주체인 ‘어머니’를 높인다. ② 큰따옴표와 인용격 조사 ‘라고’를 통해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지금도’와 ‘기억한다’의 선어말 어미 ‘-ㄴ-’을 통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살아가던’의 ‘-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13 ‘사행심’은 부정적인 대상이므로, ‘좋은 일에 힘쓰도록 북돋아 줌.’을 뜻하는 ‘장려’나 ‘권하여 장려함.’을 뜻하는 ‘권장’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을 뜻하는 ‘조장’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약물의 과다한 사용이라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남용’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분위기를 만든다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조성’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이라는 의미를 드러내도록 ‘구별’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⑤ 경제 회복을 위해 유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정적 의미의 ‘낭비’를 ‘소비’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14 (마)의 아들이 ‘게임에 중독된 것이 아니고, 게임에 몰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중독’과 ‘몰입’은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내빈’, ‘착석’과 같은 어휘는 ‘해’, ‘자리에 앉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식성이 높은 어휘이다. ② ‘설명’과 비교할 때, ‘변명’은 ‘그’의 말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냐’는 물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밖에’와 비교할 때 긍정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5 인터넷 개인 방송은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로서 방송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정보의 전달 범위가 넓고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영향력도 매우 크다.

16 (나)와 같은 인터넷 개인 방송은 생산자와 수용자 간 또는 수용자끼리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용자의 댓글은 수용자의 다양한 이해와 반응을 보여 주므로 이를 통해 생산자의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가)와 같은 신문 기사는 인쇄 매체로, 정보가 일반적으로 전달되고 수용자의 의견이 전달되거나 매체 생산에 반영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③ (나)와 같은 인터넷 개인 방송은 (가)와 달리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으며 개인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방송에 담기므로 이를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17 (가)에 동물원의 역할을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 ㄱ: 부제에서 ‘동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 보전형 동물원’이라는 ○○ 동물원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ㄴ: ‘흔히 동물원이라고 하면 동물들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쉽다.’에서 동물원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언급한 뒤 기사에서 다루고자 한 동물원의 순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 ㄷ: ○○ 동물원 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판다 번식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멸종 위기종 보전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ㄹ: 마지막 문단에서 ○○ 동물원이 동물들의 서식 환경과 건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18 (가)는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드러내고 있으나, 동물이 야생보다 안전한 동물원에서 살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동물들의 서식 환경을 야생과 유사하게 조성하는 것을 통해 동물에게 바람직한 서식 환경은 본래 서식지인 야생임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가)와 (나) 둘 다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돌고래를 감금하고 쇼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에서 동물원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드러난다. ㉤ 남방큰돌고래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리까지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하며 생태 법인을 언급한 것에서 드러난다.

19 ㉠은 ‘동물원이 이런 일도?’에서 의문형 표현을 활용했으며, ‘판다, 한국 호랑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 동물원이 멸종 위기종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계목으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 본문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지 않았다. ㉣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 사례 또한 포함하지 않았다. ㉤ 기사에서 제시한 ○○ 동물원의 노력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세상에 없는 동물’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 20 ○○ 동물원 원장의 인터뷰는 판다의 번식을 위해 노력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판다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가)는 동물원이 멸종 위기종을 보전하는 등 동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판다의 번식에 성공한 사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타당하다. ③ ○○ 동물원의 개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했으므로 신뢰성이 높다. ⑤ 동물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동물원의 순기능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동물원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점은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1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공유 기능은 방송을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를 통해 방송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④ 수용자는 ‘좋아요’, ‘싫어요’ 기능을 통해 방송에 대한 태도를 드러낼 수 있고, 생산자는 이를 통해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 22 이 인터넷 개인 방송의 제작 목적은 남방큰돌고래의 사례를 통해 동물에게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살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설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동물 보호나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예상 수용자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해양 보호 생물종 관련 링크를 제시한 것이나 생태 법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것을 통해 예상 수용자가 이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음이 드러난다.

- 23 이 방송의 생산자는 동물들이 서식지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켜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봄바람’은 이와 같은 주장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짚고 있고, ‘동물 사랑’은 생산자와 관점을 같이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둘이 서로 대비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24 ‘학생 3’은 동물원의 긍정적 역할과 관련된 기사를 본 내용을 떠올려 방송 내용과 대비되는 관점에 대해 찾아보려 하고 있으므로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학생 1’은 방송 내용이 유의했음을 언급했으나 생산자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 ② ‘학생 1’은 방송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③ ‘학생 2’는 정보의 출처에 주목하거나 방송 내용이 신뢰할 만하다는 판단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④ ‘학생 2’는 방송에서 제시하지 않은 정보에 아쉬움을 드러냈으나 방송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1 음운 변동 1. 교체

본문 250~251쪽

- 01 ㄷ 02 ㄱ, ㄷ, ㅂ 03 유음화 04 예사소리 05 ㅈ, ㅊ 06 형식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없다 16 비음화, 방법
 17 유음화, 역행 18 뒤 19 구개음화 20 비음화 21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22 유음화 23 실질 24 (1) [바치] (2) 구개음화 25 ㉠ 26 ㉡
 27 ㉢ 28 ㉣ 29 ㉤

- 07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교체가 일어나도 음운의 수에는 변동이 없다.
- 08 유음화는 ‘ㄹ’의 위치에 따라 순행 동화(예 갈날[갈랸])와 역행 동화(예 신라[실라])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 09 ‘난로[날:로]’, ‘천리[철리]’는 ‘ㄴ’이 유음 ‘ㄹ’의 앞에서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 10 한자어에서 끝소리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ㅈ’도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난다. (예 절도[절또])
- 12 ‘갈등[갈똥]’, ‘멸시[멸씨]’, ‘발전[발췌]’과 같이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에서 끝소리 ‘ㄹ’ 뒤에 결합되는 ‘ㄷ, ㅈ, ㅊ’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 20 ‘국민’은 [궁민]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의 끝소리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에 해당한다.
- 21 ‘앞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바뀌어 [압니]가 되었다가,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변하여 [압니]가 된다. 따라서 ‘앞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 22 ‘천리[철리], 신라[실라], 광한루[광:할루]’는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고, ‘물난리[물랸리]’는 ‘ㄴ’의 ‘ㄴ’ 2개가 앞과 뒤에 있는 ‘ㄹ’의 영향을 받아 모두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 23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는 환경에서 일어나므로, ‘발 + 일 → 발일[반닐]’과 같이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하는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24 ‘발이’는 실질 형태소(‘발’)와 형식 형태소(‘이’)가 이어지므로 ‘ㄹ’ 앞의 ‘ㅍ’이 [ㅂ]으로 바뀌어 [바치]로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25 ‘꽃을’은 받침 ‘ㅈ’이 연음되어 [꼬출]로 발음될 뿐 음운이 교체되지는 않는다.
- 오답 해설** ① ‘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꼬]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ㅈ → [ㄷ])가 일어난다. ③ ‘꽃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꼬만]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꼬만]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ㅈ → [ㄷ] → [ㄴ])가 일어난다. ④ ‘꽃밭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꼬밭침]이 되었다가 된소리되기에 따라 [꼬뽕침]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ㅈ → [ㄷ] / ㅂ → [ㅃ])가 일어난다. ⑤ ‘꽃꽃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꽃’이 [꼬]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ㅈ → [ㄷ])가 일어난다. 이후 ‘꽃이’의 받침 ‘ㄷ’이 연음되어 [꼬꼬지]로 발음된다.

- 26 ‘맑다[막따]’는 자음군 단순화(ㅌ → [ㄱ])와 된소리되기(ㄷ → [ㅌ])가 일어난다.

- 27 ‘넙기다’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삼고[삼:꼬]’와 같이 ‘ㄱ’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사동 접미사나 피동 접미사가 오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넙기다’의 ‘-기-’는 사동 접미사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④ ‘더듬대[더듬따]’와 ‘신기개[산:끼개]’는 어간이 각각 ‘ㅁ’과 ‘ㄴ’으로 끝나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② ‘값도[갑또]’는 앞말의 받침이 ‘ㅂ(ㅃ)’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③ ‘닭과[닥꽈]’는 앞말의 받침이 ‘ㄱ(ㄷ)’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 28 ‘미닫이[미다지]’는 받침 ‘ㄷ’이 뒤에 오는 형식 형태소 ‘ㄹ’의 영향을 받아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홀이불[혼니불]’은 형식 형태소(‘홀-’) 뒤에 실질 형태소(‘이불’)가 결합한 것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굴하다[구치다]’는 ‘ㅌ(ㄷ + ㅎ)’이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②, ③ ‘밥술이[밥소치]’와 ‘발입니다[바침니다]’는 ‘ㅌ’이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말이[마지]’는 ‘ㄷ’이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29 ‘생산량[생산냥]’은 ‘ㄹ’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발이[바치]: 구개음화 ② 덮개[덥개 → 덩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③ 겹옷을[견우슴 → 거두슴]: 음절의 끝소리 규칙 ⑤ 줄넘기[줄럼기 → 줄럼끼]: 유음화, 된소리되기

01 축약, 첨가 02 거센소리되기 03 파생어 04 ㅎ 05 탈락 06 1 07 ㅁ
08 × 09 × 10 ○ 11 × 12 ○ 13 ○ 14 초성 15 값싸다 16 두
17 — 18 줄어든다 19 축약 20 거센소리되기 21 ㄴ 22 (1) [색년필] →
[생년필] (2) 첨가 → 교체 23 (1) [바파고] (2) 거센소리되기(축약) 24 (1) ㉠,
㉡ (2)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06 가랑잎: [가랑입(음절의 끝소리 규칙 - 교체) → 가랑닙(‘ㄴ’ 첨가 - 첨가)]

08 ‘담그- + -아 → 담가’와 같이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09 어간의 끝소리 자음 ‘ㄹ’은 몇몇 어미 앞에서만 탈락한다.

10 서른여덟: [서른녀덟(‘ㄴ’ 첨가) → 서른녀덜(자음군 단순화)]

11 ‘좋아[조:아]’의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만나 탈락한다. 또한 ‘좋고[조:코]’의 ‘ㅎ’은 뒤에 오는 ‘ㄱ’과 만나 [ㅋ]으로 축약된다.

12 곱행열차: [그팽열차(거센소리되기 - 축약) → 그팽널차(‘ㄴ’ 첨가 - 첨가)]

15 ‘홉까지[홉카지]’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다. ‘값싸다’ 또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갑싸다]로 발음된다. 반면 ‘잡히다’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자피다]로 발음된다.

16 ‘홉하고[홉카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하고([홉하고 → 홉카고]),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므로([홉카고 → 홉카고]) 음운의 개수가 2개 줄어든다.

17 ‘고프- + -아서 → 고파서’에서는 ‘ㄴ’ 탈락이 일어난다.

18 ‘서- + -어서 → 서서’는 ‘ㄴ’이 탈락한 것이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19 ‘넌파랑다’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어 [넌파라타]로 발음된다.

20 ‘중지’는 ‘ㅎ’과 ‘ㅈ’이 만나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21 ‘담요’는 ‘ㄴ’이 첨가되어 [담:뇨]로 발음된다.

22 색연필: [색년필(‘ㄴ’ 첨가 - 첨가) → 생년필(비음화 - 교체)]

23 ‘밥하고’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어 [바파고]로 발음되는데, 이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24 (1) ㉠과 ㉡은 모두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 것이다. (2) ㉢은 ‘ㅎ’ 탈락이, ㉣은 ‘ㄴ’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25 ‘크- + -어서 → 커서’는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싫대[실타]’는 자음 축약(ㅎ + ㄷ → ㅌ)에 해당한다. ② ‘놓은[노은]’은 자음(ㅎ) 탈락에 해당한다. ③ ‘울- + -는 → 우는’은 자음(ㄹ) 탈락에 해당한다. ⑤ ‘건너- + -었다 → 건넜다’는 모음(ㅡ) 탈락에 해당한다.

26 ‘실학’은 표기 그대로 [실학]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목화[모화] ③ 끊기대[끈키다] ④ 밥하다[바파다] ⑤ 빨강대[빨:가타]

27 ‘따르- + -면서 → 따르면서’에서는 ‘ㄴ’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담그- + -았- + -다 → 담갔다 ③ 아프- + -아서 → 아파서 ④ 모으- + -아라 → 모아라 ⑤ 예쁘- + -어서 → 예뻐서

28 ‘눈요기’의 발음은 [눈뇨기]로, ‘ㄴ’이 첨가되었다.

오답 해설 ② 막히면[마키면]: ㄱ + ㅎ → ㅋ - 축약(거센소리되기) ③ 물난리[물랄리]: ㄹ + ㄴ → ㄹ + ㄹ / ㄴ + ㄹ → ㄹ + ㄹ - 교체(유음화) ④ 벗어나[벗나무] → 변나무: ㅈ → ㄷ -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ㄷ + ㄴ → ㄴ + ㄴ - 교체(비음화) ⑤ 뉘어서[너어서]: 탈락(ㅎ) 탈락

29 <보기>에서는 ‘ㅎ’ 탈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좋아요[조:아요]’에서도 ‘ㅎ’ 탈락이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좁히다[조피다]’, ‘그렇죠[그려쵸]’, ‘하얏대[하야타]’는 ‘ㅎ’과 ‘ㅂ’, ‘ㅈ’, ‘ㄷ’이 만나 각각 [ㅍ], [ㅊ],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놓는다[논는다] → 논는다’는 ‘ㅎ’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교체되었다가 비음화에 의해 다시 [ㄴ]으로 교체된 것이다.

30 ‘입학[이팍]’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축하[추카]’에서도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실낱[실탈]’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②, ④ ‘국수[국쑤]’, ‘역전[역쩨]’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여덟[여덜]’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31 ‘읽- + -어서 → 읽어서[이러서]’는 ‘ㅎ’이 탈락한 것으로, 음운의 축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놓고[노코]’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된 것이다. ②, ④ ‘술하다[술하다] → 수타다’와 ‘파랗다[파라타]’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것이다. ⑤ ‘달하느[다티는] → 다치는’은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후에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01 주체 02 부사어 03 상대 04 드릴(드리다) 05 뵈고 06 상대 07 ○
08 × 09 ○ 10 ○ 11 × 12 ○ 13 선어말 어미 14 께 15 주체 16 어
머니 17 상대 18 계시면 → 있으시면 19 ㉠: 아버지, ㉡: 께, 드리다, ㉢: -
어요 20 ㉠: ㉢, ㉡: ㉤ 21 물어봐 → 여쭙봐 22 ㉡ 23 ㉢ 24 ㉣ 25 ㉤
26 ㉢

08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다.

11 '드리다', '모시다'는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16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합니다.'는 '-버니다'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17 '동생이 밥을 먹습니다.'에는 '-습니다'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18 '궁금한 점'은 직접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 <보기>에서 서술어 '가시었어요'의 주체는 '아버지' ㉠이고, '아버지'에 대한 높임은 '께서', '-시-'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객체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에 대한 높임은 '께', '드리다' ㉡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한편 화자의 말을 듣는 대상은 '어머니'이고, '어머니'에 대한 높임은 종결 표현 '-어요' ㉢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20 ㉠: ㉢는 주체(어머니)를 높이고(께서, '-시-') 상대를 낮추어('-어') 표현하였다. ㉡: ㉤는 객체(할아버지)를 높이고(께, '드리다') 상대를 낮추어('-어')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는 상대를 높여('-어요') 표현하였다.

21 선유의 마지막 말 중 객체인 '선생님'을 높여야 하므로 '물어보다' 대신 특수 어휘 '여쭙보다'를 사용해야 한다.

22 '교수님'의 소유물인 '책'을 높임으로써 높여야 할 대상인 '교수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 ㉢, ㉣, ㉤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직접 높이고 있다.

23 '께'와 '드리다'를 통해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 '께서'와 '덕', '계시다'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며, '-버니다'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 '-어요'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며, '-시-'를 사용하여 '할아버지'의 눈을 높임으로써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버니다'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24 ㉠: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25 ㉢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로,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객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큰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26 '잡수시다'는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고, '연세'는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이다.

오답 해설 ㉠ 높여야 할 인물(그분)과 관련된 것(성함)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다. ㉢ 객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여쭙다)가 사용되었으며,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책)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다. ㉤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특수 어휘(모시다)가 사용되었다. ㉥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 '잡수시다'가 사용되었다.

01 발화시 02 형용사 03 -겠- 04 과거 05 추측 06 진행상 07 ○
 08 × 09 ○ 10 ○ 11 × 12 × 13 발화시, 사건시 14 앞서 있는, 나중
 인 15 동사 16 진행상 17 회상 18 완료상 19 일맞는 → 일맞은 20 ⑥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08 동사는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11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는 무척 재미있다.’에서 ‘들은’은 동사 어간 ‘들-’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붙여 과거를 나타낸 것이다.

12 ‘그는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보조 용언 ‘-어 있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다.

19 ‘알맞다’는 형용사이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해야 한다.

20 ⑥에 사용된 ‘-었-’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감기에 걸림.)의 결과 상태(목이 잠겨 있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아직도’) 있음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 ㉡: ‘소풍날’, ‘어제’라는 과거의 시간에 대한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았-’은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는 예에 해당한다. ㉢: ‘-았-’은 과제 준비를 하기 위해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예에 해당한다.

21 ㉠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

오답 해설 ㉡~㉣의 ‘-겠-’은 모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22 ㉠의 ‘먹어 간다’, ㉢의 ‘사용하고 있다’에는 진행상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의 ‘가 있다’와 ㉣의 ‘써 버렸다’에는 완료상이 드러난다.

23 ‘-더-’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해설 ① ‘-겠-’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② ‘-리-’는 미래를 나타낸다. ④ ‘-ㄹ 것’은 의지를 나타낸다. ⑤ ‘-었었-’은 단절된 과거를 나타낸다.

24 ‘빠른’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로, 형용사 어간 ‘빠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동사 어간 ‘쓰-’에 관형사형 어미 ‘-던’을 붙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② 형용사 어간 ‘귀엽-’에 관형사형 어미 ‘-다’를 붙여 과거 시제(회상)를 나타내고 있다. ③ 형용사 어간 ‘조용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동사 어간 ‘바치-’에 선어말 어미 ‘-리-’를 붙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25 ‘익어 간다’는 ‘-어 가다’를 사용하여 곡식이 익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오답 해설 ① ‘-어 버리다’를 사용하여 이미 소문이 퍼졌음을 나타낸 완료상이다. ② ‘-고 있다’를 사용하여 발레 학원에 다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④ ‘-고 있다’를 사용하여 눈발이 날리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⑤ ‘-어 있다’를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이 마을 화관에 모인 사건이 완결되어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한 완료상이다.

26 ㉡의 ‘산’은 동사 어간 ‘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의 ‘-고 있다’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의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

시에 앞선다. ④ ㉢의 ‘-어 버리다’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다. ⑤ ㉣은 동사 어간 ‘공부하-’에 관형사형 어미 ‘-리’이 붙어 미래 시제를 나타낸 것으로, 미래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

27 ㉡는 벡타이를 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벡타이를 댄 동작이 진행되는 중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을 붙여, 형이 과거에 양치질을 하는 동작을 진행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동작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③ ‘-고 있-’을 통해 안경을 벗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안경을 벗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④ ‘-고 있-’을 통해 그가 연말에 기부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기부하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⑤ ‘-고 있-’을 통해 누나의 생일이 내일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아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01 피동문 02 부사어 03 목적어 04 -되다 05 따옴표 06 간접 07 ×
08 × 09 ○ 10 × 11 ○ 12 ○ 13 강조하기 14 라고 15 간접
16 -하- 17 어제는 18 친구가 벌에게 쏘였다. 19 소녀는 나에게 내가 정
말 친절하다고 하였다.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07 ‘-우-, -구-, -추-’는 사동 접미사이다.

08 용언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이면 사동 표현이 된다.

10 ‘달였다’는 ‘달이- + -었- + -다’로 분석된다. 즉, 피동 접미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11 ‘믿겨지다’는 피동사 ‘믿기다’에 ‘-어지다’가 중복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18 능동문의 목적어(‘친구들’)를 피동문의 주어(‘친구가’)로 바꾸고, 능동문의 주어(‘벌이’)를 피동문의 부사어(‘벌에게’)로 바꾼다. 그리고 피동 접미사 ‘-이-’를 활용하여 서술어를 ‘쏘였다’로 만든다.

19 “당신은 정말 친절하세요.”에서 ‘당신은’을 ‘내가’로 바꾸고,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20 ㉠: 직접 인용된 발화는 ‘어제’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은 어제 시점에서의 ‘내일’인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 ‘계십시오’는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간접 인용하게 되면 자신을 높이는 표현을 쓸 수 없으므로, 서술어를 ‘있다’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있으라고’로 바뀌어야 한다. → 아들이 어제 저에게 오늘 사무실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21 ‘나누어줍니다’는 ‘나누-’에 ‘-어지다’를 붙이는 통사적 피동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예상되어진다’는 피동을 표현하는 ‘-되다’와 ‘-어지다’가 같이 사용된 이중 피동어이므로, ‘예상된다’로 고쳐야 한다. ② ‘달혀졌는지’는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함께 사용된 이중 피동어이므로, ‘달혔는지’나 ‘달아졌는지’로 고쳐야 한다. ③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능동 표현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므로, ‘그가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⑤ ‘말썽이 빚어지고’는 번역 투의 표현으로, 불필요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말썽을 빚고’로 고쳐야 한다.

22 ‘태풍에 건물이 흔들리다.’는 건물이라는 주체가 태풍에 의해 흔들림을 당하는 것을 표현한 피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당기다’는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의 뜻으로, 피동 접미사 ‘-기-’가 붙은 피동사가 아니다. ‘당기다’는 주어가 동작을 제함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② ‘감기다’의 ‘-기-’는 사동 접미사로, ‘감기다’는 사동 표현이다. ③ ‘놀리다’는 ‘짓못게 굴거나 흥을 보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다.’의 뜻으로, 피동 접미사 ‘-라-’가 붙은 피동사가 아니다. ‘놀리다’는 주어가 동작을 제함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⑤ ‘숙이다’의 ‘-이-’는 사동 접미사로, ‘숙이다’는 사동 표현이다.

23 인용 표현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을 말한다.

오답 해설 ① 직접 인용할 때에는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② 인용 표현은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구분한다. ③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것은 조사 ‘고’이다. ④ 인용하는 문장에 큰따옴표를 붙이는 것은 직접 인용이다.

24 ㉠은 ‘그가 범인이다.’라는 문장이 ‘나는 생각한다.’라는 문장 속에 부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으로, 인용 표현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네 친구를 사랑한다.’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③ ‘함께 영화를 보자.’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④ ‘곧 새로운 사랑이 올 거야.’가 직접 인용된 문장이다. ⑤ ‘사랑한다.’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25 ‘들다’는 ‘들리다(들- + -리- + -다)’라는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 ‘칭찬이 부모님에 의해 동생에게 들렸다.’는 어색한 문장이다.

오답 해설 ① ‘취가 고양이에게 잡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② ‘풀이 사람들에 의해 뽑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③ ‘문이 누나에 의해 세게 닫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⑤ ‘탁자 위에 있는 유리병이 그에 의해 깨졌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26 ㉠을 ㉡으로 바꾸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인 ‘제가’가 생략된다. ㉠의 목적어는 ㉡에서 주어가 된다.

오답 해설 ①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③ ‘깨- + -었- + -어오’에 ‘-어지-’가 결합하여 ‘깨- + -어지- + -었- + -어오’라는 피동 표현이 된다. ④ ㉠은 주어를 통해 화분을 깬 주체를 밝히고 있으나, ㉡에는 화분을 깬 주체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⑤ 피동 표현은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27 직접 인용된 발화는 언니가 말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주체인 언니를 다시 가리키는 말인 ‘자기’를 사용한 ‘자기의’가 들어가야 한다. 한편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에는 ‘남기라고’가 들어가야 한다.

01 한자 02 ㅅ 03 방점 04 -음 05 가 06 모음 조화 07 × 08 ○
09 × 10 ○ 11 × 12 ○ 13 거센소리 14 선어말 어미 15 ㅅ 16 이어
적기 17 근대 국어 18 -기 19 모음 조화 20 끊어 적기를 하는 현대 국어
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21 ① 22 ② 23 ② 24 ④
25 ⑤ 26 ② 27 ⑤

07 된소리 계열이 생겨난 것은 중세 국어 시기이다.

09 중세 국어 시기에 쓰인 ‘-이/-잇-’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습-/-줍-/-습-’이 있다.

11 근대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 거듭 적기, 끊어 적기가 섞여서 나타났다.

19 현대 국어의 ‘서로’를 중세 국어에서 ‘서르’로 표기한 것은, ‘서’의 ‘ㄴ’이 음성 모음이므로 뒤에 오는 모음 역시 음성 모음인 ‘ㅡ’를 넣어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20 중세 국어에서는 ‘말쌈’, ‘노미’, ‘쁘들’처럼 이어 적기를 한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말이’, ‘사람이’, ‘뜻을’처럼 끊어 적기를 한다.

21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된 것은 근대 국어 시기부터이다.

오답 해설 ② 현대 국어에 없는 ‘ㅅ, ㅅ, ㅅ’ 등의 음운이 사용되었다. ③ 소리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 적기가 일반적이었다. ④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방점이 있었다. ⑤ ‘뿌메’처럼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다.

22 된소리 계열이 나타난 것은 중세 국어 시기에 해당한다.

23 ‘쁘- + -음 + 에 → 뿌메’는 음성 모음끼리 결합되어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몸’과 ‘일흔’의 ‘ㄴ’, ‘하늘’의 ‘ㄴ’은 양성 모음에 ‘을’이라는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⑤ 음성 모음을 가진 어간 ‘비릇-’에 ‘-음’이라는 양성 모음을 가진 어미가 결합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24 ㉔은 이어 적기가 사용된 반면, 나머지는 모두 끊어 적기가 사용되었다.

25 ‘ㅅ’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는 ‘ㅅㅅ미나라’이다.

오답 해설 ② ‘ㅅ’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 ③, ④ 각자 병서

26 ‘깃손’은 ‘깃 + 손’으로, 거듭 적기가 사용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깃- + -은’을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③ ‘깃 + 이’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④ ‘깃 + 에’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⑤ ‘깃 + 에’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27 ‘묻줍고’는 선어말 어미 ‘-줍-’을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즉, ‘묻줍고’는 현대 국어처럼 ‘여쭙다’ 같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 것도, 청자를 높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명사형 어미 ‘-ㅁ’을 사용한 현대 국어(‘호도함’)와 달리 중세 국어(‘호도함’)에서는 명사형 어미 ‘-음’을 사용하였다. ② ‘쁘디’에는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ㅂㅅ)이 사용되었다. ③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한 현대 국어(‘성손을’)와 달리 중세 국어(‘聖孫(성손)을’)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하였다. ④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 국어(‘내쉴습니다’)와 중세 국어(‘내시니이다’)에서 모두 ‘-시-’가 사용되었다.

01 한글 02 의사소통 03 표준어, 어법 04 원형 05 조사 06 일찍이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책이요 16 하룻
길 17 주십시오 18 학생으로서 19 널따란 20 백분율 21 시들은 → 시든
22 ㉠: 꽃이, ㉡: 꽃에 23 조사 24 ④ 25 ④ 26 ⑤ 27 ② 28 ② 29 ①

07 제5항 ‘다만’(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에 따라 ‘깎뚜기 → 깎두기’로 고쳐야 한다.

08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의 뜻이고,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의 뜻이므로, ‘맞추면 → 맞히면’으로 고쳐야 한다.

10 ‘들릴’은 용언, 뒤에 오는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

13 제18항 ‘ㄷ(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 적)’에 따라 ‘내밀은 → 내민’으로 고쳐야 한다.

15 제15항 [붙임 3](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에 따르면 ‘책이요’가 맞는 표기이다.

16 제30항 ‘ㄹ(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에 따르면 ‘하룻길’이 맞는 표기이다.

17 제15항 [붙임 2](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에 따르면 ‘주십시오’가 맞는 표기이다.

18 제57항(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에 따라 ‘로써’와 ‘로써’를 구분해 적는다. ‘로써’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므로 ‘학생으로서’가 맞는 표기이다. ‘로써’는 재료나 수단 또는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19 제21항 ‘ㄹ’의 ‘다만’(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중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에 따르면 ‘널따란’이 맞는 표기이다.

20 제11항 [붙임 1]의 ‘다만’(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른’은 ‘열, 율’로 적는다.)에 따르면 ‘백분율’이 맞는 표기이다.

21 ‘시들은’은 어간(시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결합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ㄹ’을 탈락시키지 않고 ‘-은’을 붙인 것으로, 잘못된 표기이다. 제18항 ‘ㄷ(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 적)’에 따라 ‘시든’으로 적어야 한다.

22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 [꼬치]와 [꼬체]는 연음된 발음이므로, 본래의 형태는 각각 ‘꽃이’와 ‘꽃에’가 되어야 한다.

24 ‘안사람’은 [안싸람]으로 소리 나지만 ‘안사람’으로 표기하는데, 이는 어법에 맞게 적은 것에 해당한다.

- 25 ‘-든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④의 밑줄 친 부분은 ‘놀랐던지’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로써’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② ‘달혔다’는 ‘달다’라는 자동사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 ‘-히-’,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 것이다. ③ ‘귀걸이’는 ‘귀’에 ‘걸’이 붙어 ‘귀’를 이르는 말로, ‘귀고리’와 ‘귀걸이’ 모두 표준어이다. ⑤ ‘절이다’는 ‘절다’의 자동사로, ‘생선이나 야채 따위를 간이나 들거나 숨이 죽도록 조금기가 배어들게 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 26 ‘구름’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④ ‘빛’은 [빔], ‘웃’은 [움], ‘잎’은 [입], ‘바깥’은 [바깼]으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쓴 것이다.

- 27 ‘젓가락’은 ‘저’([㉠])와 ‘가락’의 합성어로,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이 붙은 것이다. 반면 ‘술가락’은 ‘술’([㉡])과 ‘가락’의 합성어로, 한글 맞춤법 제29항(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에 따라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뀐 것이다.

- 28 ‘놀리다, 발글, 점정, 아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에 해당하며, ‘먹는다[명는다], 북극점[북꼭점], 밝는다[밝:는다]’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에 해당한다.

- 29 ‘무덤’의 어원은 ‘묻- + -엄’인데, ‘묻-’은 명사가 아니라 용언 어간이므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고랑’의 어원은 ‘굴(명사) + -랑’이다. ③ ‘이파리’의 어원은 ‘잎(명사) + -아리’이다. ④ ‘바가지’의 어원은 ‘박(명사) + -아지’이다. ⑤ ‘지푸라기’의 어원은 ‘짚(명사) + -으라기’이다.

08 어휘 _ 고유어/한자어/외래어/전문어/사고 도구어

본문 264~265쪽

- 01 고유어 02 개념 03 고유어 04 외래어 05 전문어 06 ○ 07 × 08 ○ 09 ○ 10 ○ 11 × 12 고유어 13 외래어 14 사고 도구어 15 마음 16 외래어, 외국어 17 산소, 우주 18 (1) 구름, 빨강 (2) 간식, 책 (3) 로켓, 망토 19 외래어, 외국어 20 ② 21 ① 22 ③ 23 ③ 24 ④

- 07 바꾸어 쓸 수 있는 우리말이 존재하는 것은 외국어이다.

- 11 ‘버스’는 외래어이고 ‘레스토랑’은 외국어이다.

- 17 ‘꽃, 흙, 하늘, 아기’는 고유어, ‘산소(酸素), 우주(宇宙)’는 한자어이다.

- 18 ‘구름, 빨강’은 고유어, ‘간식(間食), 책(冊)’은 한자어, ‘로켓(rocket), 망토(manteau)’는 외래어이다.

- 19 ‘피아노(piano)’는 대체할 어휘가 없으므로 외래어이지만, ‘게스트(guest)’는 ‘손님’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외국어이다.

- 20 전문어는 전문 분야의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②는 은어에 대한 설명이다.

- 21 ‘노랗다, 누렇다, 노릇하다, 누르스름하다, 샛노랗다’는 색채어가 발달했음을 보여 주는 예이며, ‘달다, 달콤하다, 달짝지근하다, 들척지근하다’는 미각어가 발달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이를 통해 우리말 고유어에 감각어가 발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가 발달한 것은 맞지만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③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말이 많은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④ 하나의 말이 지닌 의미의 폭이 넓은 말은 많으나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⑤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은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22 ‘고치다’라는 고유어가 ‘개혁하다’, ‘치료하다’, ‘교정하다’, ‘수정하다’, ‘수선하다’ 등의 한자어로 대응되는 것은 그만큼 고유어의 의미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의 의미가 더욱 세분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오답 해설 ① 고유어에 비해 다의어가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④, ⑤ 고유어에 비해 동음의의어가 많거나, 반의 관계가 뚜렷하거나, 상위어가 발달되어 있는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23 <보기>의 의사 1과 의사 2는 ‘심계 항진’, ‘안구 진탕’, ‘연하 곤란’ 등의 전문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어는 전문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답 해설 ① 전문어는 성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전문어는 세대와 관계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④ 듣기 거북한 말에 대해 우회적으로 발화하는 것은 완곡어법에 해당한다. ⑤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말은 유행어이다.

- 24 <보기>의 밑줄 친 ‘분류’, ‘구분’은 사고 도구어로, 이는 전문어와 달리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오답 해설 ①~③ ‘분류(分類)’와 ‘구분(區分)’은 한자로 된 사고 도구어이다. 사고 도구어는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드러내는 말이다. ⑤ ‘분류’와 ‘구분’은 ‘나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두 ‘나누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9 품사 ① _ 체언/용언

본문 266~267쪽

01 보어 02 인칭 03 순서 04 서술어, 활용 05 성질 06 보조 용언 07 ×
08 ○ 09 × 10 × 11 ○ 12 ○ 13 명사, 대명사 14 명사 15 동사
16 들어온 17 형용사, 동사 18 보조 용언 19 수, 일 20 (1) 데 (2) 그, 여기
(3) 일하는 (4) 멀다 21 허름하다 22 ③ 23 ② 24 ⑤ 25 ① 26 ④
27 ② 28 ① 29 ③

- 07 '그를 잊을 리 없다.'에서 '리'는 의존 명사이다.
- 09 '아이 셋 중에 한 명이 매우 뛰어나다.'에서 수사는 '셋'뿐이다.
'한'은 수 관형사이다.
- 10 '다르듯'과 '그리하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 19 우리(대명사)가(조사) 할(동사) 수(명사 - 의존 명사) 없는(형용사)
일(명사)도(조사) 있다(형용사).
- 20 그(대명사)가(조사) 일하는(동사) 데(명사 - 의존 명사)는(조사)
여기(대명사)서(조사) 멀다(형용사).
- 21 나(대명사)는(조사) 허름한(형용사) 책방(명사)에서(조사) 곰팡이
(명사) 쓴(동사) 헌책(명사)을(조사) 뒤적이며(동사) 학창(명사)
시절(명사)을(조사) 보냈다(동사). → 형용사는 '허름하다' 하나
뿐이다.
- 22 우리(대명사)는(조사) 시골(명사) 할머니(명사) 맥(명사)에서(조
사) 즐겁게(형용사) 하루(명사)를(조사) 보냈다(동사). → 수사는
들어 있지 않다.
- 23 '어느'는 뒤에 오는 체언 '저녁'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① '나위'는 의존 명사이다. ③ '여기'는 대명사이다. ④ '그것'은 대명사
이다. ⑤ '한두째'는 수사이다.
- 24 '마주치다'는 동사이다.
오답 해설 ①~④ '파랗다', '비슷하다', '뛰어나다', '높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 25 '느낀 대로 표현하고 싶었다.'의 '대로'는 명사(의존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② '잘못'은 명사이다. ③ '열'은 수사이다. ④ '만큼'은 명사(의존 명사)이
다. ⑤ '무엇'은 대명사이다.
- 26 '되고 싶었다'의 '싶다'는 소망의 뜻을 더하는 보조 용언이다.
오답 해설 ①의 '놀다', ②의 '인사하다', ③의 '가다', ⑤의 '오다'는 모두 실질적인
뜻을 지닌 본용언으로 사용되었다.
- 27 '쌍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본용언이다.
오답 해설 ①의 '놀다', ③의 '체하다', ④의 '듯싶다', ⑤의 '보다'는 모두 본용언의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었다.
- 28 옛날(명사) 사진(명사)을(조사) 보니(동사) 기뻐던(형용사) 기억
(명사) 하나(수사)가(조사) 떠올랐다(동사). → '옛날'은 명사이다.
- 29 <보기>의 ㉠은 의존 명사이다. ㉢의 '때'는 자립 명사로, '때가 되
었다.'처럼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①의 '터', ②의 '지', ④의 '만큼', ⑤의 '바'는 모두 의존 명사로,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없다.

10 품사 ② _ 관계언/수식언/독립언

본문 268~269쪽

01 가 02 서술 03 명사 04 부사 05 못 06 아이고 07 × 08 ○ 09 ×
10 ○ 11 ○ 12 × 13 보조사 14 보격 조사 15 관형사, 부사 16 관형사
17 오늘 18 감탄사 19 의, 은, 이다 20 (1) 가 (2) 을 (3) 에 21 보격 조사
22 ㉠: 수사, ㉡: 관형사, ㉢: 명사 23 ㉠, ㉡ 24 ㉠: 명사, ㉢: 부사 25 ㉠:
감탄사, ㉡: 관형사 26 (1) ㉡, ㉢ (2) ㉠, ㉢ 27 ㉡ 28 ㉣ 29 ㉡ 30 ㉡

- 07 같은 조사끼리 결합할 수 있으므로, 조사는 다른 조사 뒤에도 붙
을 수 있다.
- 09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다.
- 12 '민수야'는 '명사 + 호격 조사' 형태의 독립어이지만, 감탄사는
아니다.
- 19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 '은'은 보조
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 20 '아이기'의 '가'는 주격 조사, '의자에'의 '에'는 부사격 조사, '책
을'의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 21 '되다', '아니다'가 쓰인 문장에서 주어에 붙은 '이/가'를 제외하고
다른 체언에 붙은 '이/가'는 보격 조사이다.
- 22 ㉠은 자식이 세 명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수사이다. 그리
고 ㉡은 뒤에 오는 체언 '살'(의존 명사)을 수식하므로 수 관형사
이다. ㉢은 '술서가 가장 먼저인 차례'가 아니라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손위인 사람(만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명사이다.
- 23 ㉠은 뒤에 오는 '말'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은 뒤에 오는 '사
람들'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므로, 둘 다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은 '일처리'를 수식하지만, '빠르고', '빠르니'와 같이 활용하는 형용
사이다.
- 24 ㉠은 '을'이라는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므로 명사이
다. 그리고 ㉡은 뒤에 오는 용언 '먹어서'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 25 ㉠은 뜻밖에 놀라운 일이나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
로, 감탄사이다. 그리고 ㉡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관형사로, 뒤
에 오는 체언 '상황'을 수식한다.
- 26 '이'(㉡)는 체언 '사과'를, '그'(㉢)는 체언 '연필'을 수식하는 관형
사이다. 또한 '이리'(㉣)는 용언 '오다'를, '그리'(㉤)는 용언 '보내
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 27 '마다'는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오답 해설 ① '하고'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②~④ '에', '랑', '이며'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 28 '과연'은 부사이다.
오답 해설 ①의 '첫', ②의 '무슨', ③의 '아무', ⑤의 '온갖'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
식하는 관형사이다.

29 '대로'는 의존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①의 '모름지기', ③의 '일찍이', ④의 '같이', ⑤의 '실랑실랑'은 모두 부사이다.

30 ㉠과 ㉡은 감탄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명사가 독립어로 쓰인 것이다. ㉡ 화제를 전환하거나 상반되는 내용을 제시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11 문장 성분 _ 주성분/부속 성분/독립 성분

본문 270~271쪽

01 보어 02 점수를 03 이상한, 마들로 04 물정에 05 독립어 06 ○ 07 ×
08 ○ 09 ○ 10 × 11 주어 12 예쁘다 13 정보의 14 공원에서 15 부
사어 16 나는, 동창생을, 만났다 17 보니, 우울하다 18 ㉠: 주어, ㉡: 부사
어, ㉢: 목적어, ㉣: 서술어 19 관형어 20 ㉠ 21 ㉡ 22 ㉢ 23 ㉡ 24 ㉢
25 ㉢ 26 ㉡

07 주어는 '그는'이고, '귀감이'는 보어이다.

10 부사어 '너무'는 관형어 '현'을 수식한다.

16 '나는 어제 길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다.'에서 주어는 '나는', 목적어는 '동창생들', 서술어는 '만났다'로, 이들이 주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어제', '길에서', '우연히'는 부사어, '초등학교'는 관형어이다.

17 '어두운 하늘을 보다.(보니) + 괜히 기분마저 우울하다.'의 형태이므로, 서술어는 '보니'와 '우울하다'의 2개이다.

18 '어머니께서'는 주어, '형에게'는 필수적 부사어, '용돈을'은 목적어, '주셨다'는 서술어에 해당한다.

19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것은 관형어이다.

20 그들은(주어) 어린(관형어) 소년에게(필수적 부사어) 중요한(관형어) 임무를(목적어) 맡겼다(서술어). → 보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21 '고래는 어류가 아니다.'에서 주어는 '고래는'이고, '어류가'는 보어이다.

오답 해설 ①, ③ '너만'과 '나도'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④ '아버지께서'는 '체언 + 주격 조사'의 높임말(께서)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⑤ '학교에서'는 '체언 + 주어가 단체일 때 쓰이는 주격 조사(에서)'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22 '동생도 이제 나만큼 컸다.'에서 '나만큼'은 부사어이다. 목적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주소나'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마시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② '얘기'는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된 형태의 목적어로, '들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③ '아구는'은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좋아하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④ '밥만이라도'는 '체언 + 보조사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먹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23 '연신'은 부사어이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동사의 활용형이 관형어로 쓰였다. ④ 형용사의 활용형이 관형어로 쓰였다.

24 '친구마저'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오답 해설 ① '광화문으로'는 '체언 + 부사격 조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② '조용히'는 부사 단독으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④ '그래서'는 접속 부사 단독으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⑤ '어지럽게'는 '용언의 어간 + 부사형 어미'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25 ㉠야호(독립어 - 독립 성분)! ㉡우리가(주어 - 주성분) ㉢드디어(부사어 - 부속 성분) ㉣힘든(관형어 - 부속 성분) ㉤관문을(목적어 - 주성분) ㉥통과했어(서술어 - 주성분). →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 ㉠, ㉡, ㉢이고, 부속 성분은 부사어, 관형어인 ㉣, ㉤이며, 독립 성분은 독립어인 ㉥이다.

26 ‘아’는 독립어(감탄사)로, 독립 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세월’의는 관형어, ‘이토록’은 부사어, ‘빠른’은 관형어로, 부속 성분은 모두 3개이다. ③ ㉥은 독립어로 독립 성분이고, ㉣은 부사어로 부속 성분이므로 둘 다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세월의 흐름은 빠른 것인가!’). ④ ㉠은 뒤에 오는 체언 ‘흐름’을, ㉡은 뒤에 오는 체언 ‘것’을 수식하고 있다. ⑤ ㉠은 체언 ‘세월’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있으며, ㉡은 체언 ‘것’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형(‘인가’)으로 결합되어 있다.





Memo





Memo

